



南海岸 初期漁具

# 남해안 초기어구



南海岸 初期漁具

# 남해안 초기어구

# 발간사

##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바다에 적응하고 먹거리를 구했을까?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자연은 극복하거나 맞서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로활동의 대상은 두려운 바다입니다. 이러한 어로활동을 위해 인류가 만든 초기의 어구는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과 도전의 산물입니다. 바다에 적응하고 식량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초기어구는 놀랍게도 현대의 어구와 비교하면, 형태나 작동방식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의 인류가 바다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검증하며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그동안 근현대의 어구 어법에 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구 어법의 근간을 찾기 위해 올해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초기 어구를 조사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해안 초기어구>를 통해 선사시대에 인류가 제작하고 사용한 초기어구들을 살펴보고, 남해안의 해양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해양박물관장 김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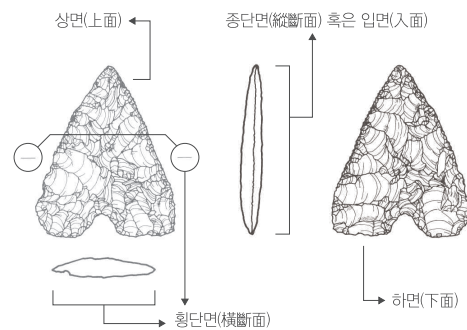
### 일러두기

1. 초기어구는 한반도에서 인류가 처음 발명한 어구를 뜻하며, 본 책에서는 남해안이 형성되고 초기어구를 발명한 신석기시대를 주 배경으로 한다.
2. 본 책에서 대상으로 하는 남해안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연한 모든 해안으로 한다.
3. 본 책에서 다루는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시대의 편년(編年)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연대	시기 구분	비고(토기양식)
12,000 ~ 6,000	초창기(草創期)	고산리식 토기
6,000 ~ 4,500	조기(早期)	웅기문 토기
4,500 ~ 3,500	전기(前期)	영선동식 토기
3,500 ~ 3,000	중기(中期)	수가리 I 식(태선침선문)
3,000 ~ 2,000	후기(後期)	수가리 II 식(퇴화침선문)
2,000 ~ 1,500	말기(末期)	수가리 III 식(이중구연)

4. 본 책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기어구는 크게 '작살', '낙숫바늘', '어망', '패류 채취구' 총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 보조적인 어로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형식을 도면, 도판 그리고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그 기능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5. 본 책에서 제시되는 유물 도면의 축척은 도면 아래에 스케일바와 함께 표시하였으며, 도면의 위치와 계측 부위는 아래와 같다.



6. 유물의 재원과 특징을 설명하는 표의 기본단위는 'cm'이며, 잔존측정치는 '축정값'처럼 괄호 안에 측정값을 적었다.

# 목차



## 발간사 07

### I 조사개요 11

연구대상 및 범위

### II 선사시대 남해안의 자연환경과 유적 15

1. 남해안의 선사시대 해수면 변동
2. 패총 및 해양유적

### III 초기어구 30

1. 작살
2. 낚시바늘
3. 그물
4. 조개잡이
5. 기타

### IV 포획대상물 105

1. 패류
2. 해양포유류
3. 어류

### 부록 : 논고 119

1. 신석기시대 한반도 서북부 일대 어로구의 양상  
가야문화연구원 이상규
2.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 어로구의 변천과 특징  
부산박물관 김은영

# I 조사개요

## I | 조사개요

### 연구대상 및 범위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시기까지 인류는 주로 수렵과 채집활동을 통해 식량을 획득하였다. 숲이나 들판에서 동물이나 열매를 채취하는가 하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어획하였고, 갯벌이나 바위에서 조개류, 갑각류를 채취하기도 했다. 어로활동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인류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고, 바다는 풍부한 자원과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바다에서의 생존을 위해 그들은 바다 환경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한편, 어로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해냈다. 이처럼 바다를 상대로 하는 인류의 생존활동은 높은 수준의 활동인 동시에 바다와 환경, 기술이라는 지식을 축적하여 만들어낸 고등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도 1. 울산 반구대 암각화 일러스트(울산암각화박물관)

## II 선사시대 남해안의 자연환경과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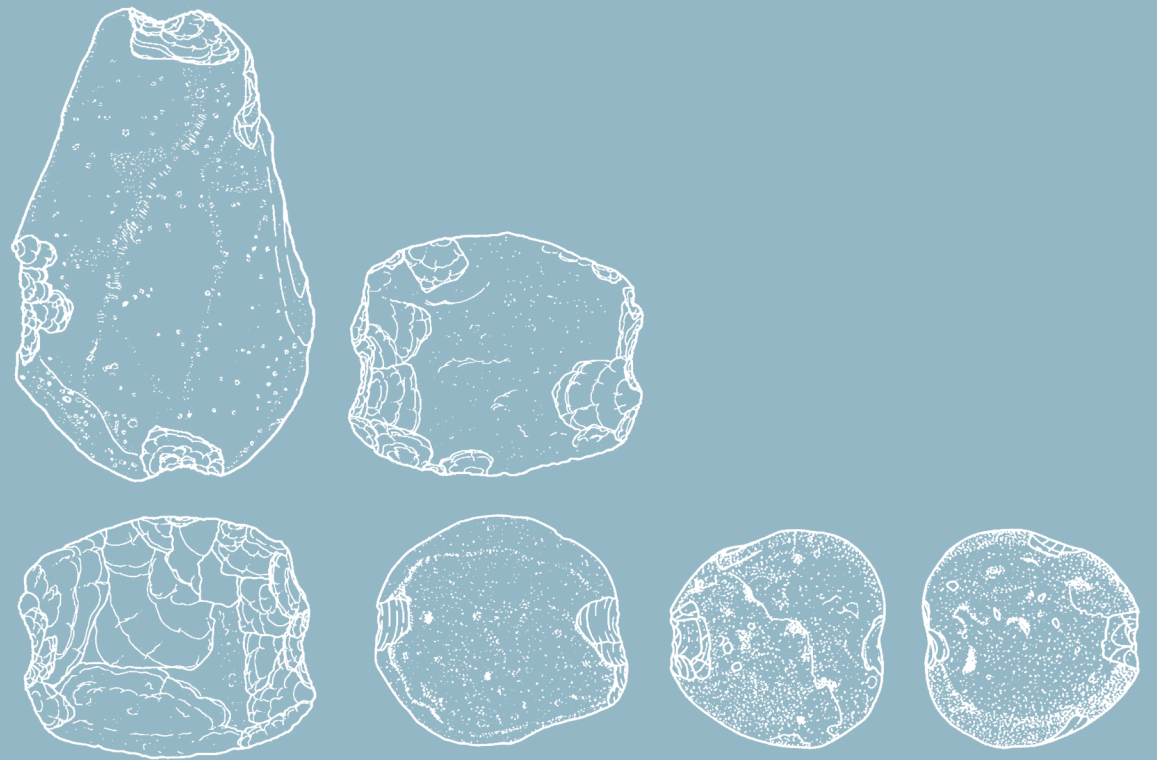
약 1만년전 지구는 제4빙기가 끝나고 후빙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한반도 남해안(南海岸)은 이러한 기온 상승에 따른 해수면(海面) 변동과 침식 작용으로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되어 풍부한 어장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사인들은 활발한 어로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선사인들의 어로활동은 주로 패총(貝塚)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패총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자연유물이나 인공유물들은 당시 해양활동이 어떠한지를 추측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부산 영도구에 있는 동삼동(東三洞) 패총, 김해 수가리 패총, 창녕 비봉리 유적, 완도 여서도 패총 등이 있다.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직접 출토되는 다양한 형태의 어구는 당시의 어로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어로활동은 작살어업, 낚시어업, 어망어업, 함정어업, 패류채취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어로활동에 맞춰서 기능별로 다양한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각 어로별 어구는 적절한 소재와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돌과 뼈로 만든 작살촉, 어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무게의 어망추, 뼈와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낚시바늘, 그리고 사슴뼈로 만든 빗창 등이 패총에서 확인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효과적인 어로활동을 위해서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양한 어구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사시대의 해양활동을 증명하는 유적은 대부분 패총이지만, 암각화의 그림을 통해서 당시의 해양활동을 보여주는 유적이 있다. 울주 대곡천(大谷川)에 위치한 반구대(盤龜臺) 암각화에는 당시 어로활동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암각화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 작살로 고래를 잡는 모습이나 고기잡이용으로 추정되는 그물모양 그림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는 시기적으로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된 동·남해안 사람들의 어로활동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인류의 생업과 관련된 어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특히 근현대의 어구와 어법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왔다<sup>1</sup>. 본 보고서에서는 남해안을 중심으로<sup>2</sup> 사용된 이른 시기의 ‘초기어구(初期漁具)’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연구한 근현대 어구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한반도 남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하였던 선사 및 고대인들이 제작하고 사용한 어구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 2020, 『남해안 어업기술 문화』, 국립해양박물관, 2021, 『동해안 어업기술문화』, 국립해양박물관, 2022, 『어구도집』.  
 2. 가장 및 울산지역의 유적을 남해안으로 포함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신석기시대 문화권 분포를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과 울산지역도 남해안으로 포함하여 보고자 한다.

## II 선사시대 남해안의 자연환경과 유적

### 1. 남해안의 선사시대 해수면 변동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진기	신진기	제4기	
					플라이스토세	홀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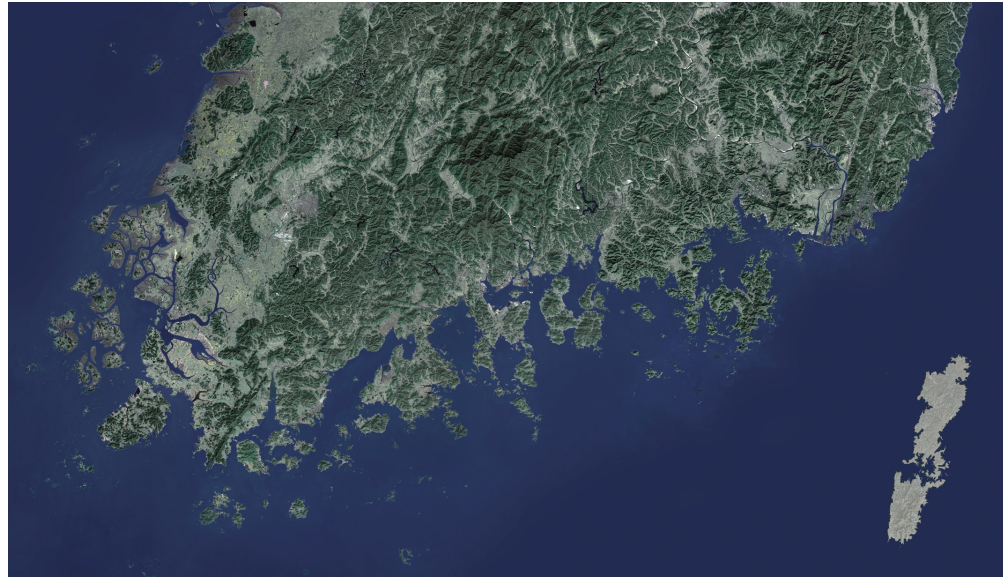
표 1. 지질시대 정리표

지질시대는 크게 선캄브리아대-고생대-중생대-신생대로 구분된다. 그 중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신생대(Cenozoic Era)는 약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한다. 해당 시대는 다시 고진기(Paleogene), 신진기(Neogene) 그리고 제4기(Quaternary)로 세분된다. 그리고 제4기는 또다시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와 홀로세(Holocene)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홀로세는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시대를 칭하는 것으로 플라이스토세 마지막 빙기인 뷔름 빙기가 끝나 기후가 온난해진 현재까지를 뜻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석기시대(Neolithic)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성립되었다. 빙기가 끝나면서 전지구의 기온이 오르면서 극지의 빙하가 녹게 되고, 해수면도 오르게 된다. 극적인 환경 변화를 토대로 인류 문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남해안의 해수면 역시 환경변화에 맞춰서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하게 된다.

## 1 남해안의 선사시대 해수면 변동

## 2 패총 및 해양유적

- 1) 패총이란?
- 2) 패총 특징
- 3) 주요 해양유적



도 2. 남해안 위성사진(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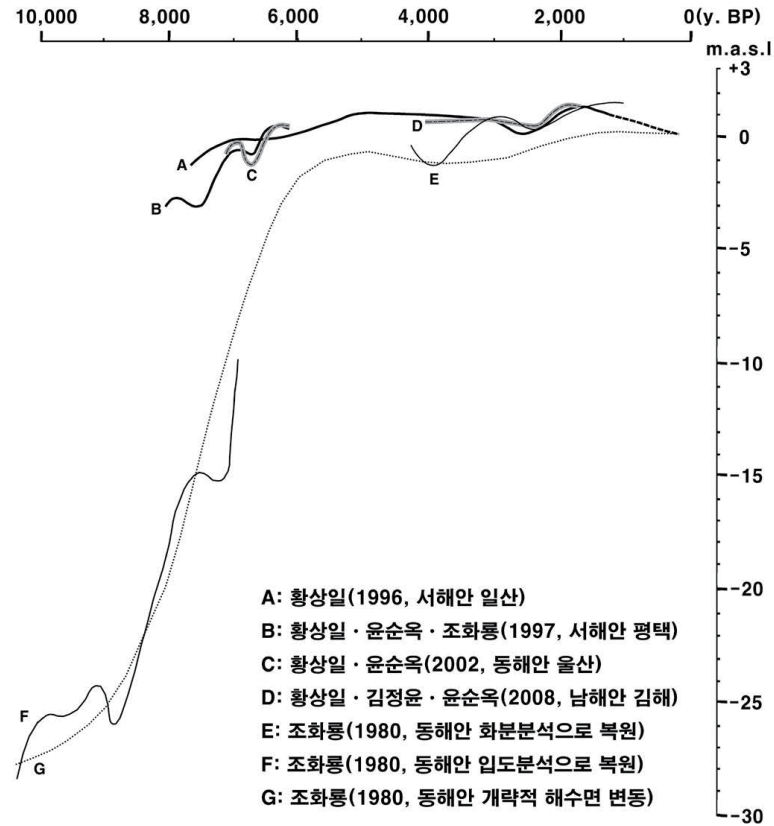
신석기시대 해수면 변동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다만, 일관적으로 홀로세 이후부터 기온 상승과 연동하여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하였다고 해석한다. 남해안에 위치한 고김해만<sup>1</sup>은 이러한 해수면 변동에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준다<sup>2</sup>. 신석기 전기에는 현재 해수면과 비교하여 1.3m~1.1m 정도 낮으며, 중·후기에는 0.4m~0.2m 정도 낮은 위치에 있다. 후·말기에는 현재 해수면보다 0.5m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sup>2</sup>.

지금 현재 고김해만은 김해평야와 삼각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석기시대에는 내해(內海)의 형태를 띤다. 또한 창녕 비봉리 지역도 당시에는 바닷물과 접하는 기수역(汽水域)이었다. 창녕 비봉리 유적의 패각층에서는 기수역에서 발견되는 조개류가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륙 지역에 위치한 창녕 비봉리 역시 해수면 변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석기 초기(早期)에는 현재 해수면에 비해 0.2~0.5m 낮았으며, 전기에는 0.8m 높고, 중기에는 0.2m~1.5m 높았다. 후·말기에는 0.9~1.3m 높았다<sup>3</sup>.

1. 천선행, 2010, 「고김해만을 둘러싼 해수면변동 재고」, 『고고광장』 6, 부산고고학회.
2. 천선행, 2011, 「수가리패총과 고김해만의 해수면 변동」, 『수가리』, 부산대학교박물관.
3. 황상일 외 2인, 2013, 「창녕 비봉리 지역의 Holocene 중기 해수면변동」, 『대한지리학회지』, 48-6, 대한지질학회.



도 3. 낙동강 하류역의 고대의 해수면(임학중 2007 일부 수정)



도 4. 한반도 Holocene 해수면 변동(황상일 외 2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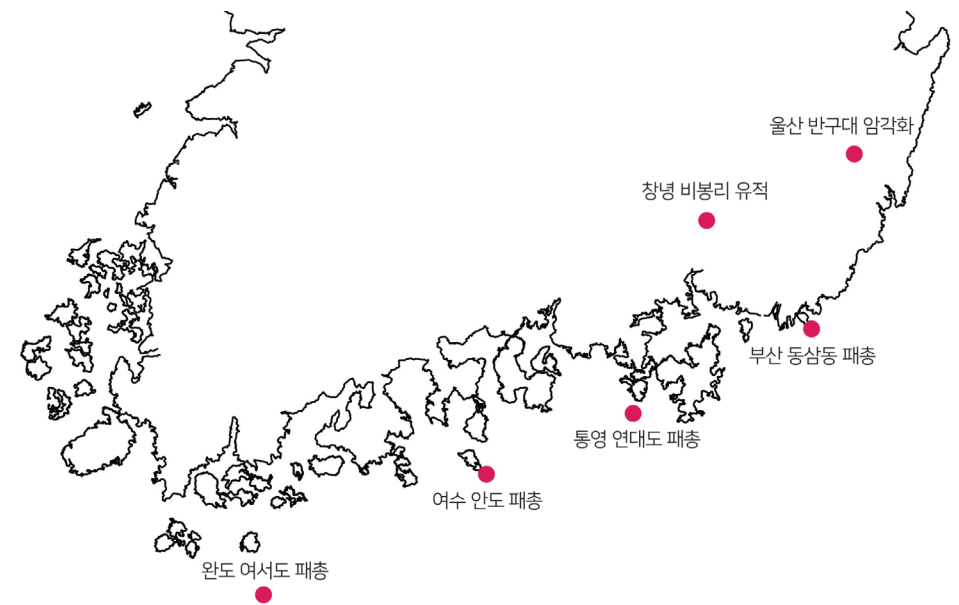
신석기시대 높아진 온도와 해수면의 변동 등 환경변화에 의해 남해안 앞바다는 자원이 풍부한 어장으로 변화하였으며, 신석기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어로문화를 꽃피웠다. 남해안의 패총에는 패각, 어류와 포유류의 뼈 등을 통해서 당시에 포획된 어패류나 해수포유류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남해안 지방에서 확인된 패류는 복족강 72종, 이매패강 53종으로 모두 125종이다. 복족강腹足綱은 소라, 전복, 개울타리고둥, 눈알고둥, 보말고둥, 돌고부지 등이 확인되며, 이매패강二枚貝綱은 굴, 홍합, 백합, 바지락, 꼬막 등이 있다<sup>4</sup>.

4. 이하경, 2023, 「남해안지방 신석기·삼한시대 패총의 성격과 형성배경」,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패총 및 해양유적

### 1) 패총(貝塚)이란?

신석기시대를 시작으로 남해안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패총이 형성되었다. 대부분 바닷가를 연하는 위치에서 발견되며, <도 5>처럼 남해안 곳곳에서 패총을 확인할 수 있다. 패총은 과거 인류가 식량으로 채취하여 먹고 버린 어패류와 동식물 그리고 사용하다 폐기된 도구 등이 긴 기간 동안 썩어 남아 남겨진 거대한 유적이다. 패총 안에 가장 많이 쌓여있는 조개껍질은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었으며, 이 때문에 조개뿐만 아니라 당시에 함께 버려졌던 동물이나 물고기의 뼈나 골각기骨角器 등이 썩어서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부식되지 않고 잘 보존된 동물유체나 패각 등은 현대 연구자들이 선사시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 자료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선사인들이 어떤 동물이나 물고기를 포획하고 섭취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당시에 사용하였다가 폐기한 토기土器, 석기石器, 골각기骨角器, 토제품土製品 등 각종 도구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에 당시 사용한 생업도구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 알 수 있다. 나아가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로에 종사하는 모습을 해당 도구들을 통해 복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총이 가지는 고고학적 가치는 매우 높다.



도 5. 남해안 주요 신석기유적 분포도

## 2) 패총 특징

패총은 형성된 당시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주로 신석기시대와 삼한시대의 것들이 확인된다. 신석기시대 패총과 삼한시대 패총은 시대를 달리하지만 출토되는 어패류의 종류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up>5</sup>.

우선, 신석기시대와 삼한시대의 패총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는 패각과 어류는 굴과 참돔이다. 그 외 출토된 종의 구성 역시 5~6종으로 유사하다. 이는 양 시대간의 시기적 간격이 있지만, 같은 자연환경의 어패류를 포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 패총과 삼한시대 패총의 차이점으로는 입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신석기시대 패총은 섬이나 해안가 혹은 기수역에 분포하는 반면, 삼한시대 패총은 내만<sup>內灣</sup>과 내륙지역에 위치한다. 삼한시대 패총은 근처의 취락<sup>聚落</sup>과 연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그 위치가 바다와 가까운 곳이 아닌 고지대<sup>高地帶</sup> 쪽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남해안의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삼한시대 사람들보다 해양 의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3) 주요 해양유적

2010년 기준으로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패총은 총 598개소이다<sup>6</sup>. 그 중 남부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패총은 총 123개소이다<sup>7</sup>. 패총은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해안선이 단조롭고 물살이 센 동해안은 그 지형적인 조건과 자연환경, 생업형태 등에서 오는 차이에 의해 패총이 남아있는 경우가 적다. 그에 반해, 서해안과 남해안은 동해안에 비해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기에 패총이 만들어지기 적합한 생태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패총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패총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해안 지역의 패총은 남해안보다 조밀하지만 그 규모가 작으며,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 많다. 그에 반해 남해안의 패총은 장기간 동안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된 多문화층의 패총이 많으며, 규모 역시 서해안 패총에 비해 크다.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패총으로는 동삼동<sup>東三洞</sup>, 범방<sup>凡方</sup>, 수가리<sup>水佳里</sup>, 울리<sup>栗里</sup>, 구평리<sup>舊坪里</sup>, 산등<sup>山登</sup>, 목도<sup>牧島</sup>, 연대도<sup>烟臺島</sup>, 욕지도<sup>欲知島</sup>, 상노대도<sup>上老島</sup>, 송도<sup>松島</sup>, 여

서도<sup>麗瑞島</sup>, 안도<sup>安島</sup> 패총 등이 있다. 그 외에 남해안의 어로문화를 보여주는 주요 유적으로 창녕 비봉리<sup>飛鳳里</sup> 패총과 울산 반구대 암각화<sup>盤龜臺 岩刻畫</sup><sup>8</sup> 유적도 존재한다. 다음은 선사시대의 여러 주요 해양유적들 중 대표적인 유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 창녕 비봉리 유적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3번지 일원에 소재하는 창녕 비봉리 패총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 발굴조사<sup>9</sup>를 진행하였다. 해당 유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선<sup>木船</sup>이 출토되었다.

목선은 남해안의 신석기 어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요자료로 볼 수 있다. 배의 소재는 소나무이며, 통나무의 내부를 비워내는 형태로 선박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에는 창녕 비봉리 유적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내해를 이루었으며, 통나무 배를 이용하여 어로활동을 펼쳤을 것이다. 목선 외에도 패각, 도토리 저장공, 곡물 등 신석기인들의 식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도 6. 창녕 비봉리 전경(국립김해박물관 2008)



도 7. 창녕 비봉리 유적 출토 환목선 사진 (국립김해박물관 2008)

5. 이하경, 2023, 앞의 논문.

6.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0, 『한국의 조개더미(貝塚)』.

7. 이하경, 2023, 앞의 논문.

8. 울산 반구대 암각화 유적은 위치상 동해안 유적에 가깝지만, 울산지역의 패총과 남해안 지역의 패총은 사실상 같은 문화권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고에서도 울산지역 해양관련 유적을 남해안 유적들과 같은 문화권으로 보고자 한다.

9. 국립김해박물관, 2008, 『飛鳳里』; 2012, 『飛鳳里 II』.

○ 부산 동삼동 패총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50-1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적<sup>史蹟</sup>으로 지정되었다. 신석기시대 대표적인 패총으로 1969년 국립중앙박물관의 1차 정식발굴을 시작으로 부산박물관 등 여러 기관에서 총 10여 차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sup>10</sup>. 유적은 총 5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각각 신석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기원전 6,000년 무렵부터 2,000년 전후한 시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패총이 형성되었으며, 빗살무늬토기, 결합식 조침, 작살, 장신구 등의 고고유물들과 어패류, 포유류, 식물유체 등의 자연유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남해안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적이며, 일본 규슈지역의 죠몽토기와 흑요석제 석기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때, 일본열도와와의 교류를 상정할 수 있다.



도 8. 부산 동삼동 패총 전경(부산박물관 2017)

○ 울산 반구대 암각화 유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12월에 동국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이 발견하였다. 다양한 해양 및 육지동물과 고래사냥 장면, 사냥꾼, 사람, 가면 등의 모습들이 중첩되어 새겨져 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 청동기시대로 편년되었으나, 현재는 신석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잡이 그림을 통해서 신석기시대부터 한반도의 동·남해안 지역에서 포경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선사시대의 어로 활동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도 9. 울산 반구대 암각화 전경(울산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

10. 국립중앙박물관, 2005, 『東三洞貝塚Ⅰ-第1次發掘調査-』; 2004, 『東三洞貝塚Ⅱ-第2次發掘調査-』; 2004, 『東三洞貝塚Ⅲ-第3次發掘調査-』; 2002, 『東三洞貝塚Ⅳ-動物遺體-』, 부산박물관, 2007, 『東三洞貝塚 淨化地域 發掘調査報告書』.

○ 통영 연대도 패총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연곡리 연대도에 있는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이다. 1988~1991년까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4차례 발굴을 진행하였다<sup>11</sup>. 연대도 패총에서는 신석기시대 무덤이 총 15기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석기, 토기, 골제도구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당시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무덤에서 나온 신석기인의 인골 중 외이도골<sup>外耳道骨腫</sup>이 있는 인골이 2개체 확인되었다. 외이도골<sup>外耳道骨腫</sup>이 있는 인골을 통해 당시 남해안 지방에서 잠수어업<sup>潛水漁業</sup>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 10. 통영 연대도 전경(통영시립박물관)

11. 국립진주박물관, 1993, 『煙臺島』.

○ 여수 안도 패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일대에서 발견된 패총으로 1992년 국립광주박물관의 지표 조사에 의해 처음 알려졌으며, 총 3개의 패총군<sup>貝塚群</sup> 중 1곳을 2002년에 발굴조사하였다<sup>12</sup>. 유적의 층위는 패각층, 혼사력패층, 사력층 등 3개의 층으로 세분되며, 패각층은 다시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안도 패총에서는 신석기문화의 원거리 교역 관계를 보여주는 흑요석 등이 출토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조개팔찌, 흑요석, 작살촉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미루어볼 때, 다양한 해양활동이 안도 패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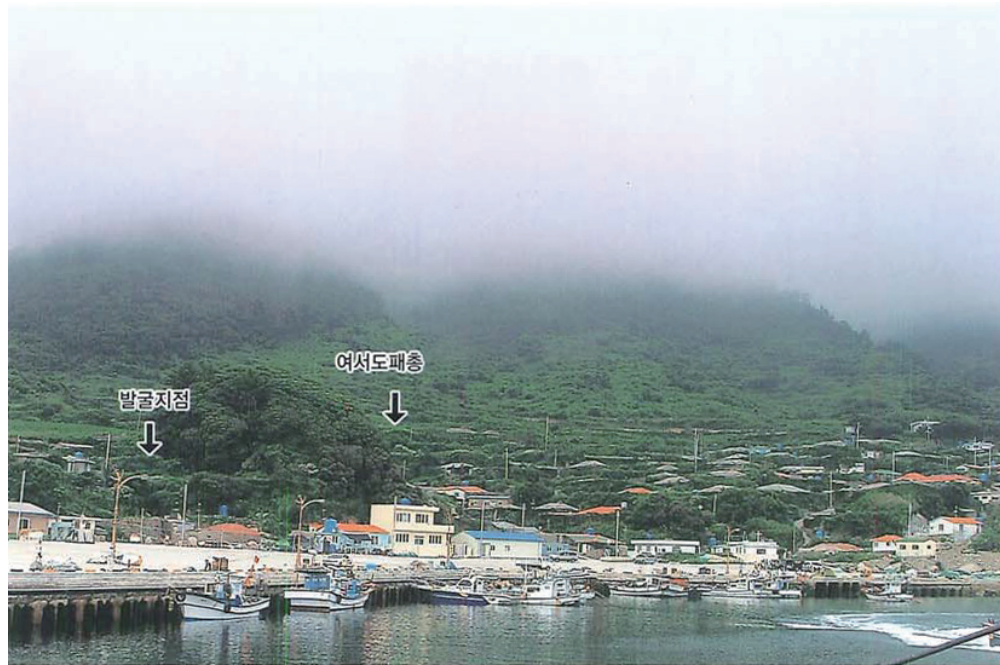
도 11. 여수 안도 패총 전경(붉은 화살표 조사지점, 국립광주박물관 2009)

12. 국립광주박물관, 2009, 『安島貝塚』.

○ 완도 여서도 패총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에 소재한 패총으로, 1996년 전남대학교에 의해 처음 그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2005년에 목포대학교박물관이 발굴조사를 하였다<sup>13</sup>.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며 다양한 토기와 다수의 어로구가 출토되었다. 여서도는 완도에서도 멀리 떨어진 원도<sup>遠島</sup>에 해당한다. 때문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로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서도 패총에서는 여서도형 작살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여서도형 작살은 여서도 패총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특징적인 고정식 골제 작살을 뜻한다. 당시 여서도형 작살을 사용하는 신석기인들은 여서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어로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도 12. 여서도 패총 유적 전경(목포대학교박물관 2009)

○ 부산 범방 패총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97번지 일대에 위치한 패총유적이다. 김해 수가리 패총으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70년대 초에 부분적으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부산시립박물관이 1991년에 발굴조사를 하였다<sup>14</sup>.

즐문토기, 석기, 결합식조침, 토우, 패천, 골각기 등 다양한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용기문토기<sup>隆起文土器</sup>는 신석기시대 토기문화의 변천과정과 편년체계 구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도 13. 범방 패총 발굴 전경(부산시립박물관 1996)

13.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완도 여서도 패총』.

14.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凡方貝塚Ⅰ』; 1996, 『凡方貝塚Ⅱ』.

# Ⅲ 초기어구



## 1 작살

- 1) 고정식 작살
- 2) 분리식 작살
- 3) 회전식 작살과 여서도형 작살의 차이
- 4) 작살의 출현양상

## 2 낚싯바늘

- 1) 결합식 낚싯바늘
- 2) 단식 낚싯바늘

## 3 그물

- 1) 그물의 구성
- 2) 그물의 종류

## 4 조개잡이

- 1) 빗창
- 2) 잠수어업

## 5 기타

- 1) 고선박
- 2) 함정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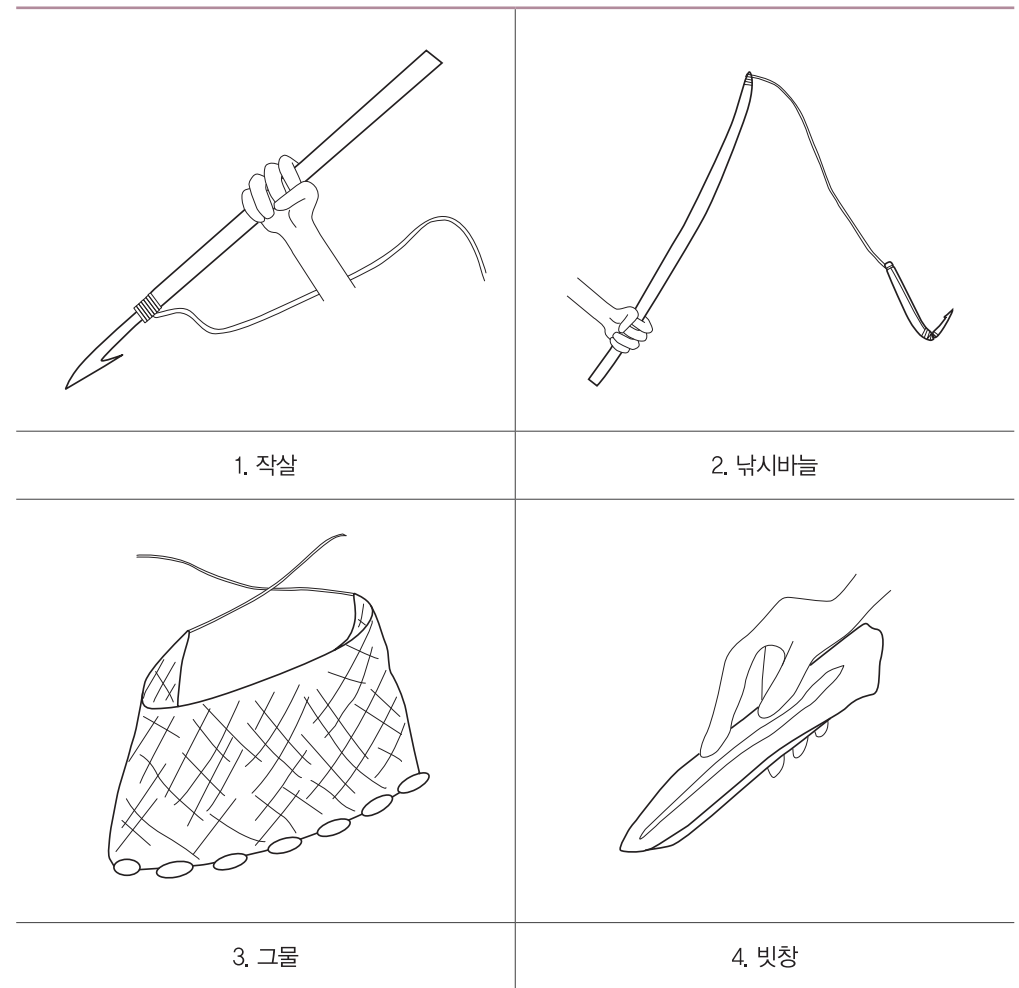
### Ⅲ 초기어구

한반도의 어로활동은 신석기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석기시대 초기<sup>早期</sup>부터 확인되며, 남해안에서 주로 사용된 어구는 작살<sup>[자들어구 刺突漁具]</sup>과 낚시바늘<sup>[조침 釣針]</sup>이다. 그물<sup>[어망 漁網]</sup>과 빗창<sup>[패류채취구 貝類採取具]</sup> 역시 사용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신석기 초기와 전기<sup>前期</sup>에 해당하는 초기어구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이미 활발한 어로활동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구의 출토 형태를 볼 때, 신석기시대에는 어로활동의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낚시바늘이나 작살의 형태는 현대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해양자원을 식량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발한 어로활동은 해수면의 상승에 따른 남해안 지형의 안정 및 식생대의 확장과 연관이 있다. 변화된 자연환경은 한반도 3면의 바다에 풍부한 수산자원을 형성하게 된다.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의 선사인들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수많은 패충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한반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사용된 초기어구<sup>初期漁具</sup>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류 및 설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설정된 초기어구는 크게 작살, 낚시바늘, 그물, 패류채취구로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에 초기어구와 고선박 및 함정어업 관련 도구를 추가하였다.



도 14. 초기어구 모식도

# 1. 작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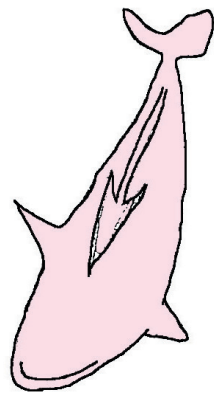
작살은 가장 대표적인 어구이다. 긴 나무 자루에 석제 혹은 골제의 작살촉을 달아 사용하는 도구이며, 수렵채집사회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어로도구로써 사용된 작살의 형태는 미늘이 있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물체사냥감을 향해 던지거나 찌르는 것이다.



도 15. 고래포획 특수 작살(국립해양박물관 소장자료)

현대의 작살도 과거와 같이 던지거나 찌러서 사용한다. 하지만 던지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근대 이후의 크고 무거운 작살은 발사대를 이용하여 투창하는 형태이며, 대부분 철로 만든 작살촉을 가진다. 그에 비해 초기의 작살은 긴 나무 자루에 석제 혹은 골제의 작살촉을 꽂아서 사용하였다. 초기의 작살을 이용하여 잡은 포획물로는 고래, 강치 등의 해양 포유류나 물고기 등이 있다. 초기 작살의 자루 부분은 현재 실물로 남은 것이 없으며, 대부분 석제나 골제로 제작된 작살촉 부분만 남아있다.

특히 후술할 분리식 작살의 경우, 강치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를 잡는데 특화되어 있다.



도 16. 반구대암각화의 고래와 작살(북천박물관 제공)



도 17. 울산 황성동 유적 출토 골촉 박힌 고래뼈(上: 미추, 下:견갑골/한국문화연구원)

미늘여부	有				無
대분류	고정식		분리식		찢개살
소분류	석제	골제	석제	골제	
유형	석촉형 결합식	편기형 여서도형 사두형	석창형 (타제, 마제)	편단기형 편다기형 회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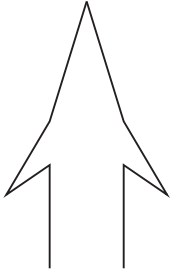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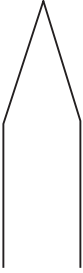
표 2. 남해안 초기어구 작살 분류안

작살은 크게 작살과 자루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초기어구의 부재는 작살촉 뿐이다. 당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루는 현재 그 형태가 남아있지 않아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그에 반해 작살촉은 그 재질과 형태가 다양하게 남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작살촉은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있기에 이를 연구하는 학자마다 작살을 분류하는

1. 자루는 목재(木材)로 제작되었을 것이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당시 작살의 정확한 길이나 재질을 알 수 없다.

기준이 서로 다르다<sup>2</sup>. 특히 미늘의 유무有無를 기준으로 작살을 구분하는 연구자와 그렇지 않은 연구자가 있기에 형태에 따른 작살의 구분은 연구자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sup>3</sup>.

〈도 18〉처럼 미늘이 있는 것은 작살촉, 없는 것은 찢개살로 구분하여 지칭한다. 미늘은 작살을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이며, 그 기능 역시 작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미늘은 목표물에 작살을 꽂아 꿰었을 때, 작살촉이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미늘은 수렵에 있어서 성공률을 높여주는 주요 부위이다. 미늘이 존재하지 않는 찢개살의 경우, 포획물에 촉을 꽂아 넣을 수 있지만, 이후 수거하는 과정에서 포획물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포획물이 크고 무거울수록 더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찢개살은 작고 가벼운 포획물을 잡는데 특화되었으며, 해안가보다 내륙의 강가에서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찢개살은 남해안 일대의 패총에서 출토량이 적다. 이는 찢개살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데 주로 사용했던 어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작살을 소개하는 본 장에서는 찢개살을 제외하였다.

	
미늘 有	미늘 無
작살촉	찢개살

도 18. 작살과 찢개살 구분

2. 하인수, 2017, 『신석기시대 도구론』, 진인진 : 이상규, 2020,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어로문화 변동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형곤, 2019, 『한반도 신석기시대 자돌어업(刺突漁業)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하인수는 재질을 가장 큰 분류기준으로 삼았으며, 총 18가지의 형식으로 작살을 세분하였다. 그에 반해 이상규는 작살의 사용방식을 대분류 기준으로 하여 14가지 형식으로 작살을 구분하였다. 배형곤은 이상규와 비슷하게 사용방식을 대분류 기준으로 두었으나 찢개살을 작살의 범주에 포함하여 총 14개의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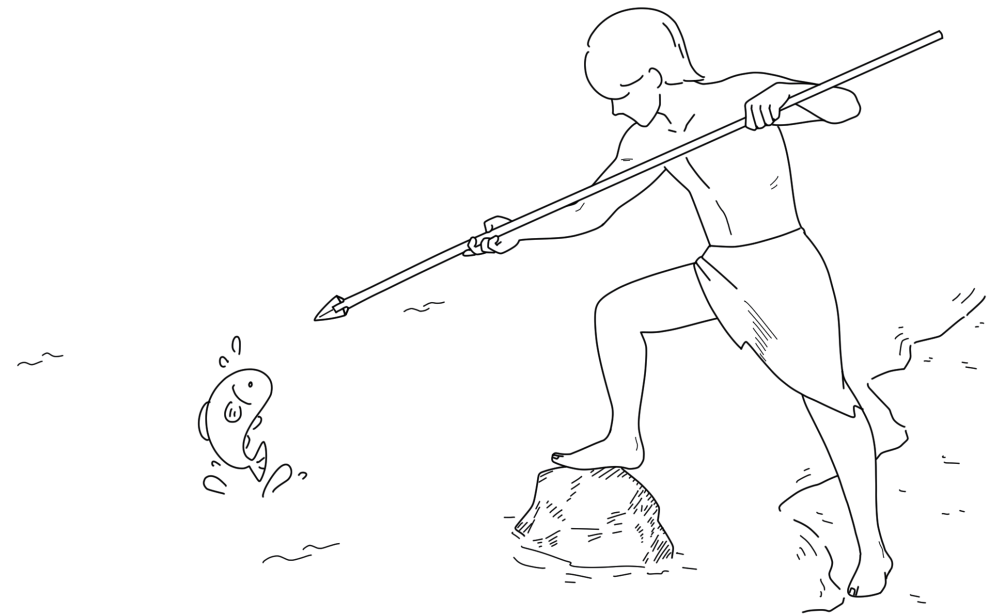
## 1) 고정식 작살

미늘이 있는 작살은 크게 고정식固定式 작살과 분리식分離式 작살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식과 분리식은 작동방식을 본떠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정식 작살은 여러 가지 형태와 재질의 작살촉을 나무자루에 단단하게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고정식 작살은 주로 수심이 얇은 해안가나 석호지대 혹은 어살이나 돌살 등에 걸린 목표물을 내려찍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만큼 대상 목표물은 작살사용자가 직접 내려 찍은 후 포획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목표물을 놓칠 위험이 높다.

고정식 작살은 재질에 따라 석제石製와 골제骨製로 구분할 수 있다. 재질은 다르지만 석제와 골제 모두 촉머리 부분이 날카롭고 미늘을 가지도록 제작된다. 다만, 뼈로 만든 작살촉은 돌보다 상대적으로 무른 재질이기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작살촉으로 만들어진다. 이후 시간이 지나 철기시대<sup>4</sup>에 진입하면 철제의 작살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고정식 작살촉은 각각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이름으로 불린다. 본 장에서는 작살촉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각 소개하고자 한다.



4. 본 책에서 설명하는 철기시대란 '철소재의 물건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대'라는 뜻의 범례적인 표현이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철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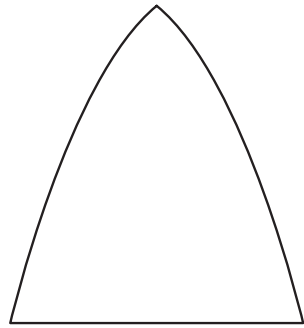
### (1) 석제<sup>石製</sup>

석제 고정식 작살촉은 돌<sup>[石]</sup>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작살을 뜻한다. 이번 장에서는 석제 작살촉 중 고정식 작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주로 사용된 돌의 재질은 흑요석<sup>黑曜石</sup>, 안산암<sup>安山巖</sup>, 이암혼펠스 등이 있다. 석제의 고정식 작살촉은 형태에 따라 석촉형<sup>石鏃形</sup>과 결합식<sup>結合式</sup>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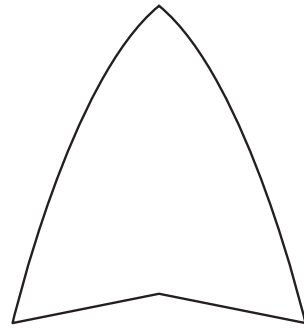
#### 가. 석촉형 작살

돌로 만든 화살촉인 석촉과 유사하게 생겼으나, 실제 석촉보다 크기가 크고<sup>5</sup> 무거우며, 석창<sup>石槍</sup>보다는 작은 작살촉이다. 생김새가 석촉과 유사하기 때문에 석촉형 작살이라 한다.

특징으로는 자루와 결합하는 스펀부분이 따로 없으며 기부<sup>基部</sup>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루를 끼워 넣어 고정한다. 기부가 들어가지 않고 평평한 것을 삼각평기형<sup>三角平基型</sup>이라 하며, 기부가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삼각만입형<sup>三角灣入型</sup>이라 부르며 각각을 구분한다.



삼각평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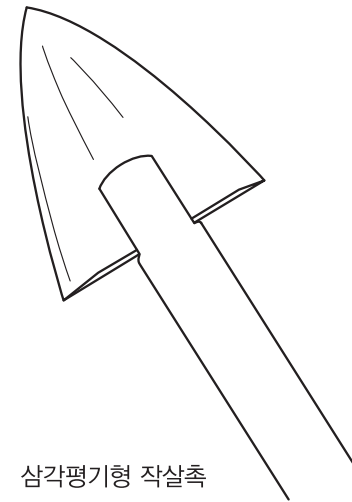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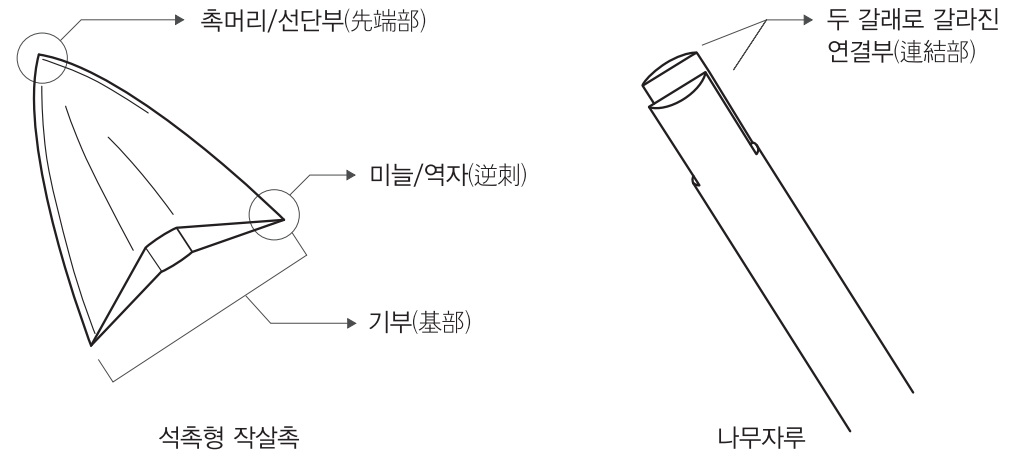


삼각만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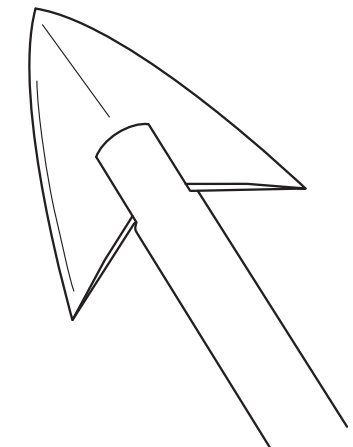
도 19. 석촉형 작살 모양 구분

작살촉의 단면을 편평하게 제작하여 포획물을 관통하기 쉽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기부 양쪽으로 돌출된 역자<sup>逆刺</sup>부분은 미늘의 역할을 한다. 미늘은 포획물에 꽂혀들어간 작살이 포획물 체내에서 빠지지 않도록 한다. 석촉형 작살촉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작살로 볼 수 있다.

5. 석제 화살촉과 석촉형 작살촉은 촉의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본 책에서는 4cm를 기준으로 이보다 작으면 화살촉, 크면 작살촉으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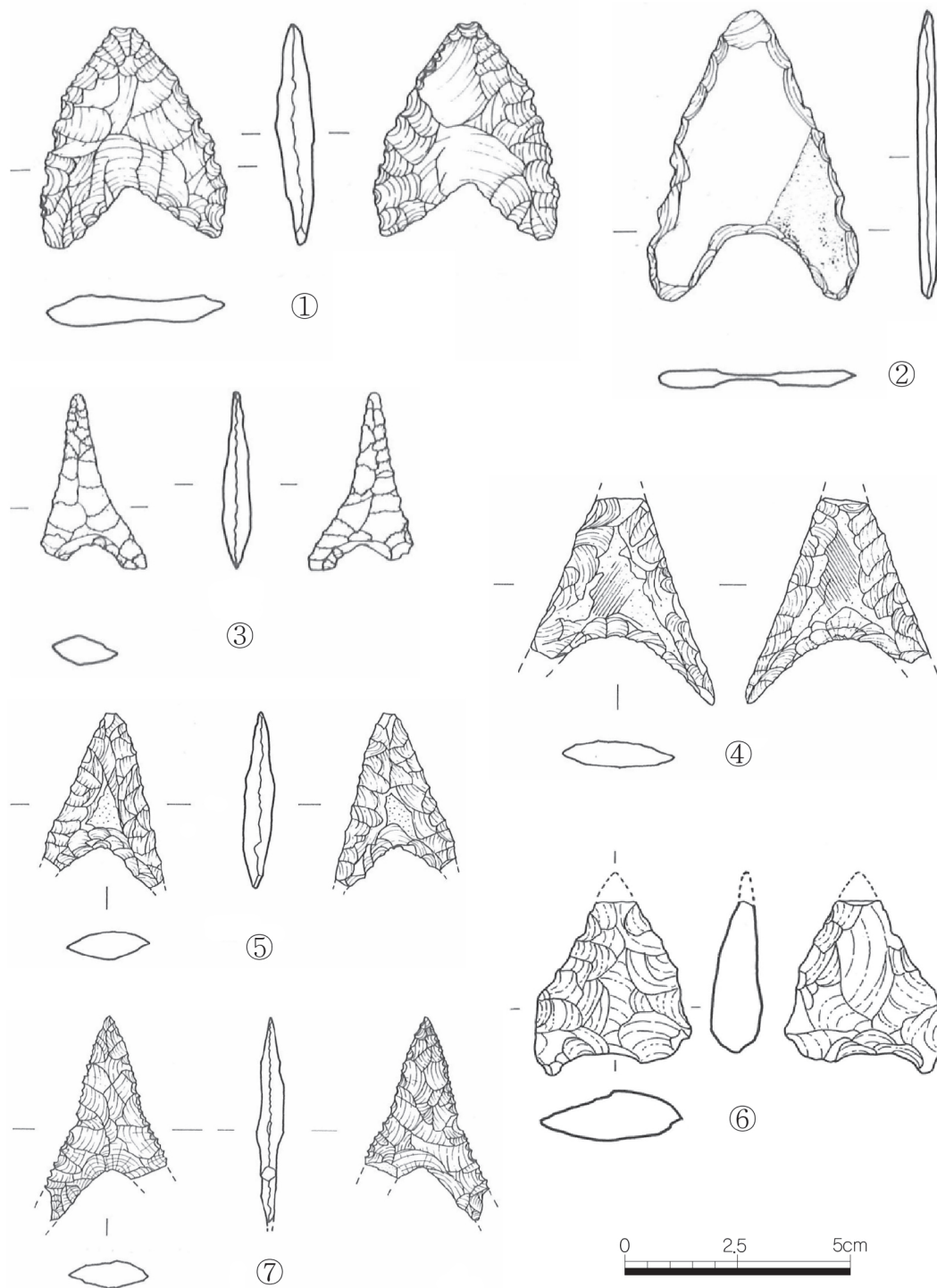
삼각평기형 작살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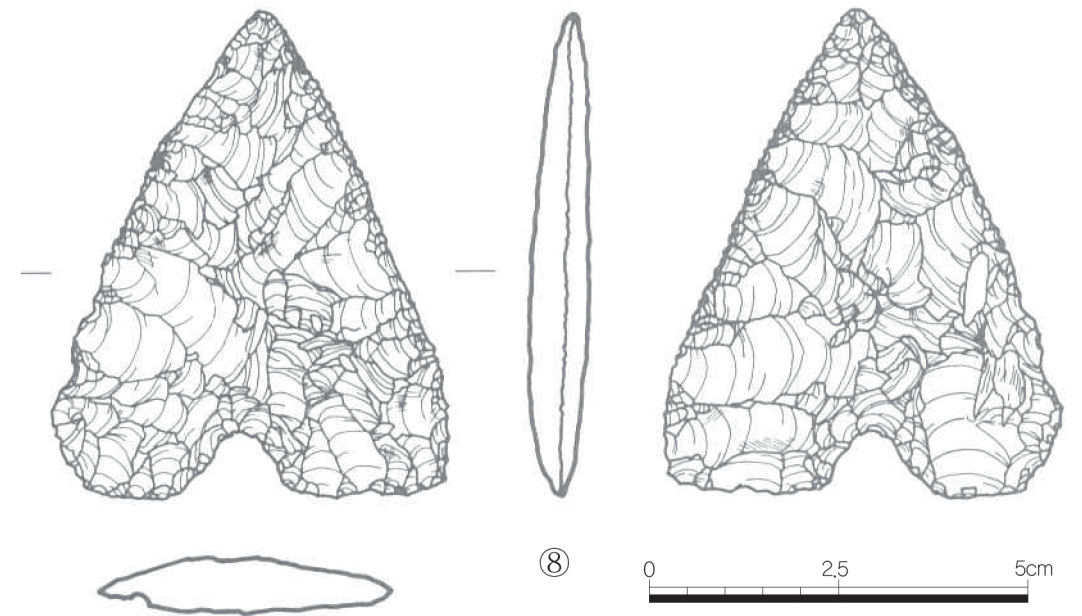
삼각만입형 작살촉

석촉형 작살촉의 자루 연결방식

도 20. 석촉형 작살촉 모식도



도 21. 석촉형 작살촉(축척 1:1.5)



도 22. 석촉형 작살촉(축척 1:1)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층위
1	육지도 패총	흑요석	4.9	4.0	0.8	Ⅲ층
	평면 형태는 등근 삼각만입형, 완형, 무게 11.0g.					
2	육지도 패총	혼펠스	6.3	4.6	0.4	Ⅲ층
	평면 형태는 삼각만입형이며, 단면은 납작, 무게 11.7g.					
3	육지도 패총	혼펠스	3.9	2.3	0.7	Ⅲ층
	평면 형태는 삼각만입형, 한쪽 미늘이 결실, 무게 2.3g.					
4	연대도 패총	혼펠스	(3.3)	(2.9)	0.4	FIVa층
	평면 형태는 삼각만입형, 촉머리 부분과 한쪽 미늘 부분이 결실.					
5	연대도 패총	사누카이트	(2.3)	1.9	0.4	교란층
	평면 형태는 삼각만입형, 양쪽 미늘이 일부 결실, 무게 4.7g.					
6	동삼동 패총	사누카이트	(3.8)	3.5	1.1	4층
	평면 형태는 삼각평기형, 촉머리 부분이 일부 결실.					
7	연대도 패총	흑요석	(3.1)	(1.9)	0.4	GIVa층
	평면 형태는 삼각만입형이며, 양쪽 미늘은 일부 결실.					
8	동삼동 패총	흑요석	6.5	5.2	0.7	지표채집
	평면 형태는 삼각만입형, 단면은 가운데가 두꺼운 렌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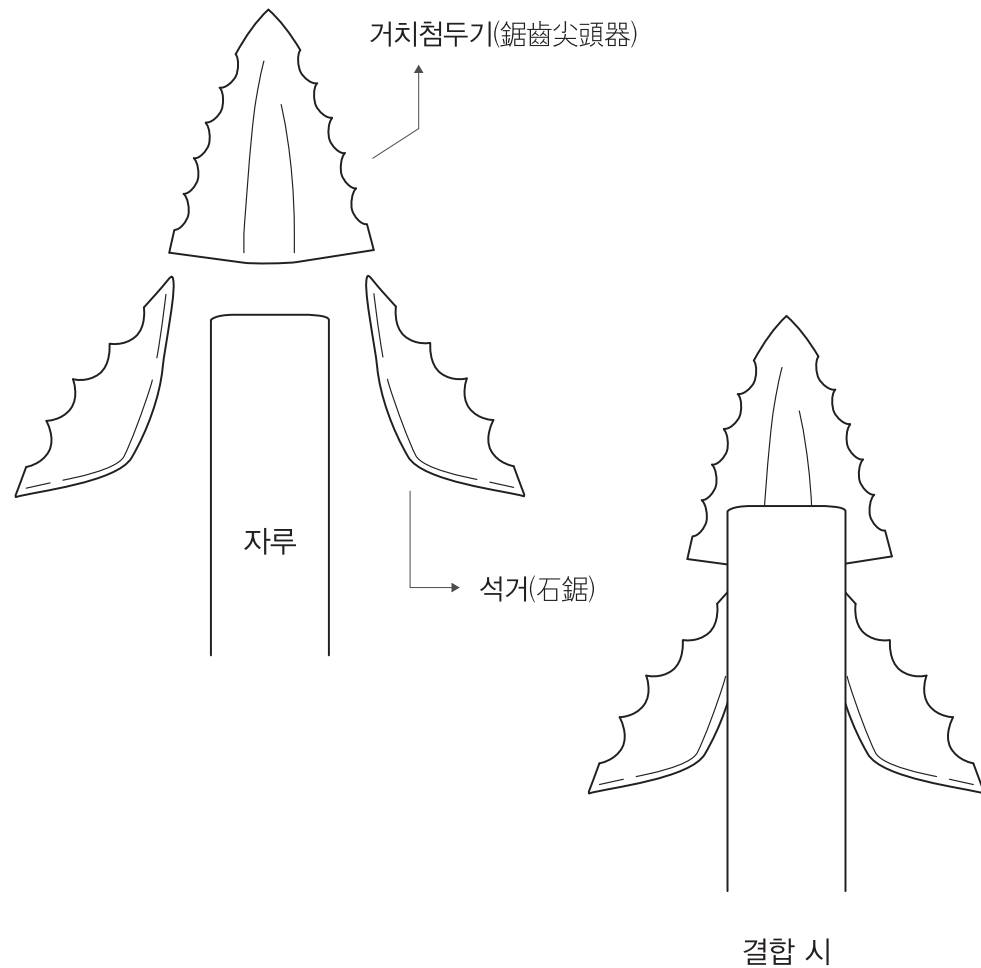
표 3. (도 21·22) 석촉형 작살촉 제원 및 특징

### 나. 결합식 작살

결합식 작살은 여러 개의 돌날을 자루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촉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자루 끝부분에는 뾰족하고 톱니모양의 날을 가진 거치침두기(鋸齒尖頭器)를 붙이고, 양쪽 날 부분에도 톱니모양의 날을 가진 석거(石鋸)를 붙인다. 이 돌날은 모두 사냥감 관통에 유리하도록 단면을 편평하게 제작하였다.

거치침두기는 석촉형 작살촉처럼 자루의 끝에 부착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석거는 그 주위로 하나씩 열을 지어 결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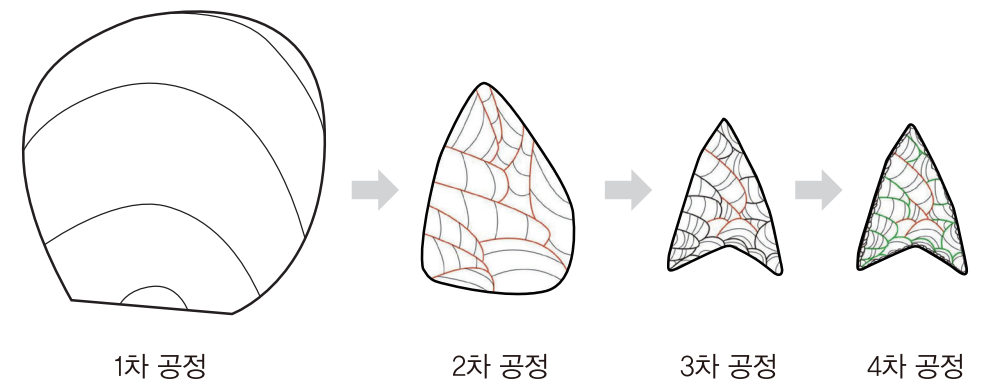
결합식 작살촉은 모두 흑요석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흑요석이 톱니모양의 날을 만들기 용이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해안 일대에서 흔하게 사용된 작살은 아니며, 부산 동삼동 패총과 통영 상노대도 패총 등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도 23. 결합식 작살촉 모식도 및 결합방식

### - 흑요석제 작살촉

석촉형 작살촉과 결합식 작살촉의 재질 대부분은 흑요석에 해당한다. 흑요석은 화산지대의 유리질 암석으로 마그마의 분출과정에서 생성되는 암석이다. 검은 빛깔을 띠며, 다른 암석들에 비해 가공이 용이한 편이다. 결합식 작살촉의 모양을 통해 알 수 있듯, 주로 톱니모양의 날로 가공되며, 매우 날카롭다. 화살촉 제작에 주로 사용되며, 작살촉과 마찬가지로 삼각평기형이나 삼각만입형으로 만들어진다. 화살촉은 작살촉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지만, 크기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길이 4cm를 기준으로 작은 것은 화살촉, 큰 것은 작살촉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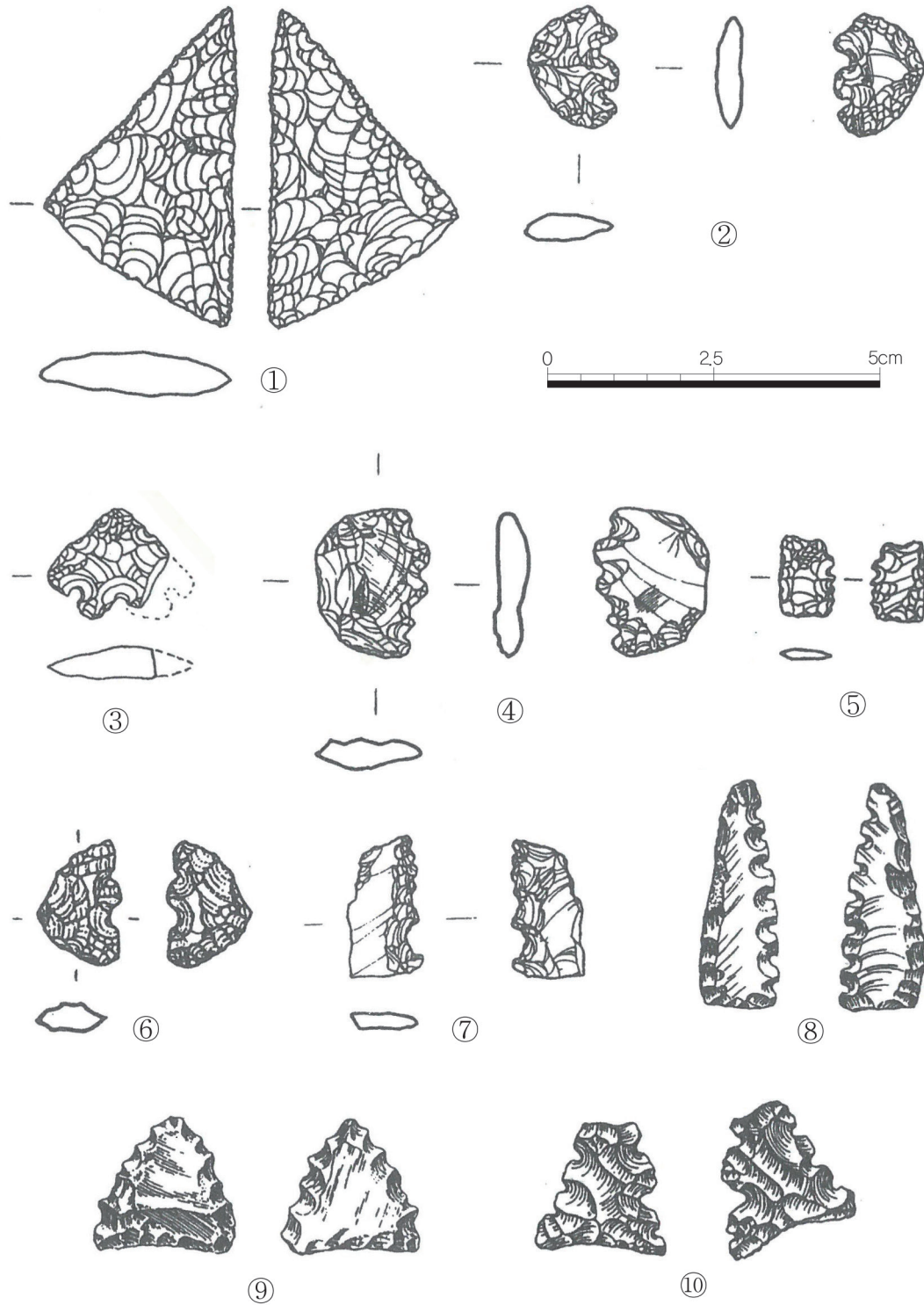


도 24. 흑요석제 석촉 제작 공정(정철 2022)

작살촉의 제작공정은 <도 24><sup>7)</sup>와 같다. 우선,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구한 뒤, 이를 큰 박편(薄片)으로 떼어낸다<sup>1차 공정</sup>. 떼어낸 박편을 원하는 모양으로 제작하기 위해 돌을 깨어 대략적인 형태를 잡는다<sup>2차 공정</sup>. 그리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모양의 형식에 맞게 돌을 떼어낸다<sup>3차 공정</sup>. 마지막으로 돌의 날 부분을 세밀하게 떼어내는 작업(잔손질)을 하거나 자루와의 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부에 홈을 내는 작업 등을 한다<sup>4차 공정</sup>.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당시 사람들은 흑요석제의 석촉형 작살촉과 결합식 작살촉을 원하는 모양으로 제작한다.

6. 4cm보다 큰 것을 화살촉으로 사용할 경우, 화살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된다.  
7. <도 24>의 공정은 화살촉의 공정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제작물의 크기만 다를 뿐 작살촉의 공정과 다르지 않다.



도 25. 결합식 작살촉 도면(축척 1:1)

No.	출토지	재질	길이(cm)	너비(cm)	두께(cm)	출토위치
1	하리 패총	흑요석	4.8	2.8	0.7	-
	결합식 작살의 머리 부분(거치침두기)으로 추정, 단면은 볼록렌즈형.					
2	동삼동 패총	흑요석	2.0	1.3	0.4	GXX II 층
	결합식 작살의 양쪽날 부분(석거)에 해당, 한쪽을 톱니 날로 제작, 무게 1.3g.					
3	하리 패총	흑요석	1.8	1.6	0.5	-
	결합식 작살의 양쪽날 부분(석거)으로 추정, 단면은 볼록렌즈형.					
4	동삼동 패총	흑요석	2.5	1.9	0.4	GXX II 층
	결합식 작살의 양쪽날 부분(석거)에 해당, 한쪽을 톱니 날로 제작, 무게 2.2g.					
5	하리 패총	흑요석	1.2	0.8	0.2	-
	결합식 작살의 양쪽날 부분(석거)으로 추정, 단면은 얇은 볼록렌즈형.					
6	동삼동 패총	흑요석	2.1	1.2	0.4	교란층
	결합식 작살의 양쪽날 부분(석거)에 해당, 한쪽을 톱니 날로 제작.					
7	동삼동 패총	흑요석	2.3	1.2	2.5	IV 층
	결합식 작살의 양쪽날 부분(석거)에 해당, 장방형의 평면 형태이며, 한쪽을 톱니날로 제작, 무게 1.0g.					
8	상노대도 패총	흑요석	-	-	-	-
	결합식 작살의 양쪽날 부분(석거)으로 추정.					
9	상노대도 패총	흑요석	-	-	-	-
	결합식 작살의 머리부분(거치침두기)으로 추정.					
10	상노대도 패총	흑요석	-	-	-	-
	결합식 작살의 머리부분(거치침두기)으로 추정.					

표 4. (도 25) 결합식 작살촉의 재원 및 특징

## (2) 골제

작살촉의 소재가 뼈[骨] 혹은 뿔[角]인 작살이며, 그 형태에 따라 편기형[偏機型], 양기형[兩機型], 여서도형[麗瑞島型], 사두형[蛇頭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골제 작살촉은 돌로 만든 석제 작살촉에 비해 제작이나 성형이 쉽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석제 작살촉이 대부분 좌우대칭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반면, 골제 작살촉은 좌우비대칭인 경우가 많다. 특히 작살의 미늘이 양쪽에 있지 않고, 한쪽에만 있도록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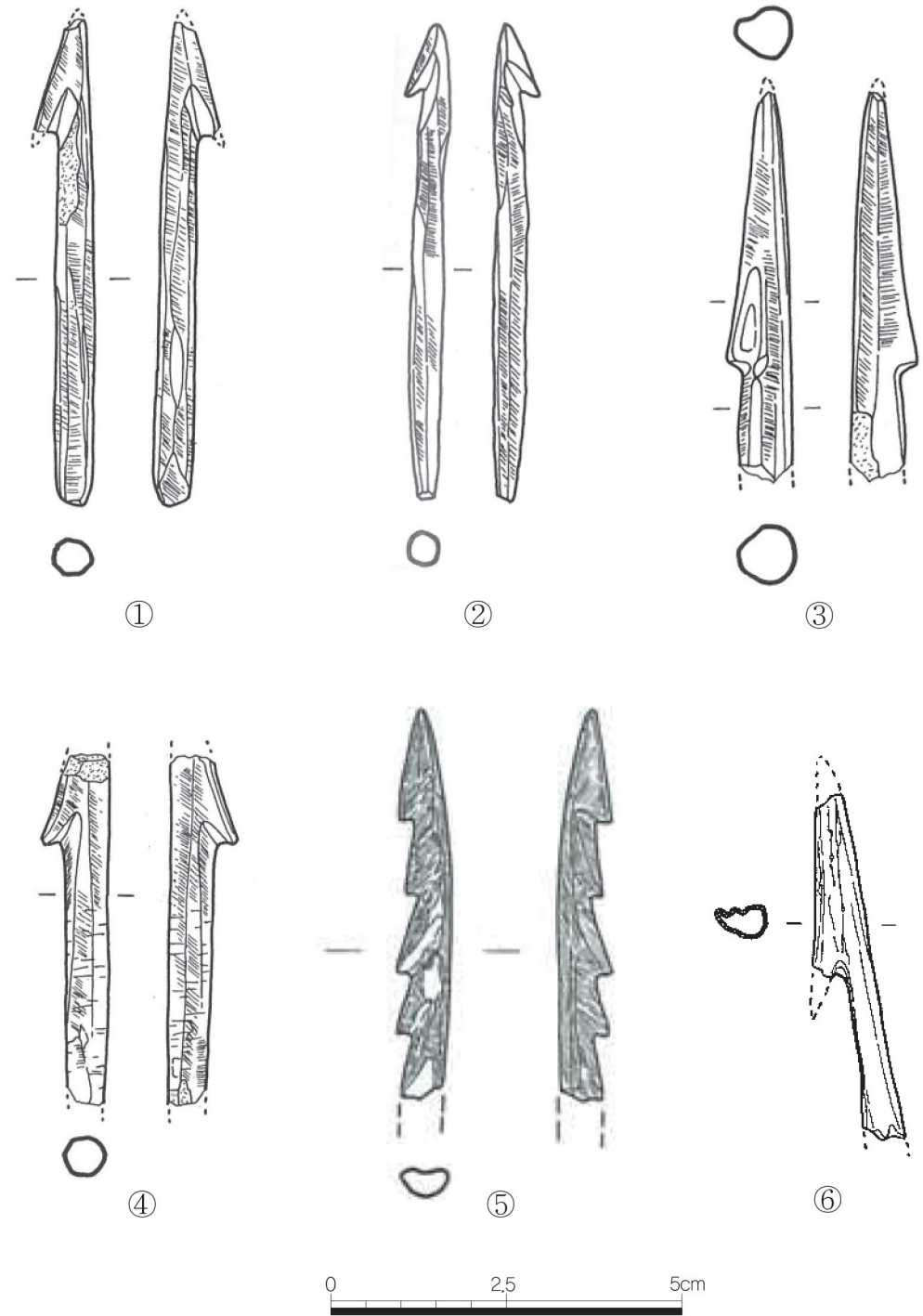
골제 작살촉의 단면은 타원형, 반원형 그리고 편평한 것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자루와 연결되는 스페 부분에는 자루와의 결합이 쉽도록 별다른 시설 없이 매끈한 형태를 띠고 있다.

### 가. 편기형 작살

골제 작살촉 중 한쪽 면에만 날이 있는 것을 편기형 작살이라고 부른다. 스페 부분은 자루와 결합이 쉽도록 매끈하게 제작되었으며, 단면은 대체로 원형 혹은 반원형을 띤다. 작살의 한쪽 면에만 미늘이 1개 혹은 여러 개가 달려있다. 미늘이 1개만 있는 경우 편단기형[偏單機型]이라고 하며,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편다기형[偏多機型]이라고 한다.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동삼동 패총	사슴뼈	7.1	0.8	0.5	2호 주거지
	미늘이 1개 있는 편단기형 작살, 촉머리 끝부분과 미늘 끝부분이 일부 결실, 단면은 원형.					
2	동삼동 패총	사슴뼈	6.8	4.5	0.8	4호 수혈
	미늘이 1개 있는 편단기형 작살, 전면에 마연흔이 확인, 원형, 단면은 원형.					
3	동삼동 패총	사슴뼈	(5.5)	0.9	0.8	5-1층
	미늘이 1개 있는 편단기형 작살, 촉머리 끝부분 일부와 아랫부분이 결실, 단면은 원형.					
4	동삼동 패총	사슴뼈	(4.9)	1.0	0.6	교란층
	미늘이 있는 편기형 작살, 촉머리 부분과 아랫부분이 결실, 아래쪽에 횡방향으로 짧은 홈이 확인, 단면은 원형.					
5	동삼동 패총	뼈	(5.7)	0.8	0.4	HXVIII층
	미늘이 최소 5개 이상 있는 편다기형 작살, 아랫부분은 결실, 단면은 반원형.					
6	범방 패총	뼈	(4.9)	0.6	0.5	D피트
	미늘이 1개 있는 편단기형 작살, 촉머리 끝부분과 미늘 끝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이 결실, 단면은 반원형.					

표 5. <도 26> 편기형 작살촉 제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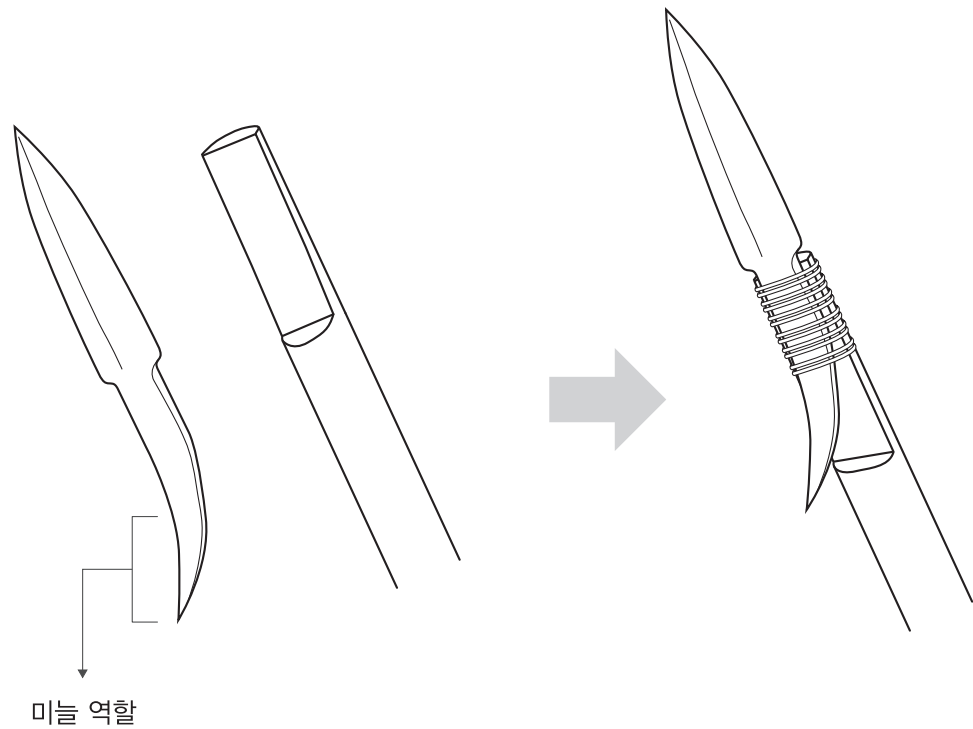


도 26. 편기형 작살촉 도면(축척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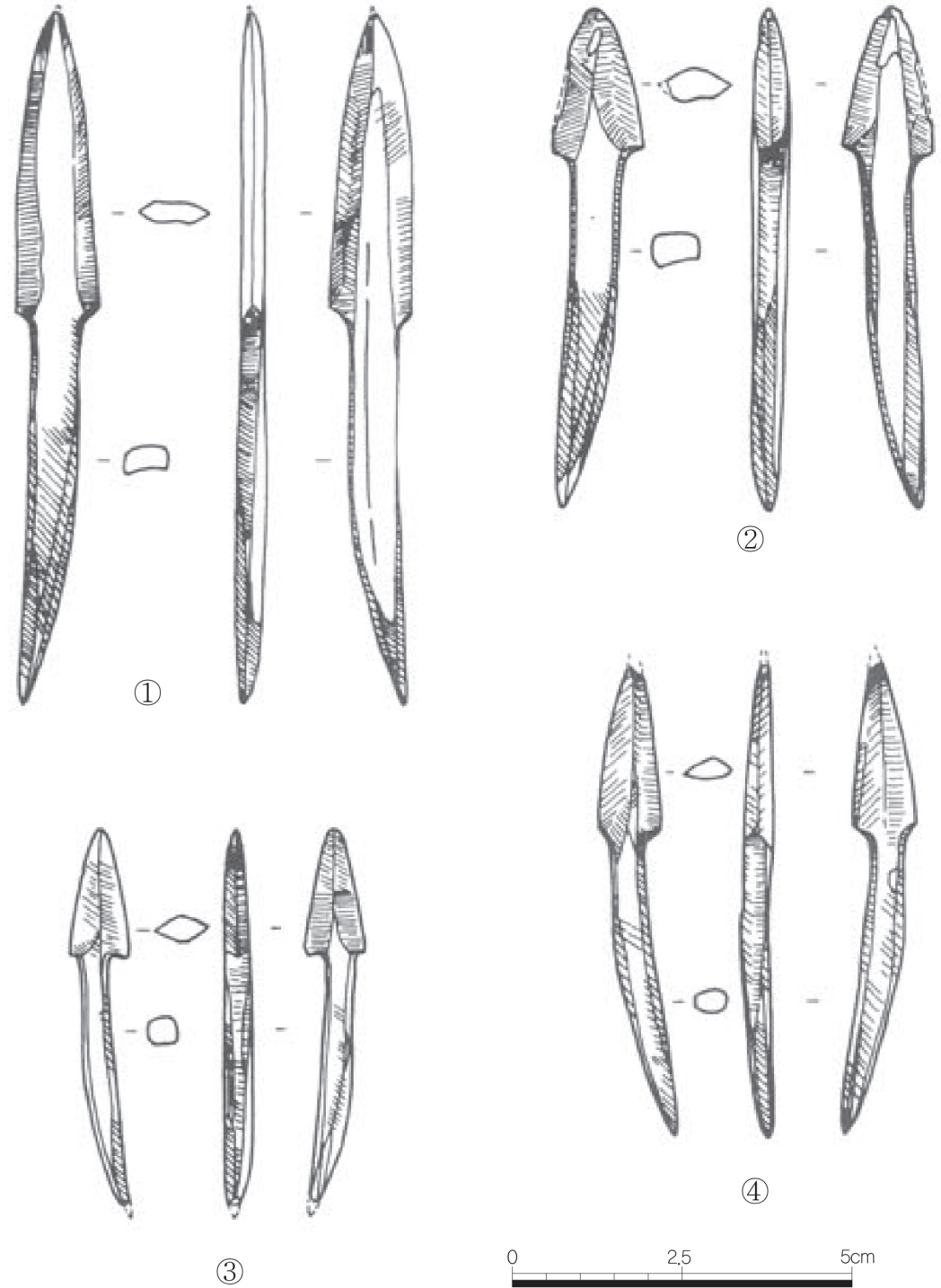
나. 여서도형 작살

완도 여서도 패총을 중심으로 다량 발굴된 특수한 형태의 고정식 작살촉으로 지역명을 붙여 여서도형 작살이라고 한다. 특이하게도 다른 작살촉 형식들은 형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식명이 정해졌으나, 해당 작살촉은 출토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여서도형 작살은 단면이 납작하며, 촉머리 부분은 아래의 줄로 연결되는 스페 부분에 비해 좌우로 넓게 제작되었다. 그리고 스페 부분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며, 좌측이나 우측으로 휘어져 있다. 이렇게 휘어진 스페 부분은 작살의 미늘 역할을 한다. 작살촉을 만들 때부터 스페 부분은 미늘 역할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출토된 여서도형 작살의 촉 끝부분<sup>[先端部]</sup>은 뾰족하지 않고 멍푹하게 닳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실제 고정식 작살로 사용하면서 마모된 것이다.



도 27. 여서도형 골제 작살 결합방식



도 28. 여서도형 작살촉 도면(축척 1:1)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여서도 패총	뼈	10.4	1.2	0.4	V층
	촉머리 부분이 이등변삼각형 형태이며, 스페 부분이 한쪽으로 휘어짐, 전면(全面)에 마연 흔적이 잔존, 완형.					
2	여서도 패총	뼈	(6.7)	0.9	0.3	IV층
	촉머리 부분이 이등변삼각형 형태이며, 전면에 마연 흔적이 잔존, 스페 부분이 한쪽으로 휘어져 나감. 촉머리 끝부분이 일부 결실.					
3	여서도 패총	뼈	(5.6)	0.9	0.4	V층
	촉머리 부분이 이등변삼각형 형태이며, 전면에 마연 흔적이 잔존, 스페 부분이 한쪽으로 휘어짐, 스페 끝부분이 일부 결실.					
4	여서도 패총	뼈	7.5	1.3	0.5	V층
	촉머리 부분이 삼각형 형태이며, 전면에 마연 흔적이 잔존, 스페 부분이 한쪽으로 휘어짐, 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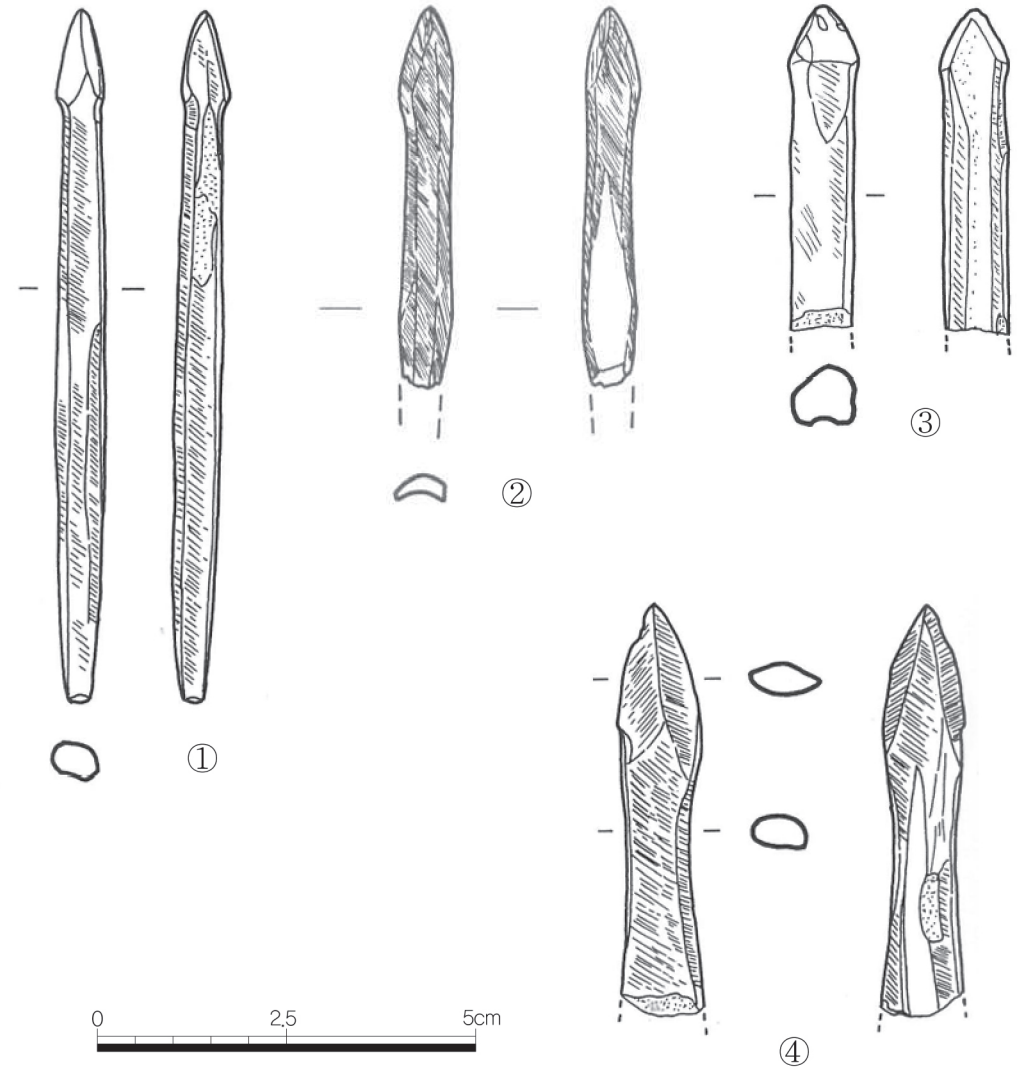
표 6. <도 28> 여서도형 작살촉 제원 및 특징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동삼동 패총	사슴뼈	9.7	0.6	0.5	5-1층
	촉머리가 뱀의 머리를 닮은 사두형 작살, 목부분에는 마연 흔적이 잔존, 결실이 없는 완형, 단면은 타원형.					
2	동삼동 패총	-	(8.0)	0.7	0.3	IV층
	촉머리가 마름모꼴에 가까운 사두형 작살, 마연 흔적이 양호하게 잔존, 아랫부분이 결실, 단면은 오목한 반원형.					
3	동삼동 패총	사슴뼈	(4.3)	0.9	0.7	2호주거지
	촉머리가 삼각형에 가까운 마름모꼴이며, 미늘부분이 약하게 돌출, 아랫부분은 결실, 단면은 오각형에 가까운 부정형(不定形).					
4	동삼동 패총	사슴뼈	(5.4)	1.1	0.4	2층
	촉머리 부분은 버들잎모양에 가까운 사두형 작살, 촉머리 부분과 목부분에 마연 흔적이 잔존, 아랫부분이 결실, 단면은 타원형에 가까움.					

표 7. <도 29> 사두형 작살촉 제원 및 특징

#### 다. 사두형 작살

사두형 작살은 목 부분이 길고 직선이며, 머리 부분은 뱀의 머리처럼 마름모꼴을 하고 있다.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미늘 역할을 한다. 작살촉의 목부분(頸部)은 대부분 긴 편이고, 작살촉의 단면은 삼각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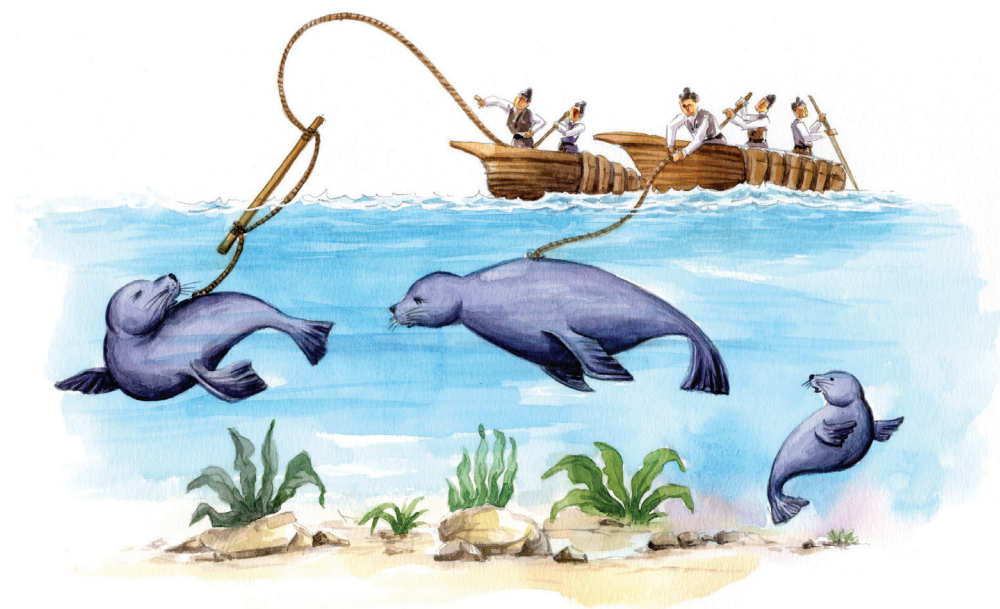


도 29. 사두형 작살촉 도면(축척 1:1)

## 2) 분리식 작살

분리식 작살은 자루에 작살촉을 완전히 고정하여 사용자가 직접 찌르는 고정식 작살의 사용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분리식 작살은 작살촉과 자루를 서로 붙이거나 뗄 수 있는 탈착식(脫着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식 작살처럼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살촉에는 긴 줄을 묶어 사용한다. 때문에 작살촉의 슛베 부분에는 줄을 감기 위한 별도의 장치(齒)가 확인된다.

작살촉이 자루에 고정된 상태로 대상물을 향해 던져 찌르면, 작살촉은 대상물의 체내에 박힌 상태로 빠지지 않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작살자루는 작살촉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탈락(脫落)되고 사용자는 작살촉과 연결된 줄을 통해 대상물을 추적 및 포획하게 된다. 분리식 작살은 고정식 작살과 달리 멀리 있는 대상을 상대로 수렵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번 대상을 맞추면 수심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표 대상이 깊은 수심으로 빠르게 도망치더라도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후 잡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덩치가 큰 대상(고래, 상어, 강치 등)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분리식 작살과 고정식 작살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대상으로 하는 포획물이 전혀 다른 별개의 어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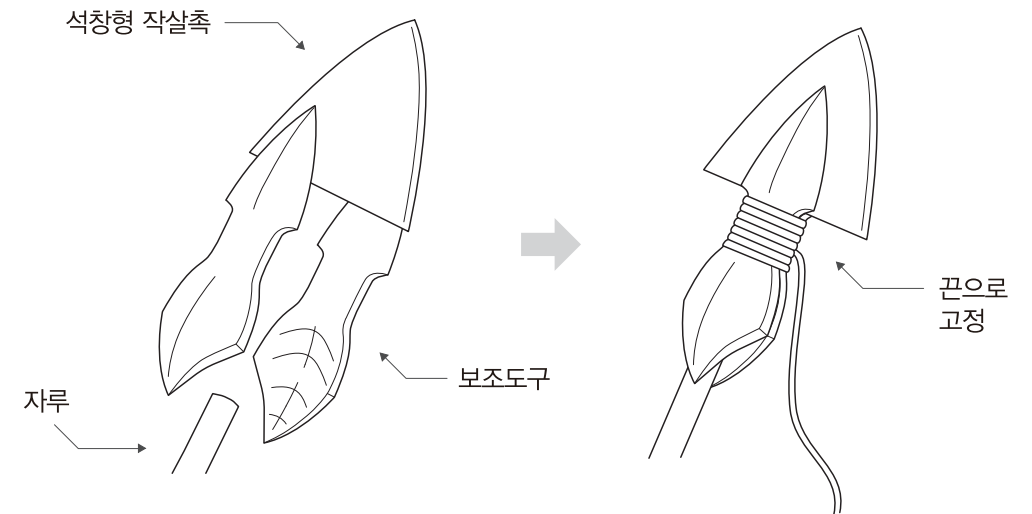


도 30. 분리식 작살 사용방식(북천박물관 제공)

### (1) 석제-석창형 작살

돌로 제작된 분리식 작살은 제작방식과 형태에 따라 타제 석창형(打製石槍型)과 마제 석창형(磨製石槍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제작방식에 따른 분류이며, 그 기능과 작동 방식은 같다<sup>8)</sup>.

석제의 분리식 작살은 고정식 작살의 일종인 석촉형 작살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크기가 더 크다. 크기가 큰 만큼 표면적 역시 넓기 때문에 물의 저항이 높아 수중에서 이동을 하며 사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작살촉을 자루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고정식 작살 보다는 분리식 작살에 더욱 적합한 형태를 하고 있다. 또한 석창형 작살은 중심에 작은 구멍(투공(透孔))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조도구와의 결합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창형 작살촉은 자체적으로 미늘을 가지고 있으나, 줄을 연결할 슛베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슛베 역할을 대신해 줄 보조도구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남해안의 패총유적에서는 보조도구로 추정되는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형태와 결합방식을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지역의 민족지 사례를 통해 보조도구의 형태나 결합 방식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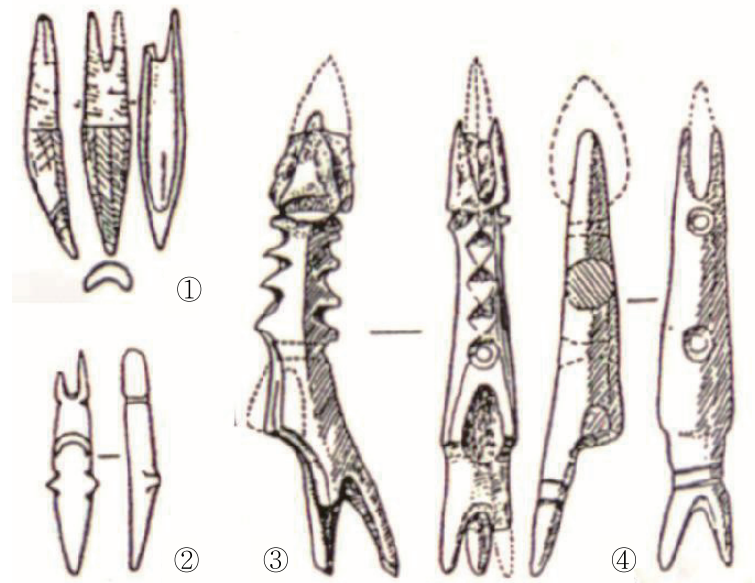


도 31. 북미인디언의 철갑상어잡이 작살을 참고한 석창형 작살 모식도

8. 타제 석창형은 돌을 서로 부딪쳐 깨는 방식으로 제작된 작살촉인 반면, 마제 석창형은 돌을 갈아서 만든 작살촉을 뜻한다. 서로 제작 방식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제 석창형은 남해안에서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확인되며, 해안지역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타제 석창형과 마제 석창형을 세분하지 않고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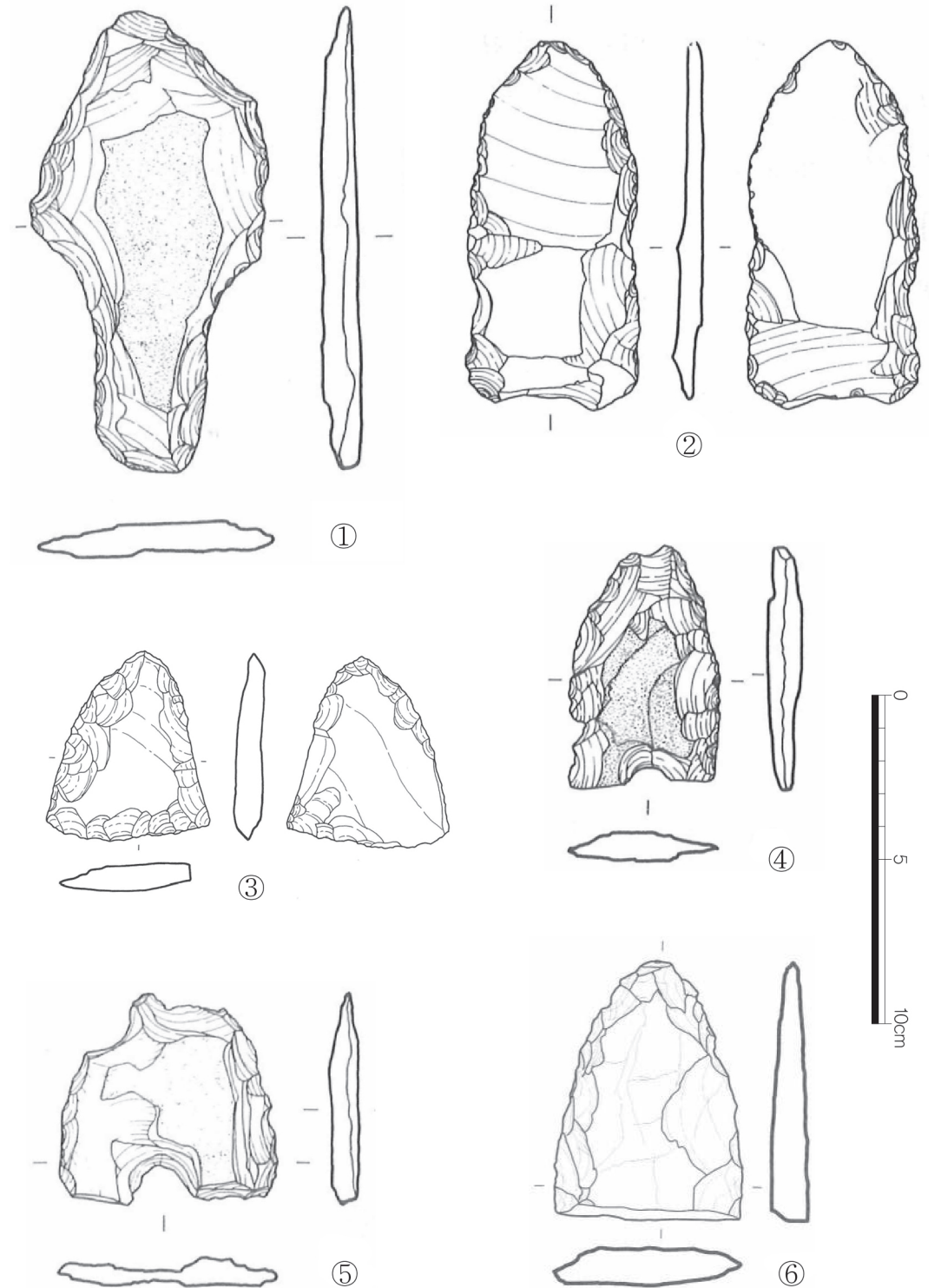
〈도 31·32〉와 같이 북미인디언이 철갑상어를 잡을 때 사용하였던 작살과 일본 동북지방에서 사용한 작살은 좋은 예시이다. 촉머리 부분은 돌로 제작하여 관통력을 높였고, 보조도구는 사슴뿔이나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보조도구는 작살촉을 단단히 고정하면서 동시에 줄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 동북지방에 해당하는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지역에서는 조몽시대<sup>9</sup>에 〈도 32〉와 같은 분리식 작살을 사용하였다. 북미인디언의 철갑상어잡이 작살과 마찬가지로 포획 대상물을 관통하는 역할은 석제의 작살촉이 담당하고, 보조도구는 포획물 내부에 촉을 고정하는 미늘의 역할을 담당한다. 보조도구의 상부<sup>上</sup>는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는데, 이는 작살촉을 끼워 넣기 위함이다. 〈도 32-4〉처럼 미야기현 누마즈沼津에서는 두 갈래로 갈라진 결합 부분에 석창형 작살촉 일부가 결합된 채 출토된 사례도 있다. 그 외 특징으로는 일본 동북지방 분리식 작살의 미늘부분이 한쪽으로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sup>10</sup>.



도 32. 일본 동북지방의 분리식 작살(촉척부동)  
①·② 北海道 北海道 東釧路(前期), ③·④ 宮城 沼津(後期) 金子浩昌·忍沢成視(1986)에서 수정계제(이상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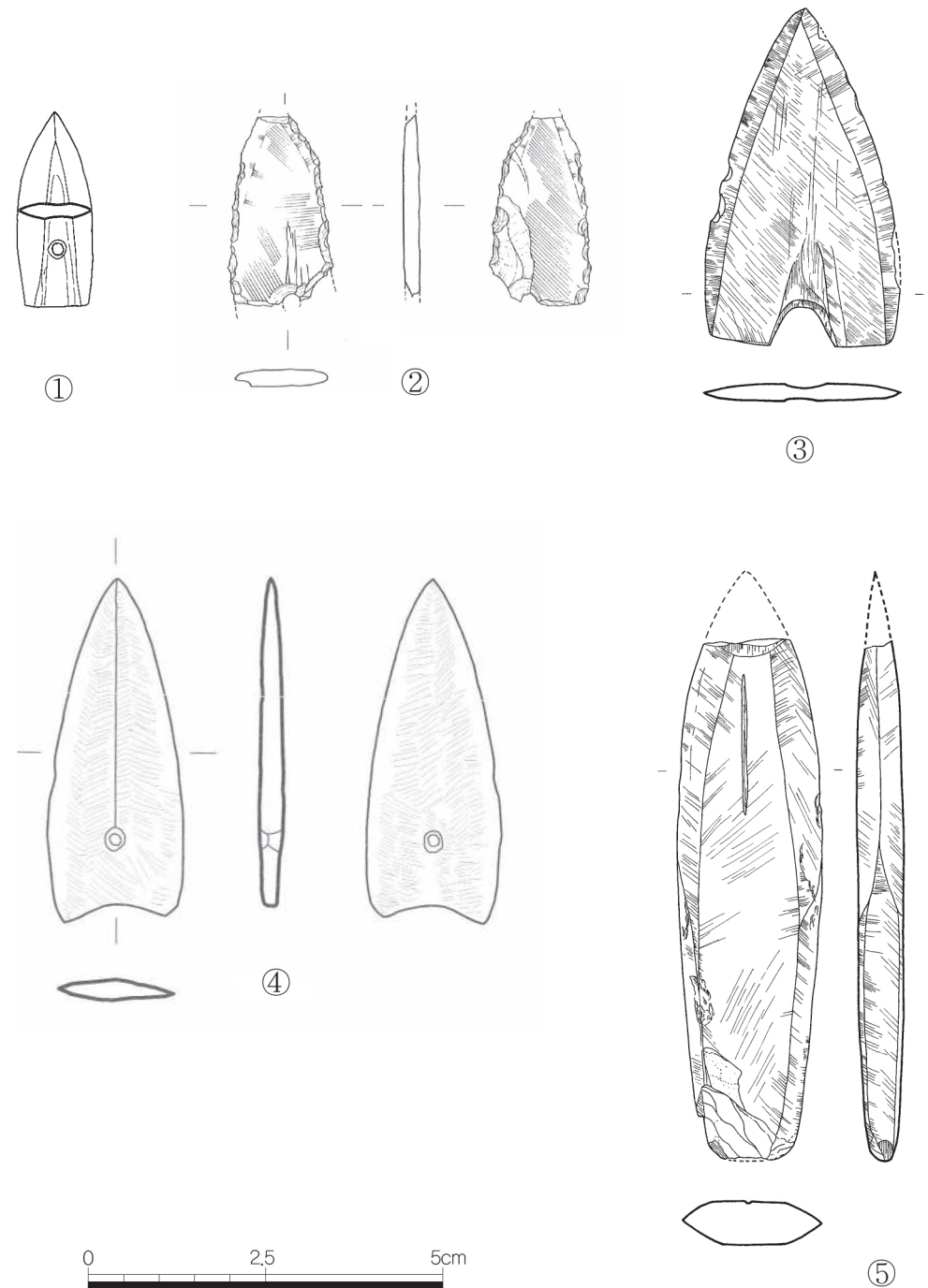
9. 일본의 신석기시대를 뜻한다.  
10. 이는 분리식 작살의 사용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작살을 목표물에 꽂았을 때, 자루가 쉽게 탈락되도록 의도하여 만든 형태로 추정된다. 또한 체내에 작살촉이 들어갔을 때, 후술할 회전식 작살처럼 기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 33. 분리식 타제 석창형 작살촉 도면(축척 1:2)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도 33-①	육지도 패총	석영반암	(17.8)	5.3	1.7	돌무지 I
슴베 부분이 따로 확인되는 평면 형태이며, 축머리 부분이 결실.						
도 33-②	육지도 패총	혼펠스	10.9	5.1	0.8	교란층
오각형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단면이 납작, 양측면에 줄을 묶기 위한 홈 흔적이 확인. 완형.						
도 33-③	동삼동 패총	안산암	5.2	4.9	0.8	1호 주거지
홈이 없는 정삼각형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잔손질하여 날을 형성. 완형.						
도 33-④	육지도 패총	혼펠스	7.3	4.4	1.0	C5피트
삼각만입형의 평면 형태이며, 잔손질하여 날을 형성. 완형.						
도 33-⑤	육지도 패총	혼펠스	(6.0)	6.7	0.8	D5피트
축머리 부분이 결실된 것으로 보이며, 평면 형태는 삼각만입형으로 추정.						
도 33-⑥	안도 패총	-	7.8	5.0	0.9	표토층
삼각평기형의 평면 형태로 제작. 완형, 무게 63g.						
도 34-①	범방패총	혼펠스	5.5	2.1	0.4	C피트
크기가 작은 마제 석창형 작살촉으로, 중앙에 구멍이 확인. 완형.						
도 34-②	연대도 패총	사암	(3.7)	(2.1)	0.3	J1IVd층 1호묘
축머리 부분과 아랫부분이 결실되었으나, 구멍 일부가 확인. 무게 10.6g.						
도 34-③	세죽 패총	이암혼펠스	9.6	5.5	0.5	A2-3피트
삼각만입형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전면을 마연. 완형, 무게 25.7g.						
도 34-④	안도 패총	-	9.8	3.3	0.6	p11
버들잎모양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중앙에 구멍이 확인. 완형, 무게 25.12g.						
도 34-⑤	세죽 패총	이암혼펠스	(14.7)	4.1	1.3	A7-8피트
버들잎모양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전면을 마연, 축머리 일부 결실, 무게 142.2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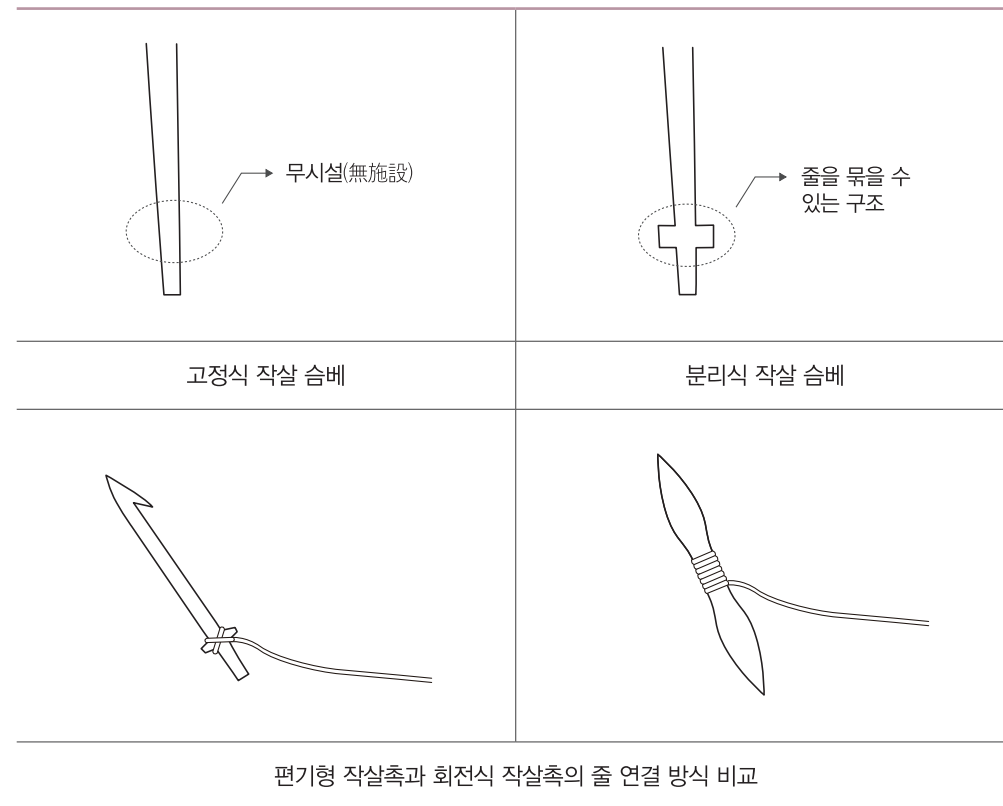
표 8. <도 33·34> 분리식 석창형 작살촉 제원 및 특징



도 34. 분리식 마제 석창형 작살 도면(축척 1:2)

## (2) 골제-회전식 작살

골제로 제작된 분리식 작살촉은 형태에 따라 편기형, 양기형, 회전식<sup>回轉式</sup>으로 구분된다. 다수의 분리식 골제 작살 중 남해안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것은 회전식 작살촉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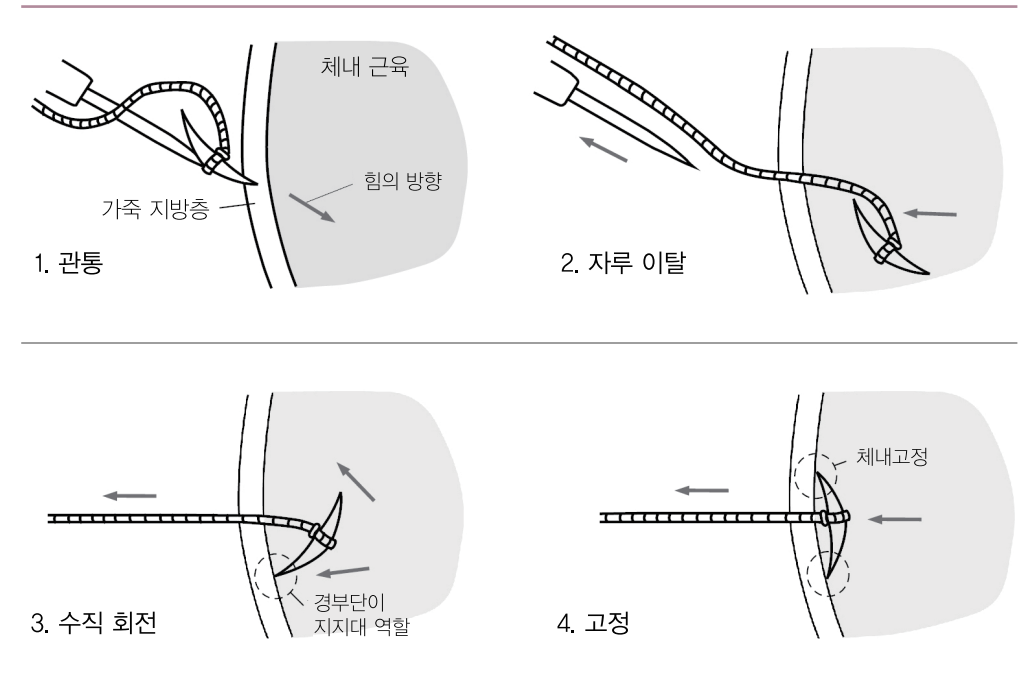


도면 35. 고정식 작살과 분리식 작살의 스페 형태 차이(上), 편기형 작살촉과 회전식 작살촉의 줄 연결 방식 비교(下)

분리식 골제 작살촉의 스페 부분에는 별도의 줄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sup>11</sup>. 앞에서 설명한 석제 분리식 작살촉은 작살촉과 결합되는 보조도구에 별도의 줄이 연결되는 반면, 골제 분리식 작살촉은 스페 부위에 줄이 직접 묶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11. 작살촉의 스페나 몸통부분에 연결된 줄은 작살촉이 꽂혀있는 목표물을 쫓을 때 사용된다.

회전식 작살은 고정식 작살인 여서도형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스페 부분이 한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sup>12</sup>. 이러한 형태는 작살촉이 체내에서 직각으로 회전하여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작살촉의 양끝은 체내에서 고정되기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촉의 중앙부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줄을 직접 연결하기 용이하다.



도 36. 회전식 작살의 작용방식(이상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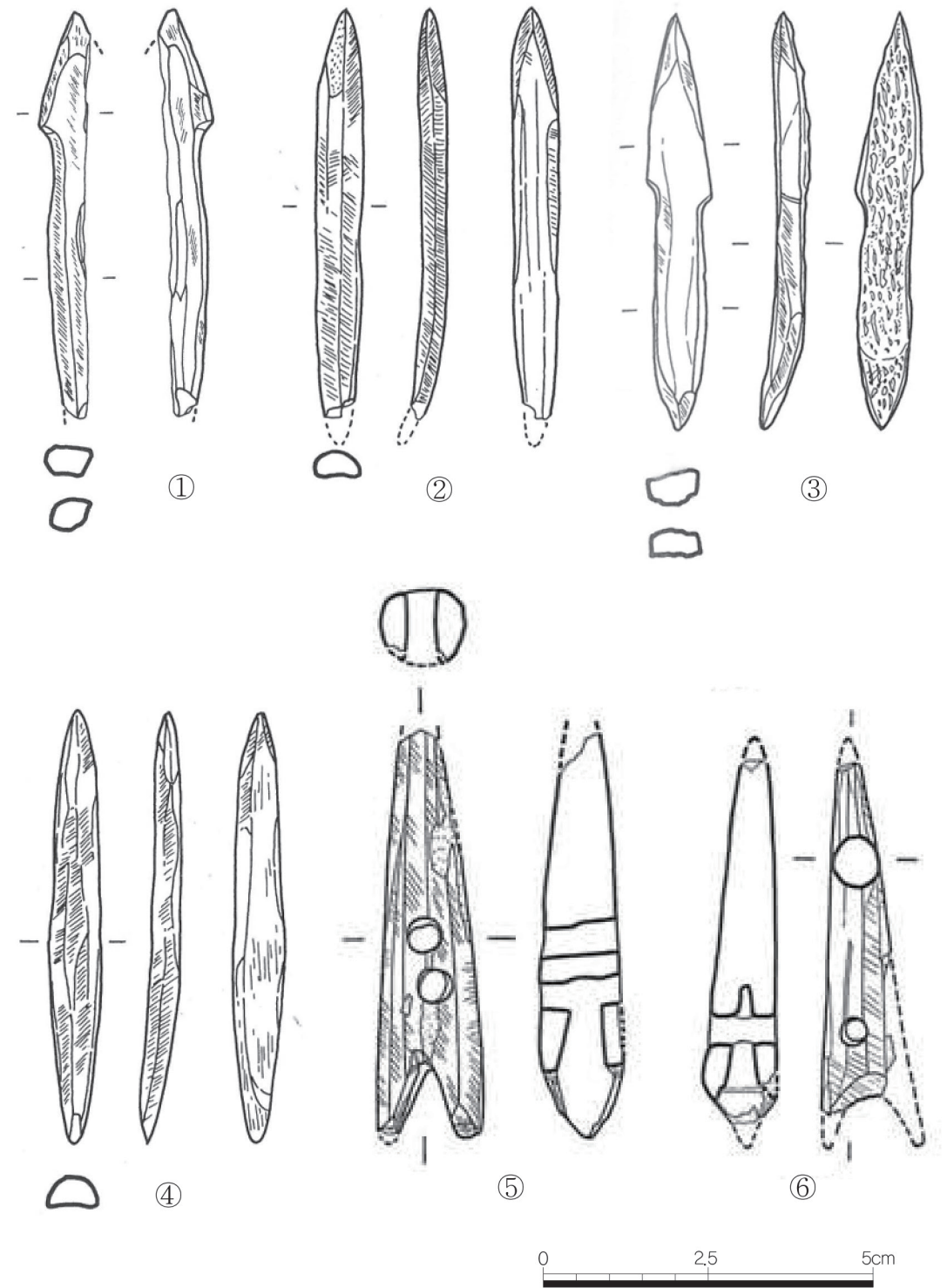
회전식 작살은 <도 36>처럼 작동하여 목표물을 포획한다. 작살촉에 줄이 연결된 채로 목표물을 관통하고 그 과정에서 자루는 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된다. 그리고 작살촉에 연결된 줄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면서 촉은 수직으로 회전하게 된다. 회전한 작살촉은 포획물의 두꺼운 피부<sup>13</sup>에 의해 빠지지 않고 체내에 고정된다. 이후 촉과 연결된 줄을 이용하여 포획물을 잡을 수 있게 된다.

12. 회전식 작살은 넓은 면이 위쪽으로 휘어져 있으며, 종방향의 단면은 ']' 형태를 띤다.

13. 회전식 작살촉을 이용하여 잡는 포획물인 고래, 강치, 바다표범 등은 두꺼운 피부를 가진다.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동삼동 패총	시슴뼈	(6.1)	(0.7)	0.4	5-2층
	촉머리 부분이 사두형이며, 1/2가량 결실, 촉머리 단면은 타원형이며, 목 부분 단면은 원형에 가까움.					
2	동삼동 패총	시슴뼈	(6.2)	0.7	0.4	2층
	작살의 양끝을 뾰족하게 가공, 한쪽 끝이 약간 휘어진 형태, 한쪽 끝부분이 결실, 전면에 마연 흔적 잔존, 단면은 반원형.					
3	동삼동 패총	시슴뼈	6.4	1.0	0.5	5-2층
	촉머리 부분이 사두형이며, 스페 부분이 위로 휘어진 형태, 완형, 단면은 반원형에 가까움.					
4	동삼동 패총	시슴뼈	6.5	0.8	0.5	2층
	작살의 양끝을 뾰족하게 가공, 한쪽 끝이 약간 휘어진 형태, 전면에 마연 흔적 잔존, 완형, 단면은 반원형.					
5	늑도 패총	시슴뼈	(6.2)	1.5	1.2	N2E2 Grid
	촉머리 끝부분이 일부 결실, 몸체 중앙에 2개의 구멍이 확인, 아랫부분은 제비꼬리와 같은 형태, 단면은 원형.					
6	늑도 패총	시슴뼈	(5.2)	1.1	1.0	'가'층
	촉머리 끝부분이 일부 결실, 몸체 중앙에 1개의 구멍이 확인, 아랫부분은 결실되었지만 제비꼬리와 같은 형태로 추정, 단면은 원형.					

표 9. <도 37> 회전식 작살촉 제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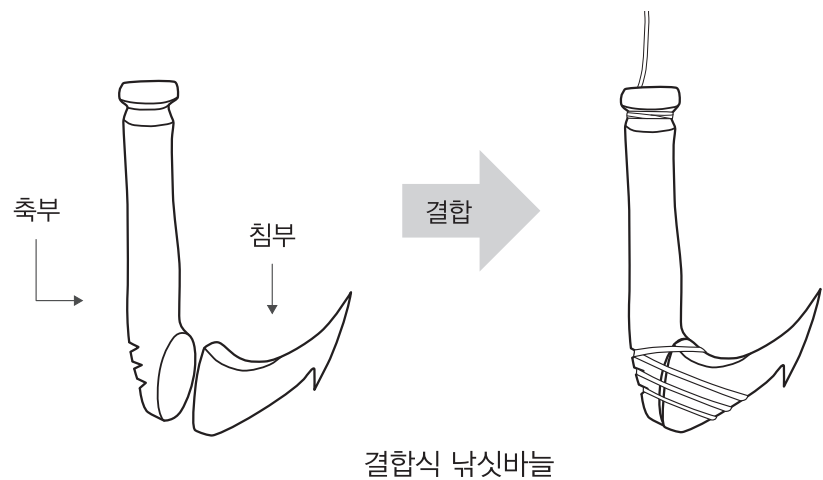
도 37. 회전식 작살 도면(축척 1:1)



## 2. 낚싯바늘

낚싯바늘은 작살과 함께 남해안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된 어구 중 하나이다. 현대에도 낚싯바늘은 물고기를 낚기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를 한자로 조어법釣漁法이라고 하는데, 조어법에 필요한 낚시어구는 낚싯바늘, 낚싯줄, 낚싯대, 찌 등으로 구성된다. 초기의 낚시어구 역시 이와 같은 구성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낚싯바늘을 제외한 다른 구성품들은 현재 형태가 명확히 남아있지 않다. 낚시어구 구성품 중 유일하게 확인되는 낚싯바늘을 통해 다른 낚시어구 전체적인 형태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초기어구 낚싯바늘은 형태와 구성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축부軸部和 침부針部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결합식結合式 낚싯바늘’과 축부·침부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는 ‘단식單式 낚싯바늘’이 있다.



도 40. 결합식 낚싯바늘과 단식 낚싯바늘 모식도

### 1) 결합식 낚싯바늘

결합식 낚싯바늘은 축부軸部和 침부針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끈으로 결합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낚싯바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축부는 줄과 연결되는 부분이며, 침부는 미끼를 끼워 물고기를 직접적으로 낚는 부분이다. 결합식 낚싯바늘을 구성하는 축부와 침부는 각각 여러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어떤 유형의 축부와 침부가 서로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축부와 침부의 결합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축부의 결합면과 침부의 결합 면이 정면으로 만나는 정면결합식正面結合式, 결합면을 옆으로 비틀어서 결합시키는 측면결합식側面結合式 그리고 결합면이 위아래로 되어 있는 상하결합식上下結合式이 그것이다.



도 41. 결합식 낚싯바늘의 결합방식

남해안에서 출토되는 대부분의 결합식 낚싯바늘은 정면결합식이다. 측면결합식과 상하결합식은 소수이기에 여기서 다루지 않고자 한다.

정면결합식의 축부는 연구자에 따라 형태별로 총 6개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해안에서 주로 3가지의 형태만 출토되고 있어서 이 책에서는 3가지 형식(남해안 I, II, III형)만 다루고자 한다. 침부 역시 연구자에 따라 형태별로 3가지 형식으로 구분되지만, 축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남해안에서 확인되는 2가지 형식(1형, 2형)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결합식 낚싯바늘은 축부와 침부가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출토된다. 하지만 울산 세죽 패총에서는 유일하게 결합식 낚싯바늘이 함께 붙어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sup>42</sup>.

(1) 축부軸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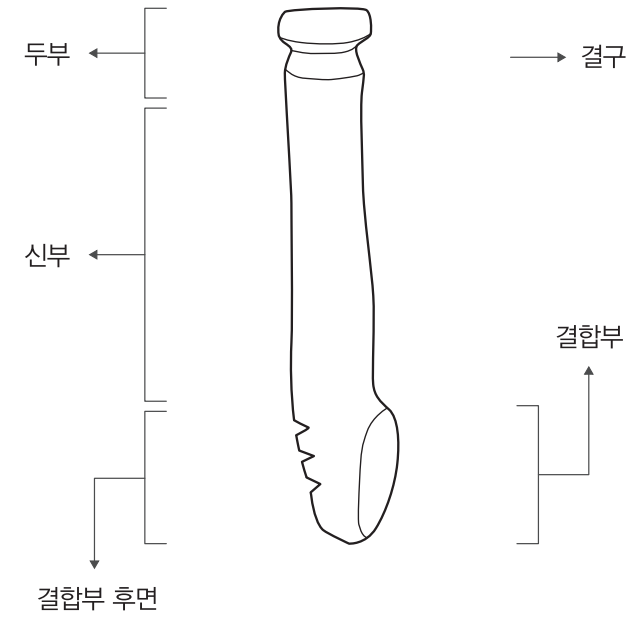
축부는 결합식 낚싯바늘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며, 낚싯줄과 침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기다란 원통형圓筒形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단면은 원형圓形 혹은 말각末角14의 방형方形을 띤다. 낚싯줄과 직접 연결되는 두부頭部, 몸통에 해당하는 신부身部 그리고 침부와 연결되는 결합부結合部로 구성된다. 두부는 양 측면에 홈이 있거나 홈이 한 바퀴 돌아감으로써 낚싯줄을 연결하기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유형명	남해안 1형	남해안 2형	남해안 3형
모식도			
평면 형태	I자	J자	J자
결합부 후면 형태	홈	홈	단

도 42. 축부 유형별 모식도

축부는 재질에 따라 석제와 골제로 구분된다. 석제는 다시 평면 형태에 따라 3가지(C자, J자, I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합부 후면後面의 형태에 따라 총 3가지(무시설無施設, 단段, 홈溝)로 나뉜다. 평면 형태와 결합부 후면의 형태는 축부와 침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런 시설 없이 후면이 매끈한 경우가 있으며, 축부의 아래 끝을 일부 돌출시켜 단을 지게하거나 여러 개의 홈을 내어 끈을 고정시키는 방식도 있다. 남해안에서 출토되는 축부에서는 홈이 새겨진 것이 가장 많으며, 단이 돌출된 것이 그 다음으로 많이 확인된다.

14. 각이 둥근 네모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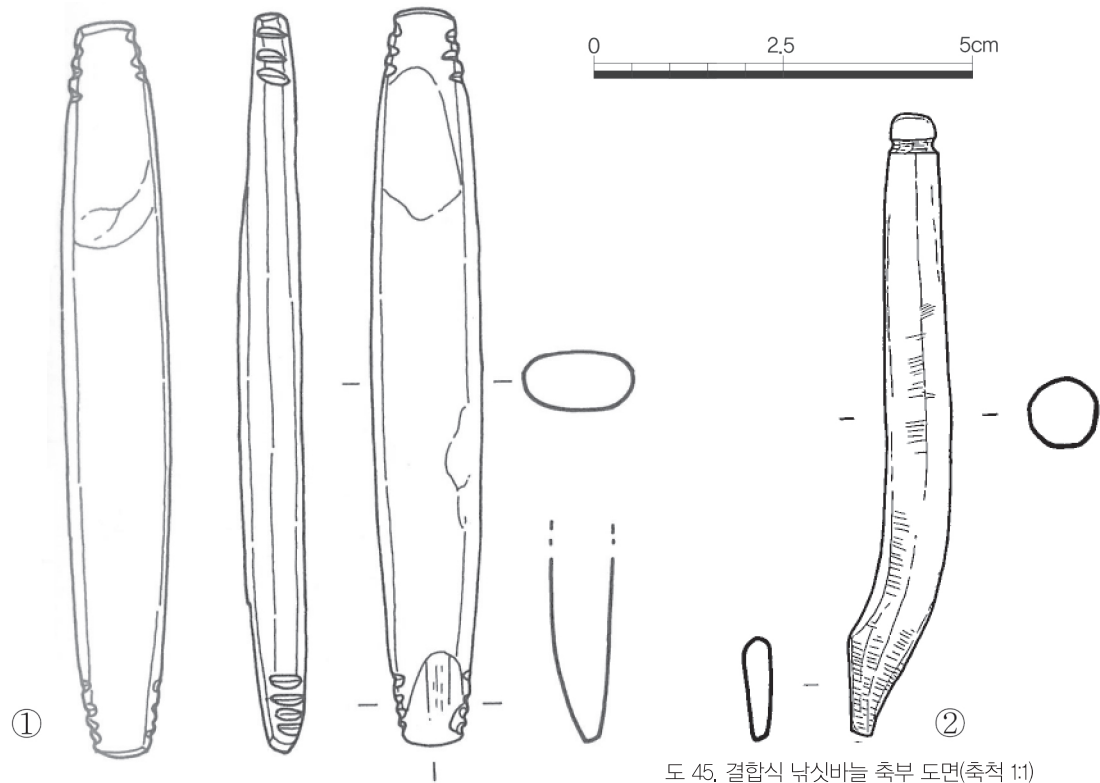
도 43. 결합식 낚싯바늘 축부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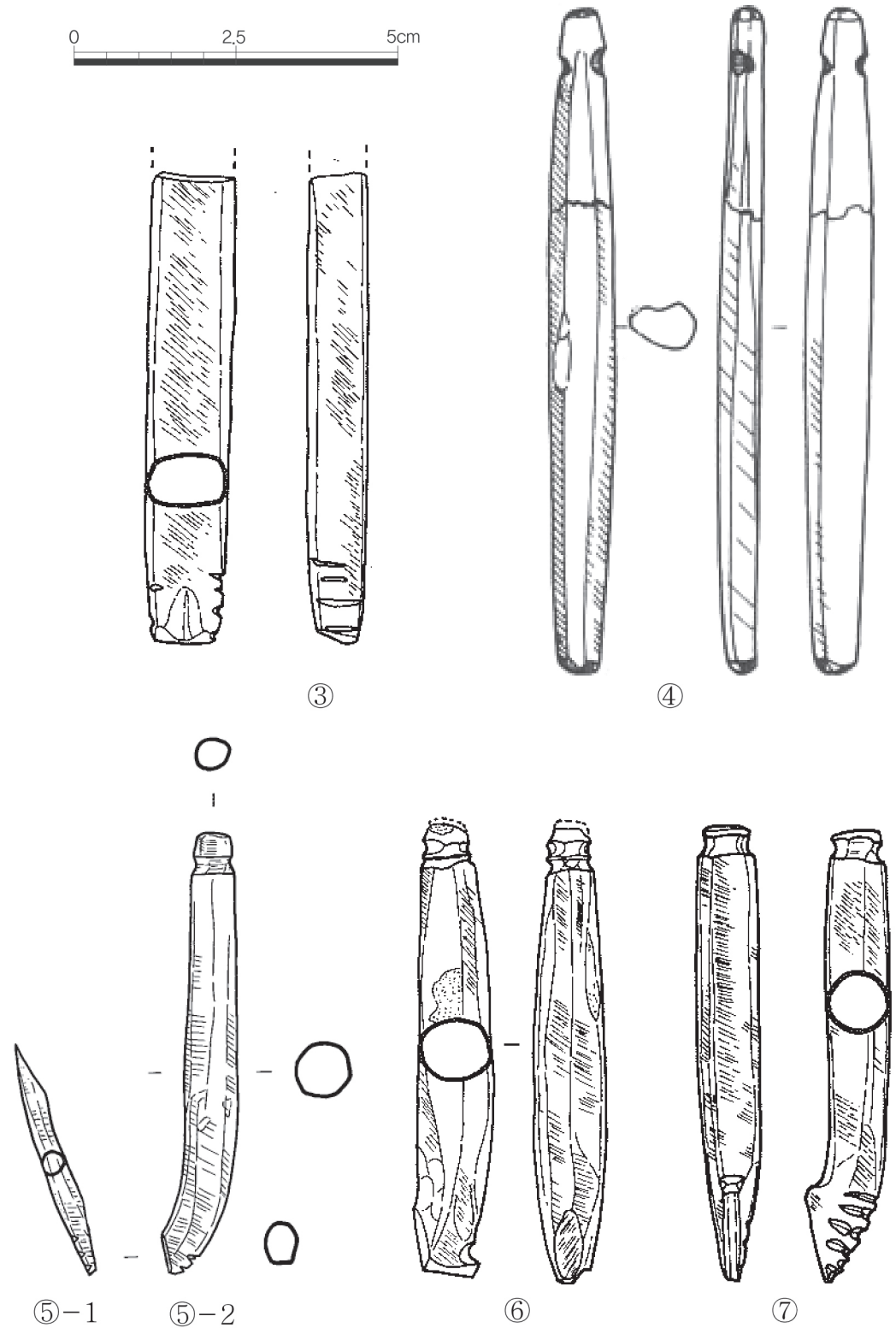
도 44. 울산 세죽패총 결합식 낚싯바늘 출토 모습(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제공)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동삼동 패총	혈암	9.8	1.5	0.8	5-1층
	남해안 1형에 해당, 단면은 타원형, 결합부 후면에 4개의 홈 확인, 완형					
2	세죽 패총	돌	8.2	0.9	0.8	A4피트
	평면이 J자형이면서, 결합부 후면에 아무런 시설이 없음. 완형.					
3	범방 패총	돌	(7.3)	1.3	0.8	G피트
	남해안 1형에 해당, 단면은 타원형에 가까운 장방형, 머리부분이 결실.					
4	여서도 패총	뼈	10.4	0.7	1.0	IV층
	남해안 1형에 해당, 머리부분 양측에 결구 확인, 완형.					
5-1	세죽 패총	뼈	3.7	0.3	0.4	A4피트
	내기식에 가까운 무기식이며, 단면은 원형, 결합면은 세장방형, 완형.					
5-2	세죽 패총	돌	6.8	0.8	0.8	A4피트
	남해안 2형에 해당, 단면은 원형, 결합부 후면에 2개의 홈 확인, 완형.					
6	범방 패총	혼펠스	(7.0)	1.1	1.0	13층
	남해안 3형에 해당, 결합부 후면에 단이 확인, 머리부분 끝이 일부 결실.					
7	범방 패총	혼펠스	7.1	1.0	0.9	7층
	남해안 2형에 해당, 결합부 후면에 5~6개의 홈 확인, 단면은 원형, 완형.					

표 10. <도 45·46> 결합식 낚싯바늘 축부의 제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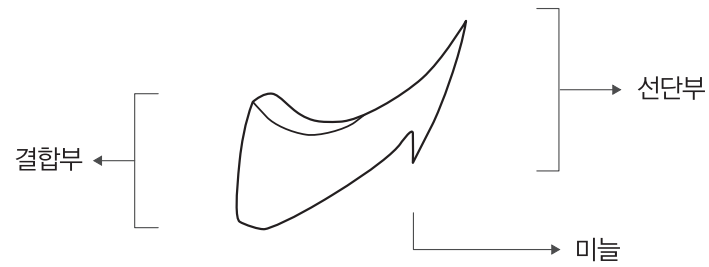


도 45. 결합식 낚싯바늘 축부 도면(축척 1:1)



도 46. 결합식 낚싯바늘 축부 도면(축척 1:1)

(2) 침부(針部)



도 47. 결합식 낚시바늘 침부 모식도

물고기가 실제로 무는 부위이며, 걸린 물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선단부(先端部) 내외에 미늘이 설치되어 있다. 측부와 맞닿는 부위에서 끈으로 연결하기 위한 단이나 홈 등의 장치가 확인된다.

침부는 미늘의 위치에 따라 안쪽에 붙어있는 내기식, 밖에 붙어있는 외기식 그리고 미늘이 없는 무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측부와 연결되는 결합부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개의 홈이 있는 형태, 한쪽만 단이 있는 형태, 양쪽 모두 단이 있는 형태 그리고 아무런 시설이 없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남해안에서 확인되는 침부는 크게 2가지 형식이 있다. 1형은 결합부의 아무런 시설이 없는 형태, 홈이 있는 형태, 한쪽 단만 돌출된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내기식·외기식·무기식<sup>15</sup>을 모두 포함한다.

2형은 미늘이 바깥 부분에 위치하는 외기식으로, 결합부는 단이 양쪽으로 돌출된 T자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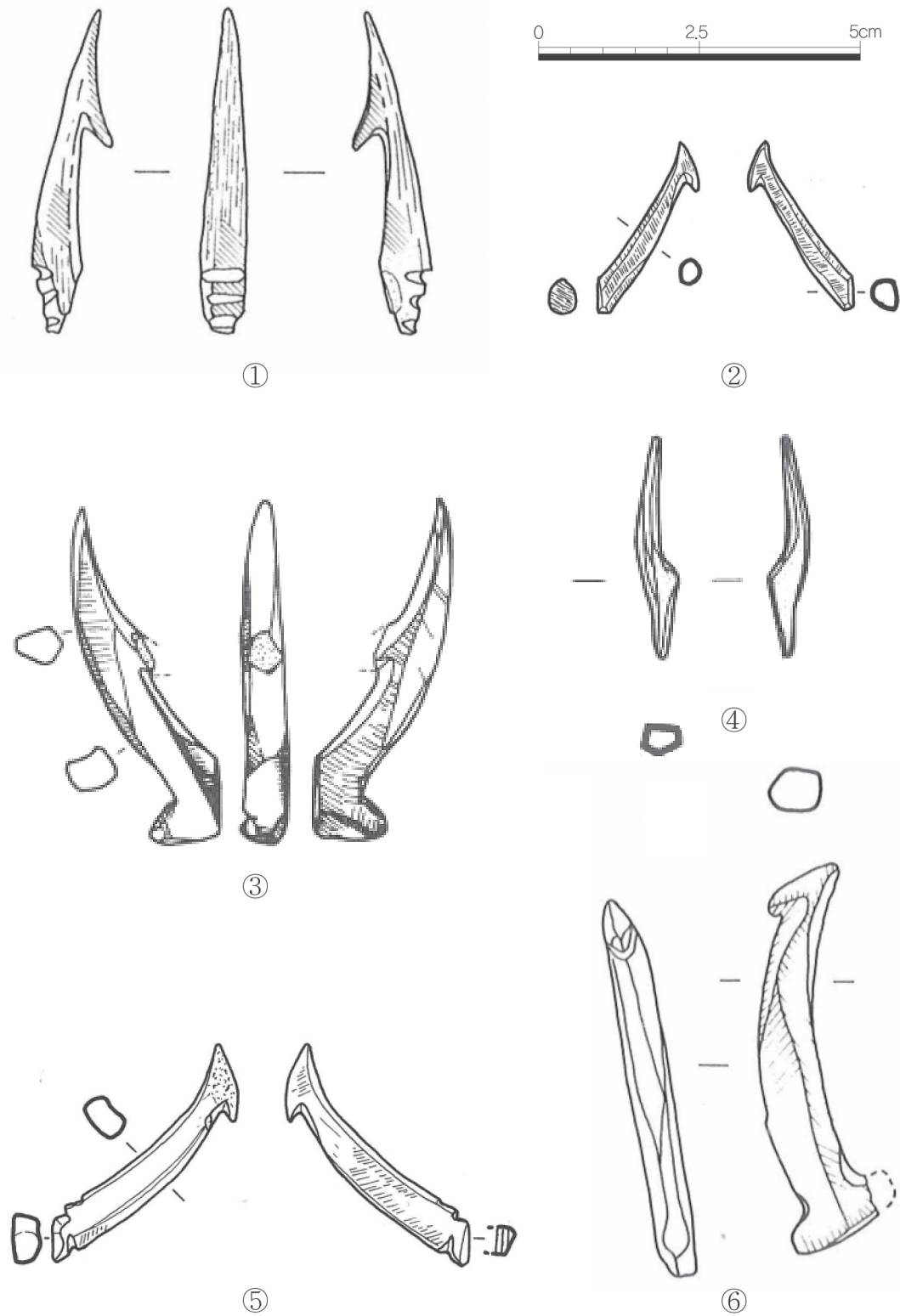
유형	1형			2형
	내기식	외기식	무기식	외기식
선단부 형태				
결합부 형태	무시설	홈	단	단(양쪽)

도 48. 침부 유형별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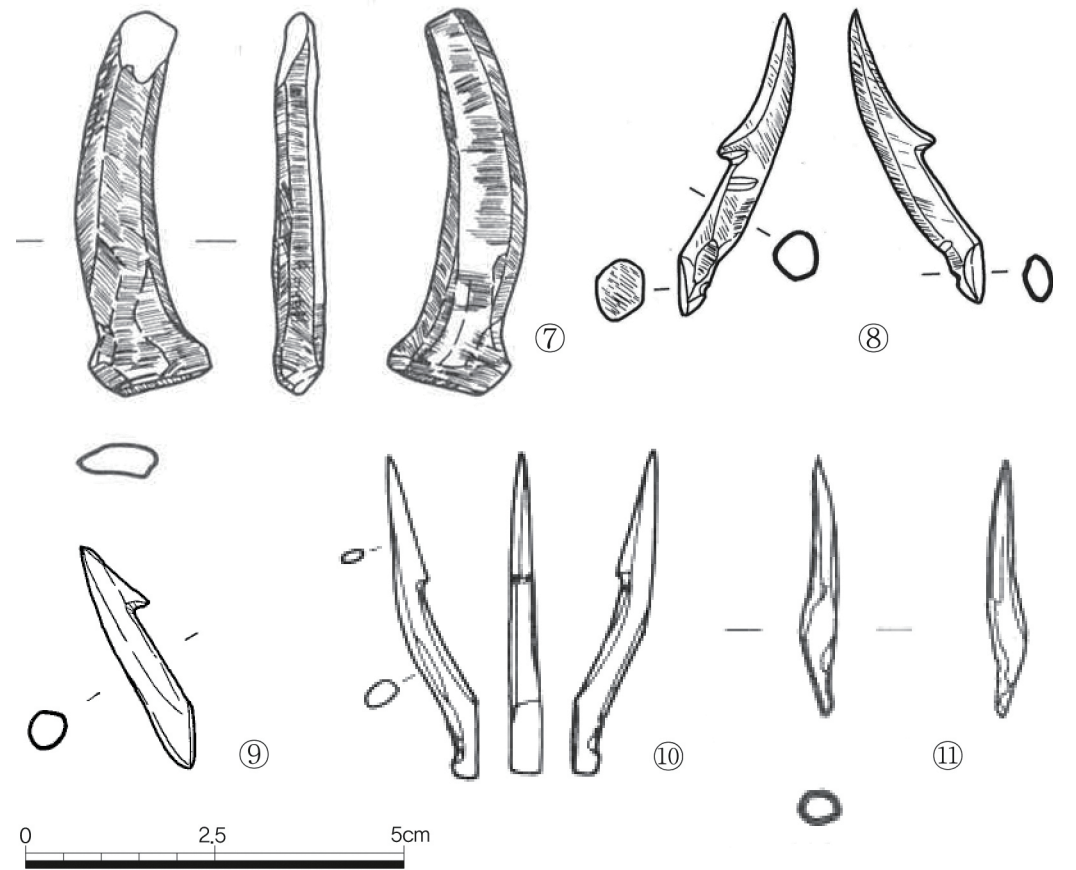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연대도 패총	사슴뼈	5.0	1.0	0.6	SⅢ층
	미늘이 안쪽에 있는 내기식, 결합부에 3개의 홈이 확인, 완형.					
2	동삼동 패총	사슴뼈	2.7	0.5	0.5	교란층
	미늘이 바깥쪽에 있는 외기식, 결합부의 형태는 무시설, 완형.					
3	여서도 패총	뼈	5.5	0.7	0.7	Ⅲ층
	미늘이 안쪽에 있는 내기식이며, 미늘 부분이 일부 결실, 결합부에 단이 확인, 단면은 방형.					
4	안도 패총	뼈	3.4	0.3	0.4	p12
	미늘이 없는 무기식, 결합부의 형태는 무시설, 단면은 타원형, 완형.					
5	동삼동 패총	사슴뼈	3.4	0.6	0.4	7층
	미늘이 바깥쪽에 있는 외기식, 결합부에 홈이 확인, 단면은 장방형, 완형.					
6	욕지도 패총	사슴뼈	5.4	1.0	0.5	돌무지 아랫층
	미늘이 바깥에 있는 외기식, 결합부의 양쪽 단 중 한쪽이 결실.					

표 11. (도 49) 결합식 낚시바늘 침부 재원 및 특징

15. 침부의 미늘위치가 안쪽(내기식)에 있는지 바깥쪽(외기식)에 있는지에 따라 어떠한 기능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은 없다. 다만, 침부가 포획물을 잡는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포획 대상 어종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 49. 결합식 낚싯바늘 침부 도면(축척 1:1)



도 50. 결합식 낚싯바늘 침부 도면(축척 1:1)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7	동삼동 패총	멧돼지 이빨	(5.1)	1.5	0.4	5층
						침부의 끝인 선단부는 결실, 결합부에 단이 양쪽으로 확인, 단면은 반타원형.
8	동삼동 패총	사슴뼈	4.0	0.8	0.6	교란층
						미늘이 안쪽에 있는 내기식, 결합부에 홈이 확인, 단면 원형, 완형.
9	세죽 패총	뼈	3.2	0.5	0.4	A3피트
						미늘이 안에 있는 내기식, 결합부 형태는 무시설, 단면은 원형, 무게 0.6g.
10	여서도 패총	뼈	4.2	0.4	0.4	IV층
						미늘이 안쪽에 있는 내기식, 결합부에 홈과 단이 모두 확인, 완형.
11	안도 패총	뼈	3.4	0.5	0.4	p5
						미늘이 없는 무기식, 결합부 형태는 무시설, 단면은 타원형, 완형.

표 12. (도 50) 결합식 낚싯바늘 침부 제원 및 특징

## 2) 단식 낚시바늘

### (1) J자형 낚시바늘

평면형태가 알파벳 'J'자처럼 생겼기에 J자형 낚시바늘이라고 불린다. 전남 영암군에서 청동기시대의 J자형 낚시바늘 돌거푸집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부터 J자형 낚시바늘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쇠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철기시대(鐵器時代)부터 완전하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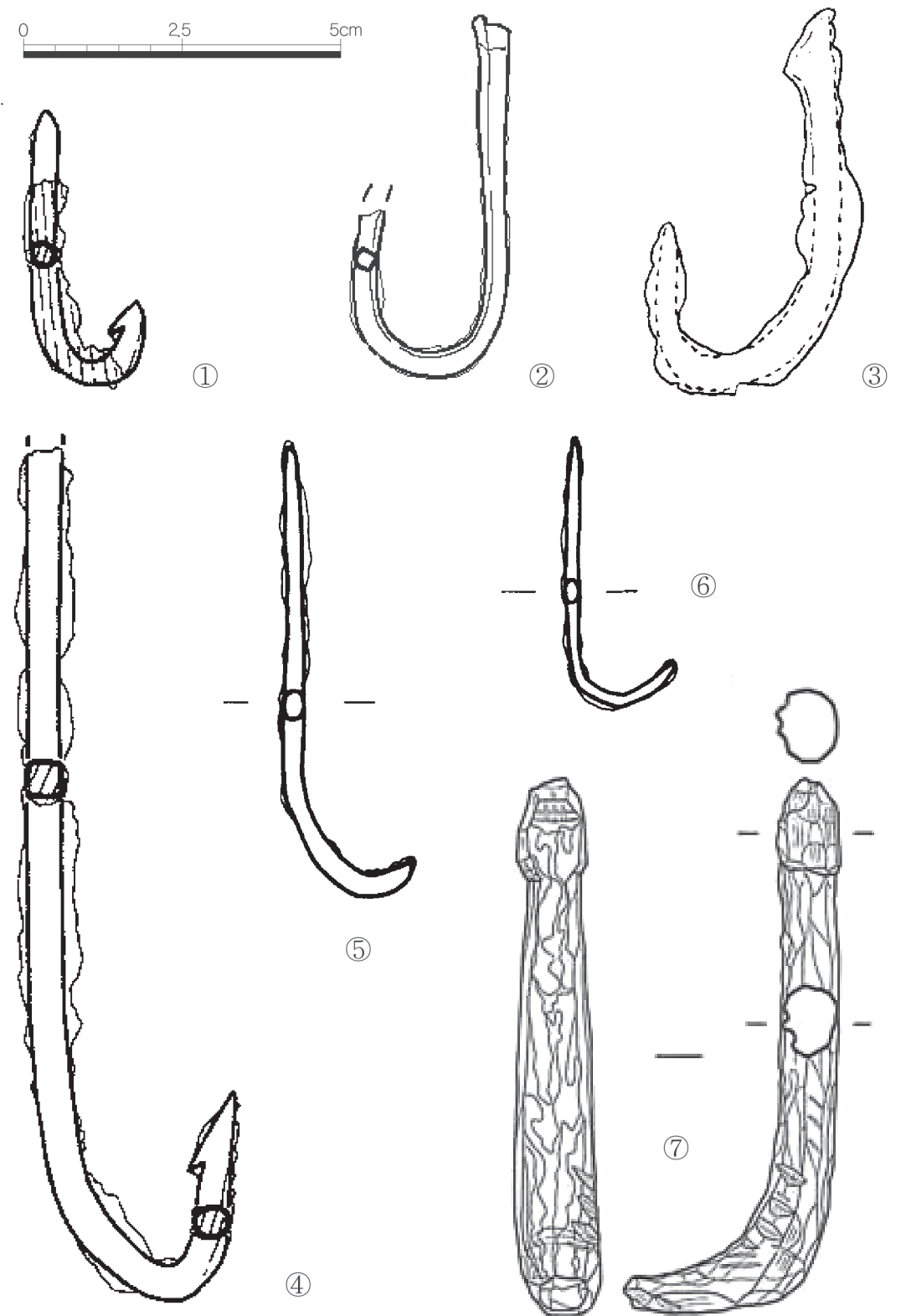
결합식 낚시바늘처럼 각각 나뉘어져 있는 축부와 침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현대의 낚시바늘처럼 하나의 형태를 하고 있다. 미늘은 모두 내기식만 확인된다.



도 51. 삼한~삼국시대에 제작된 J자형 낚시바늘(국립김해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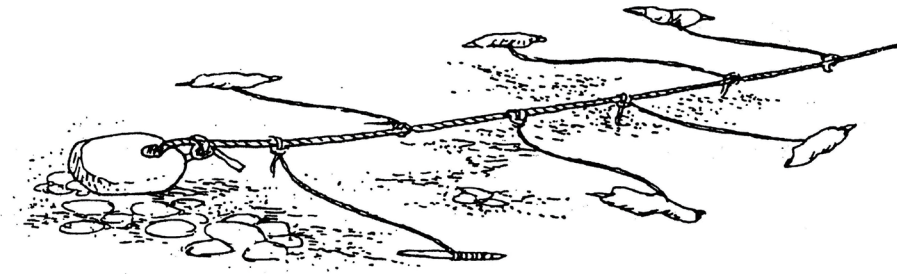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대성동 고분군	철	(13.5)	3.1	0.5	29호
	미늘이 안쪽에 있는 내기식, 축부의 머리부분은 결실, 단면 방형, 무게 19.5g.					
2	대성동 고분군	철	4.5	1.8	0.5	29호
	미늘이 안쪽에 있는 내기식, 단면은 원형, 완형, 무게 3.2g.					
3	조도 패총	철	6.0	3.0	0.25	I 층
	미늘이 없는 무기식, 완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					
4	현동 유적	철	(6.4)	0.6	0.3	335호 목곽묘
	축부의 머리 부분 일부와 미늘이 있는 침부가 결실, 단면은 방형.					
5	군곡리 패총	철	7.2	2.0	0.3	D피트
	미늘이 없는 무기식, 철침을 구부려 제작, 단면 원형, 완형.					
6	군곡리 패총	철	4.3	1.6	0.3	A2피트
	미늘이 없는 무기식, 철침을 구부려 제작, 단면 원형, 완형.					
7	늑도 패총	사슴뿔	8.4	1.5	3.4	N3E2
	침부 부분은 결실, 단면은 원형에 가까움, 무게 10g.					

표 13. <도 52> J자형 낚시바늘 제원 및 특징



도 52. J자형 낚시바늘(축척 1:1)

(2) 역T자형 낚시바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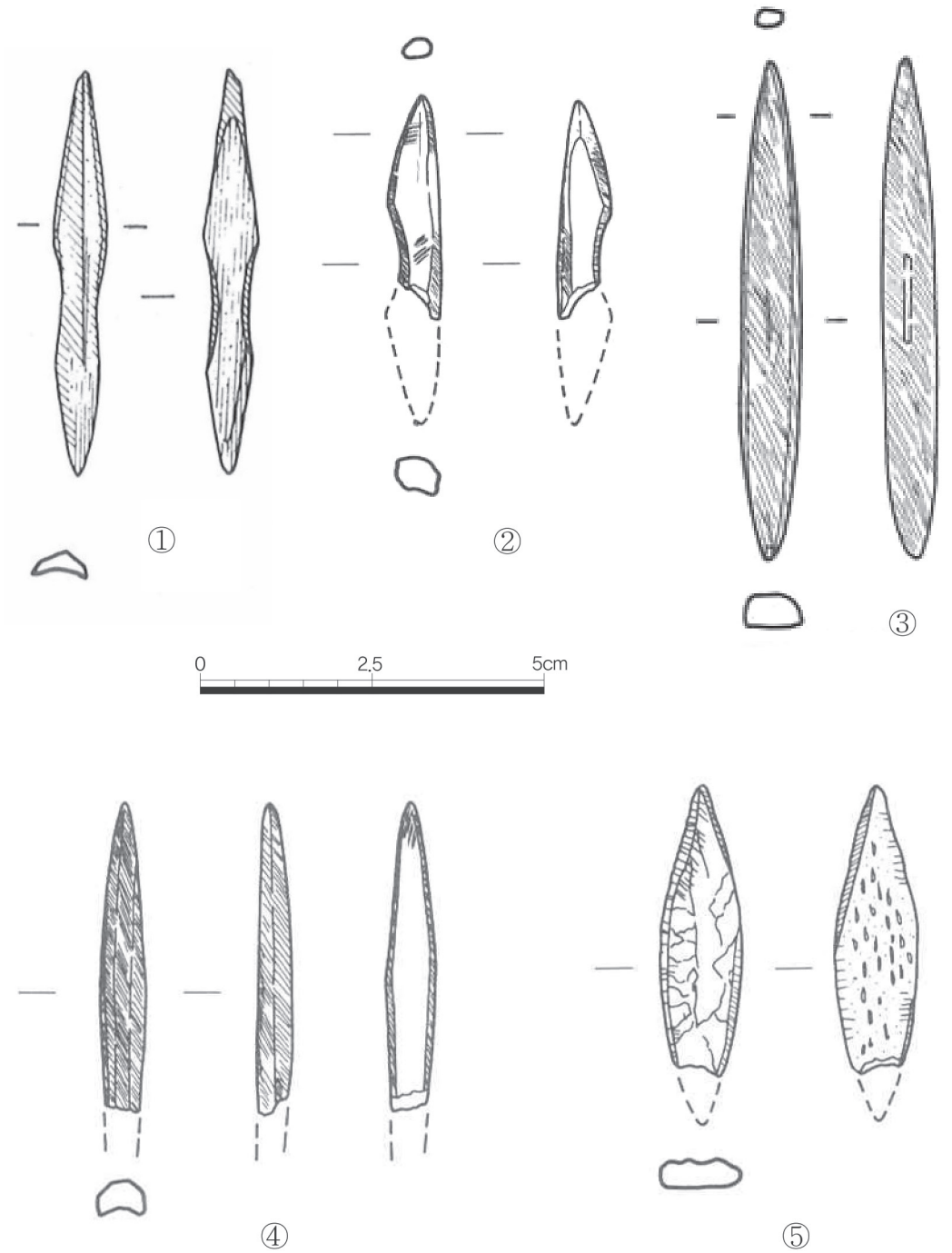
도 53. 역T자형 낚시바늘 사용방법 추정도(북천박물관 제공)

‘—’자형으로 뺀 작살촉 중앙에 끈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습이 ‘T’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역T자형 낚시바늘이라고 불린다. 연승어업(延繩漁業)에 사용된 낚시바늘로 주로 서해(西海)와 발해(渤海)에서 사용하였다. 동삼동 패총과 옥지도 패총에서도 출토되었으나 수량은 적다. 일반적으로 8cm를 넘지 않으며, ‘—’자형으로 곱게 뺀 형태와 허리가 잘록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허리가 잘록한 낚시바늘이 남해안에서 확인된다.

역T자형 낚시바늘의 사용방식은 분리식 작살인 회전식 작살과 유사하다. 목표대상물의 체내에 낚시바늘이 입을 통해 들어간 뒤, 회전하여 낚시바늘의 양끝이 체내에 고정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옥지도 패총	사슴뼈	5.8	0.8	0.3	돌무지 아랫층
	허리가 잘록한 형태의 역T자형 낚시바늘, 단면은 오목한 반원형, 완형, 무게 1.2g.					
2	동삼동 패총	사슴뼈	(3.2)	0.7	0.4	4층 GV
	허리가 잘록한 형태의 역T자형 낚시바늘, 한쪽 바늘 끝이 결실, 모든 면을 마연.					
3	동삼동 패총	뼈	7.3	0.6	0.5	HXVIII
	일자형으로 곱게 뺀 역T자형 낚시바늘, 모든 면을 마연, 단면 방형, 완형.					
4	동삼동 패총	사슴뼈	(4.6)	0.7	0.5	4층 KV
	허리가 볼록한 형태의 역T자형 낚시바늘, 한쪽 바늘 끝이 결실, 모든 면을 마연.					
5	동삼동 패총	사슴뼈	(4.3)	1.2	0.4	4층 HV
	허리가 볼록한 형태의 역T자형 낚시바늘, 한쪽 바늘 끝이 결실, 모든 면을 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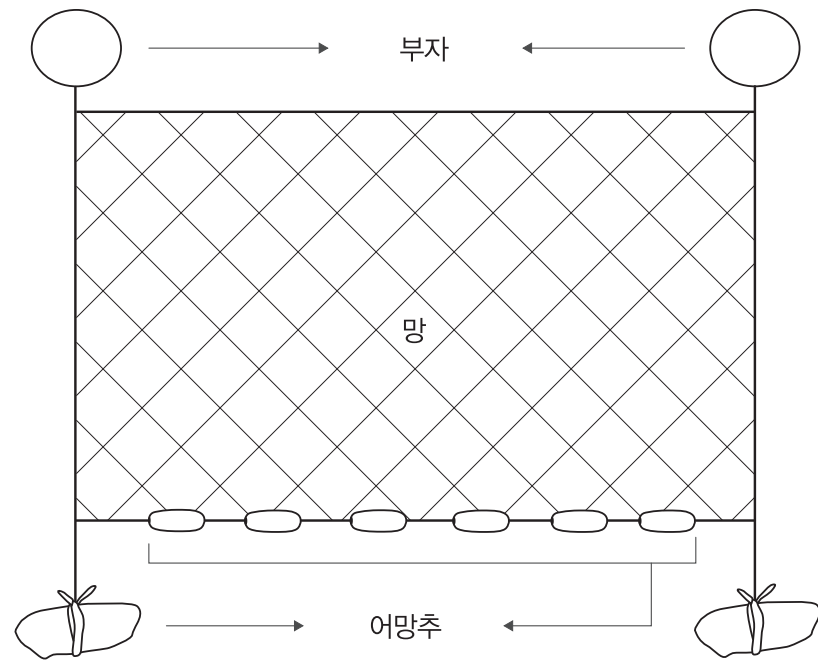
표 14. (도 54) 역T자형 낚시바늘 제원 및 특징



도 54. 역T자형 낚시바늘 도면(축척 1:1)

### 3. 그물

그물은 기본적으로 부자<sup>浮子</sup>·망<sup>網</sup>·침자<sup>沈子</sup>로 구성된다. 부자는 그물의 위치를 바다 위에 띄워 표지하기 위한 물건으로 부표와 비슷하다. 망은 대상을 포획하기 위해 끈으로 엮은 그물을 뜻한다. 침자는 그물이 물속에서 펼쳐진 채 고정되도록 하는 역할이며, 어망추가 이에 해당한다. 부자나 망은 유기질로 제작했을 것이기에 현재까지 출토된 사례는 없다<sup>16</sup>. 다만 어망추는 남해안 일대의 패총에서 출토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그물을 사용해 어로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그물 문양이 찍힌 토기가 일부 확인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망과 어망추를 중심으로 그물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 55. 그물 모식도

16. 현대의 어망 그물은 나일론으로 제작되며 이는 1960년대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다.

### 1) 그물의 구성

#### (1)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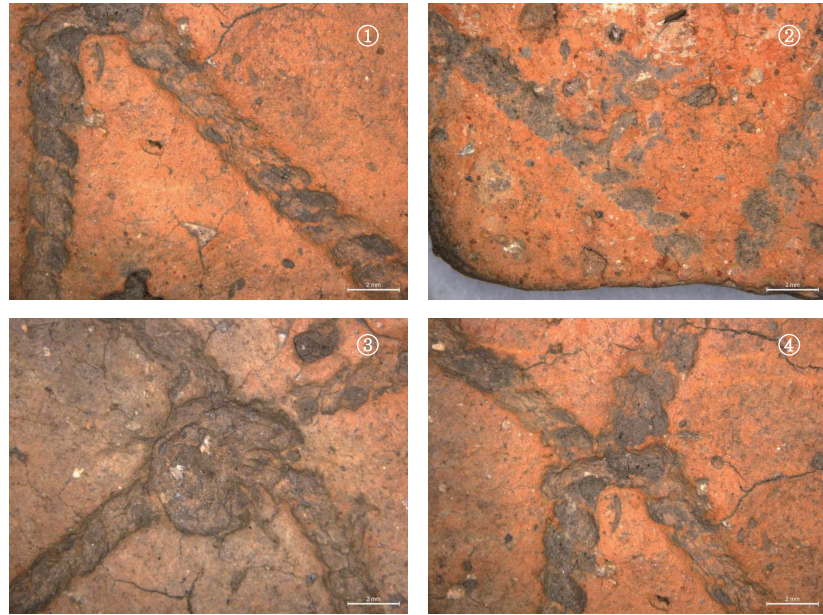
현재 한반도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유물 중 그물의 망이 온전히 잔존한 경우는 없다. 때문에 그 형태와 모습은 다른 유물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동삼동 패총에서 망을 무늬로 압인<sup>壓印</sup>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sup>17</sup>. 토기를 성형하고 소성<sup>燒成</sup>하기 전, 토기표면에 망을 찍어 문양을 새겼다. 이를 통해서 당시 그물의 형태와 크기를 일부 짐작할 수 있다. 그물코의 크기는 1.8~2.7cm로 추정된다. 망을 찍은 토기의 흙은 점토질에 장식이 소량 혼입된 것이며, 붉은색 안료를 칠한 흔적이 약하게 확인된다.



도 56. 동삼동 패총 출토 그물무늬토기편(축척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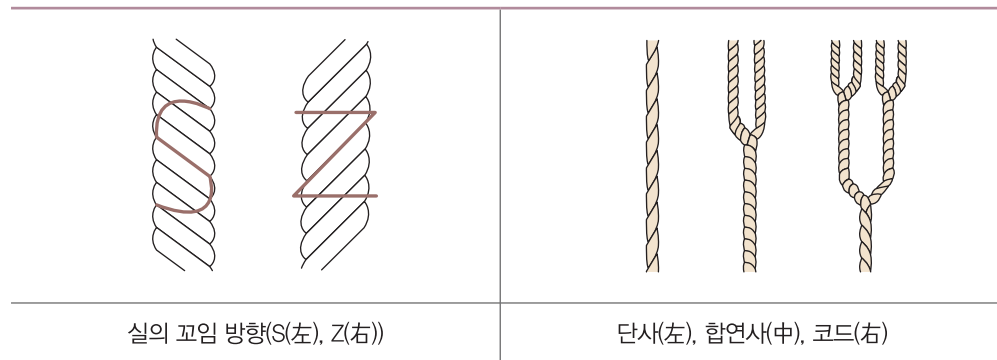
17. 국립중앙박물관, 2004. 『동삼동패총 II -제2차 발굴조사』.



도 57. 동삼동 패총 출토 토기 표면 근접사진(양성혁 외 1인 2014 일부 수정)  
①·② 그물감 흔적(실의 꼬임방향 확인) 확대, ③·④ 실과 실의 교차부분 확대

망의 줄은 대마Hemp를 사용하여 만든 마사麻絲로 추정된다. 마사는 강도가 크고 내수성이 좋아 해수의 영향을 적게 받기에 그물의 줄에 사용하기 매우 적합하다고 한다<sup>18</sup>.

그물무늬에 찍힌 망은 단사單絲가 아닌 2개 이상의 단사를 합친 합사合絲로 추정되며, 굵기는 1.357~2.255mm이다. 줄꼬임의 경우, 합사는 좌측으로 꼬여 있으며, 합사를 구성하는 단사는 우측으로 꼬여 있다. 단, 그물코를 만들기 위해 줄을 엮는 방식을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다.



도 58. 실의 꼬임방향과 종류(김성련 2006)

18. 국립민속박물관, 2005, 『천연섬유와 모피 식별 아틀라스』, 김성련, 2006, 『피복재료학(제3개정판)』, 교문사.

하지만 현대의 매듭 묶는 방법과 비교하면 당시의 매듭법을 유추할 수 있다. 개략적으로 4가지 정도의 매듭법이 가능하며, 이 중 실이 교차되는 부분의 흔적과 유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도 59>의 매듭법들과 동삼동 패총 출토 토기편에서 확인되는 매듭도 57-③,④ 사이에 형태적 공통성이 높아 보인다. 토기에서 확인되는 매듭의 형태가 눈에 띄게 다르므로 여러 방식의 매듭을 하나의 그물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I	II	III	IV
끈 묶는 방식				
묶인 끈의 모습				
실제 매듭				

도 59. 끈의 묶는 방식과 모습

<도 58-③> 매듭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깊게 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볼 때, I 혹은 II의 매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 58-④> 매듭은 상대적으로 앞의 것보다 작고, 얇게 압인되었다. 압인 문양에 횡으로 길게 끈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때, III 혹은 IV의 매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2) 어망추

재질	석제			토제	
제작방식	타격흙	마연흙	마연구	마연흙	마연구
흙 방향	장·단축	장축	장·단축	장축	장축
중량	소형		중형	대형	

표 15. 초기어구 어망추 분류안

어망추는 크게 재질에 따라 돌을 깎아서 만든 석제와 흙을 구워서 만든 토제로 구분된다<sup>19</sup>. 그리고 각 재질별로 제작 방식과 형태에 따라 세분된다. 어망추는 줄을 연결하는 흙의 방향과 그 자체의 중량에 따라 사용방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어망추의 가장 큰 기능은 침강력沈降力이다. 그물 끝에 매달려 수중으로 끌고 내려가게 하는 것이 어망추의 본래 역할이다. 때문에 어망추는 그물에 묶여야만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어망추에는 끈을 묶기 위한 흙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흙의 제작 방식장축, 단축과 형태타격, 마연에 따라 어망추는 다시 세분된다.

### 가. 어망추 종류

#### - 타격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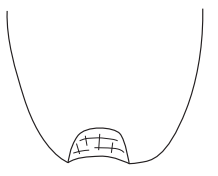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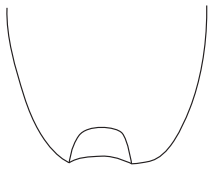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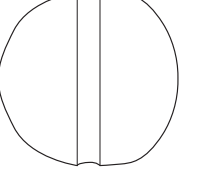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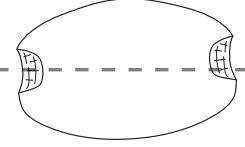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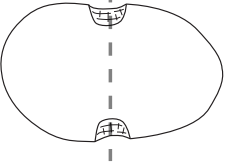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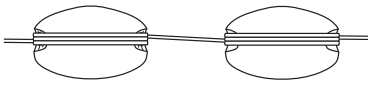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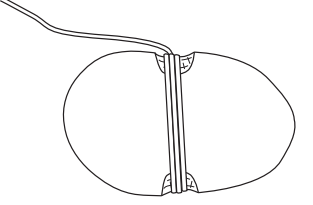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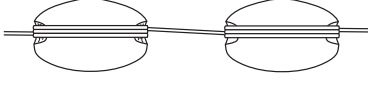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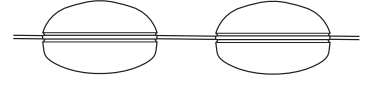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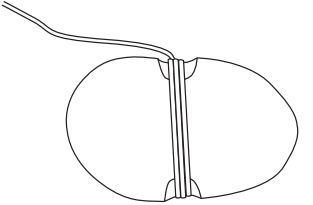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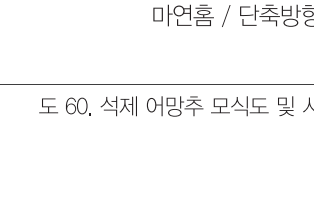
돌의 양 끝에 흙을 만든 어망추이다. 타결석추打缺石錘라고도 불리며, 돌의 양 끝은 타격을 통해 흙이 만들어진다. 어망추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로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 마연흙

타격흙과 달리 돌의 양 끝을 마연하여 흙을 제작한 어망추이다. 절목석추切目石錘라고 불리며, 전체적인 형태는 타격흙 어망추와 비슷하다.

#### - 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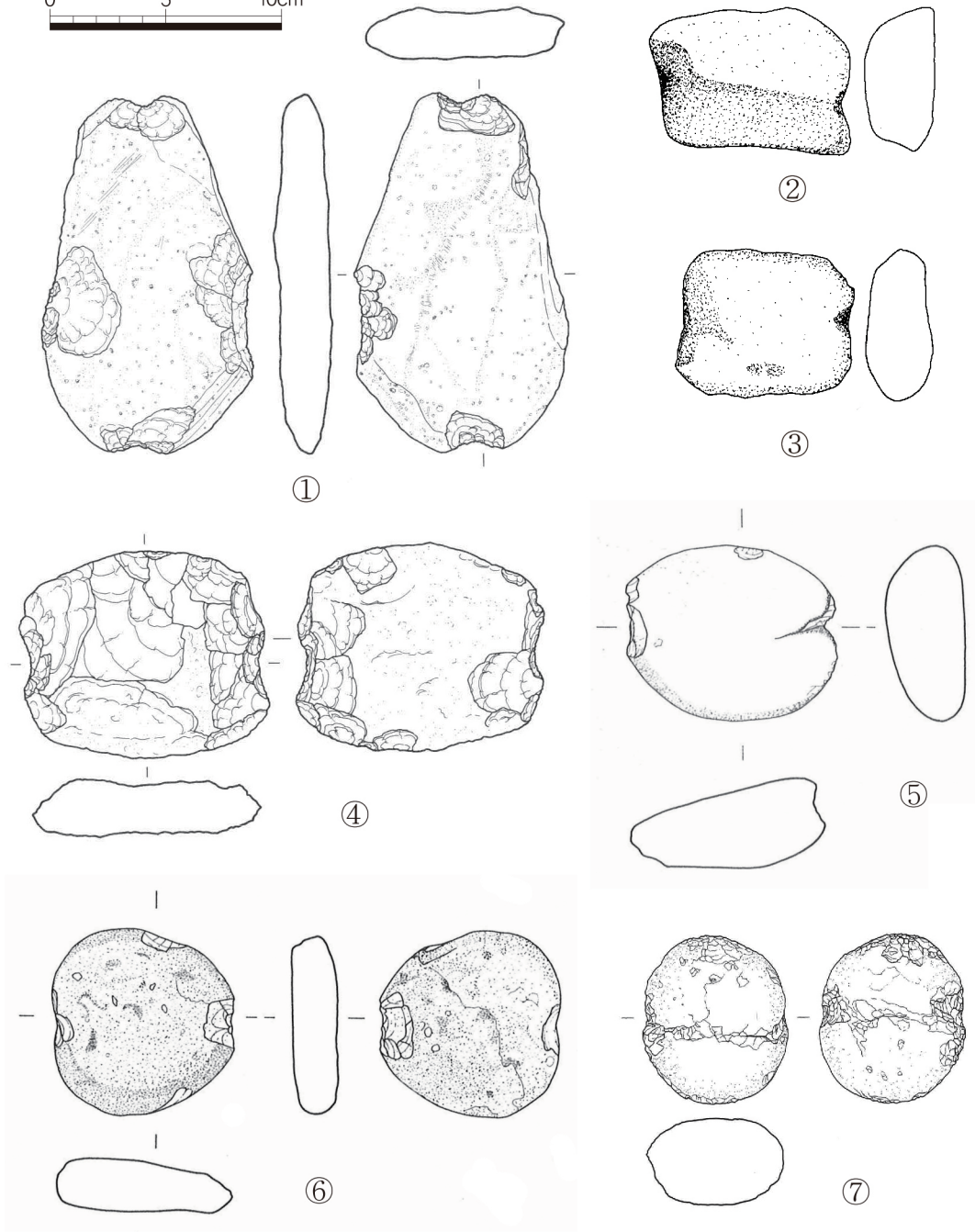
어망추의 표면에 양 끝을 잇는 긴 흙을 마연하여 제작한 어망추이다. 유구석추有構石錘라고도 한다.

제작 방식	타격흙	마연흙	마연구
모식도			
흙 방향	장축방향		단축방향
모식도			
사용방식	 타격흙 / 장축방향		
	 마연흙 / 장축방향		
	 마연구 / 장축방향		
		 타격흙 / 단축방향	
		 마연흙 / 단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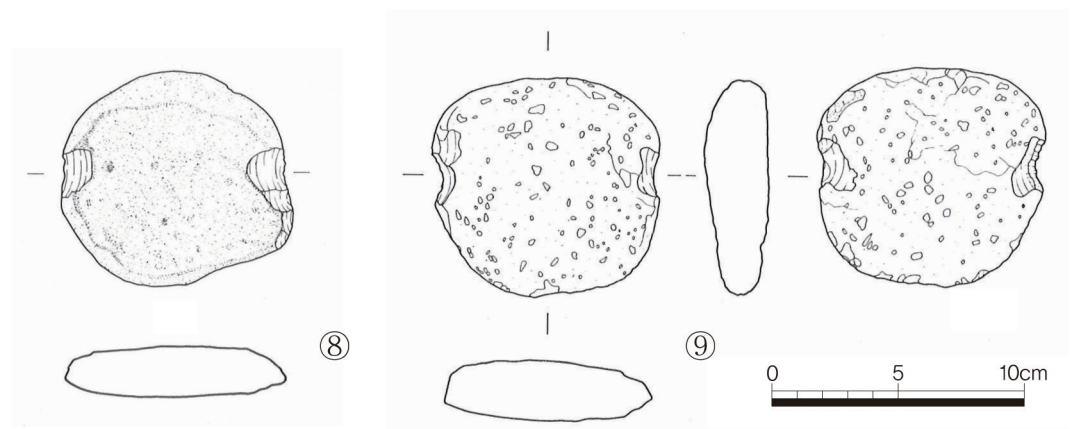
도 60. 석제 어망추 모식도 및 사용방식

19. 하지만 신석기시대 남해안에서 확인되는 어망추는 대부분 석제이며, 토제의 어망추는 해안가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석제의 어망추만 다루고자 한다.

0 5 10cm



도 61. 석제 어망추 도면(축척 1:3)



도 62. 석제 어망추 도면(축척 1:3)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비봉리 패총	돌	14.9	8.5	2.4	제1패총
	흙을 타격하여 제작한 타격흙 어망추, 4방향 흙, 무게 451g, 닳돌 추정.					
2	당하산 유적	돌	8.4	6.3	3.0	S4E4
	흙을 마연하여 제작한 마연흙 어망추, 장축방향 흙, 붕돌 추정.					
3	당하산 유적	돌	6.3	7.5	2.7	S4E4
	흙을 마연하여 제작한 마연흙 어망추, 장축방향 흙, 붕돌 추정.					
4	비봉리 패총	돌	9.0	10.4	2.0	제1패총
	가장자리를 넓게 타격하여 제작한 타격흙 어망추, 무게 305g, 닳돌 추정.					
5	연대도 패총	안산암	7.6	9.1	3.5	KIVe층
	흙을 타격하여 제작한 타격흙 어망추, 무게 345.7g, 중형의 붕돌.					
6	연대도 패총	안산반암	8.0	7.8	2.2	JIVd층
	흙을 타격하여 제작한 타격흙 어망추, 무게 224.8g, 중형의 붕돌.					
7	동삼동 패총	화강암	7.8	6.3	3.8	FXX II
	흙을 타격하여 제작한 타격흙 어망추, 돌 중간을 파낸 흙 확인, 무게 264.7g.					
8	육지도 패총	안산반암	9.2	8.5	2.1	D3피트
	흙을 타격하여 제작한 타격흙 어망추, 무게 585.6g, 중형의 붕돌.					
9	연대도 패총	응회암	8.6	9.0	2.4	P II 층
	흙을 타격하여 제작한 타격흙 어망추, 무게 269.5g, 중형의 붕돌.					

표 16. <도 61·62> 어망추 제원 및 특징

나. 어망추 연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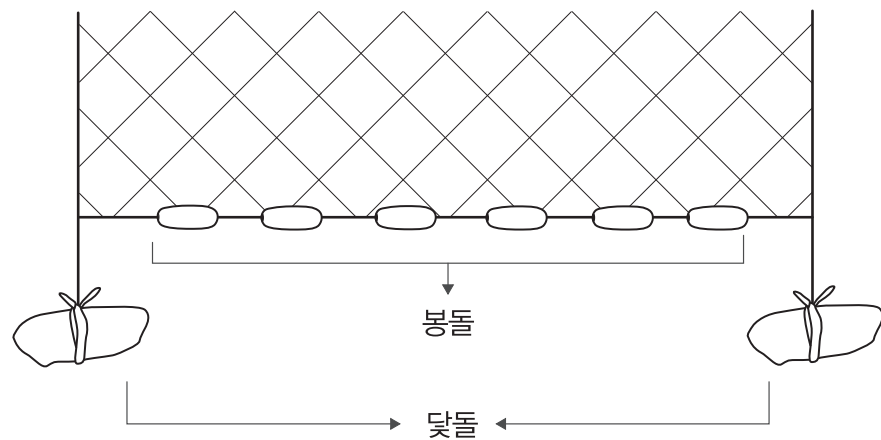
어망추에 새겨져 있는 홈이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어망추와 그물간의 연결 방식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어망추는 그물의 아랫단에 연달아 달려 있지만, 어망추에 새겨진 홈의 방향에 따라 그 역할과 위치가 달라진다.

- 장축방향으로 홈이 새겨진 경우

어망추의 장축방향으로 홈이 새겨진 경우, 그물끈 역시 장축방향으로 어망추를 감싸게 된다. 장축방향으로 홈이 새겨진 어망추는 그물의 가장 아랫단에 연달아 연결된다. 이는 <도 63>처럼 그물의 아랫단에 연속되어 연결되어 있는 붕돌에 해당한다. 붕돌은 그물이 물 속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 단축방향으로 홈이 새겨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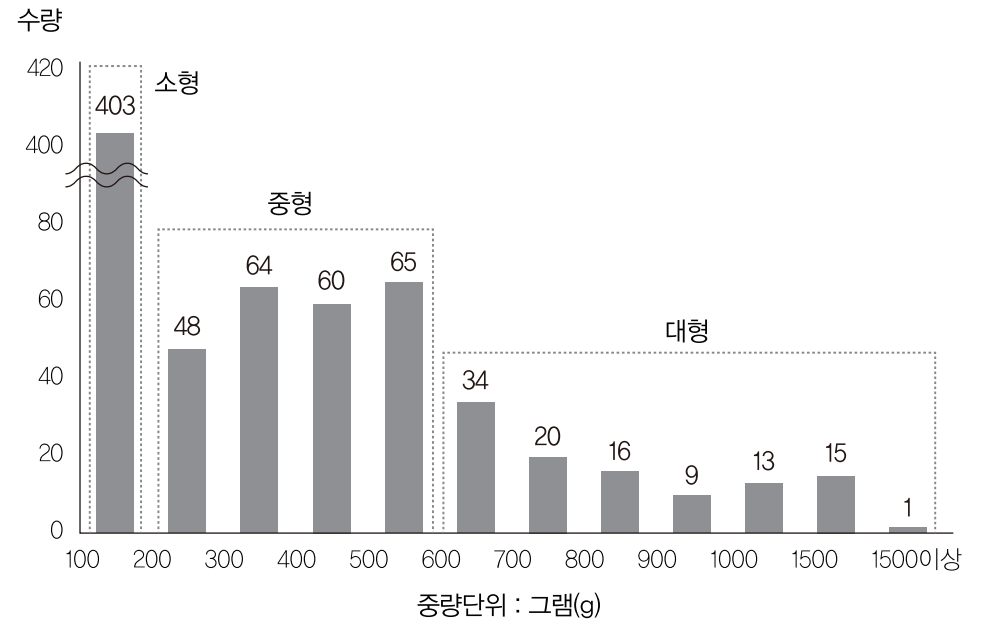
어망추의 횡방향으로 홈이 새겨진 경우, 그물끈 역시 단축방향으로만 어망추를 연결한다. 이는 <도 63>의 붕돌처럼 그물의 가장 아랫단에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닻돌로 사용되었다. 닻돌은 어망의 양 끝에 각각 1개씩 연결되며, 펼쳐진 그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물에 여러 개가 연결되는 붕돌과 달리 닻돌은 1개 혹은 2개만 연결된다. 때문에 단축방향으로 홈이 새겨진 닻돌은 출토수량이 매우 적다.



도 63. 어망추 홈의 방향에 따른 연결방식

다. 어망추의 중량

어망추에 새겨진 홈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듯이 어망추는 무게(重量)를 통해서도 분류가 가능하다. <도 64>의 히스토그램은 한반도에서 어망추가 가장 많이 출토된 중서부 지역의 어망추를 중량별로 통계를 도출한 것이다.



도 64. 한반도 중서부지역 어망추의 중량 히스토그램(이상규 2016 수정계제)

<도 64>에 표시된 것처럼 어망추는 중량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형은 어망추의 무게가 100g이하인 것이며,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어망을 제작할 때 소형의 어망추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형의 어망추는 대부분 홈이 장축방향으로 새겨져 있다.

중형은 어망추의 무게가 100~600g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형 다음으로 수량이 많다. 중형의 어망추는 홈이 장축방향으로 새겨진 것과 단축방향으로 새겨진 것이 모두 확인된다.

대형은 어망추의 무게가 600g이상인 것으로 가장 수량이 적으며, 홈이 단축방향으로 새겨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소형과 중형의 어망추는 그 수량과 무게 그리고 홈의 방향으로 볼 때, 붕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형의 어망추와 단축방향으로 홈이 새겨진 중형의 어망추는 닻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그물의 종류

초기어구 그물이 어떤 형태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패총유적에서 출토된 어망추의 다양한 형태와 근현대자료 그리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그물의 형태를 개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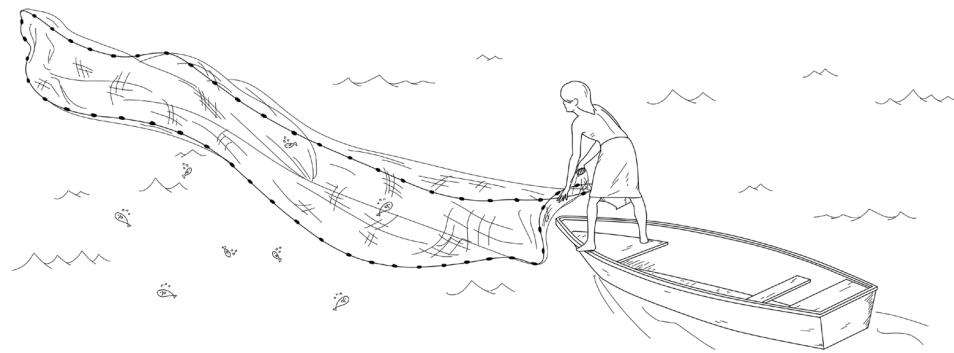
개인		집단			
반두 / 투망		자망 / 후릿그물			
붕돌		붕돌		닻돌	
소형	장축 홈	소~중	장축 홈	대형	단축 홈

표 17. 초기어구 그물의 종류와 사용된 어망추

우선, 그물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과 집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그물은 반두와 투망이 있으며, 집단 어망은 자망과 후릿그물이 있다. 각각 그물에 따라 사용되는 어망추의 크기나 연결방식이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두와 투망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소형의 붕돌을 주로 사용하였고, 자망이나 후릿그물처럼 개인이 아닌 집단이 사용하는 그물에는 붕돌과 닻돌을 모두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것이다.

### (1) 반두 / 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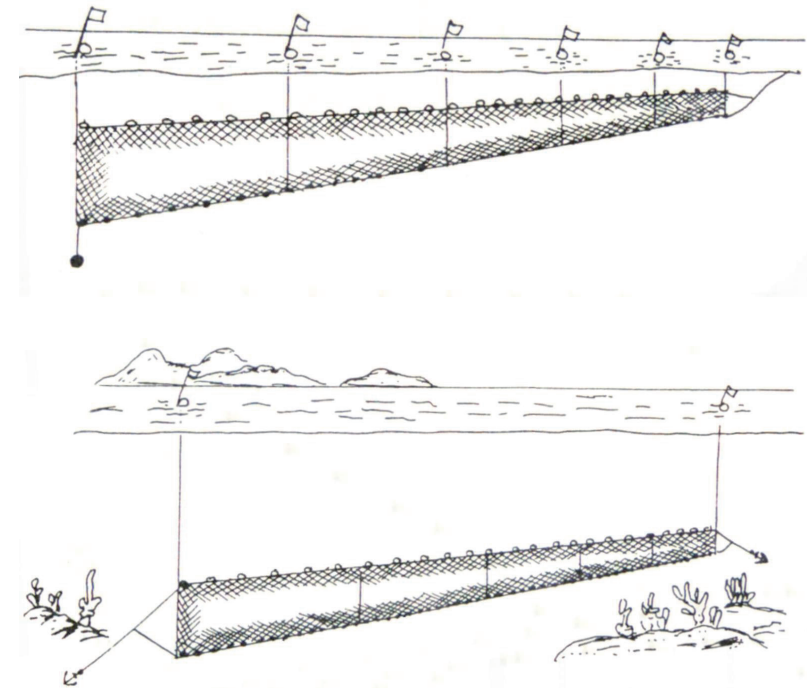
개인용 그물이며, 크기는 작다. 이 어망에는 대부분 무게가 적게 나가고, 장축방향으로 홈이 새겨진 소형의 어망추를 사용했을 것이다. 투망은 1인의 힘으로 던져서 사용해야 하는 개인용 투망이므로 어망의 크기가 작고, 전체적인 무게도 적을 것이라 추정된다.



도 65. 투망 사용 모습

### (2) 자망

걸어구류 Gill nets라고도 불리며 '방추형의 어류를 주 대상으로 긴 띠 모양의 그물을 고기가 지나가는 곳에 부설하여, 대상 생물이 그물코에 낚히도록 하여 잡는 것'<sup>20</sup>이라는 뜻으로 현대에도 폭넓게 사용하는 어망 종류이다.



도 66. 유자망(上)과 고정자망(下)(박구병 1992 그림7-147에서 편집)

참돔, 승어, 농어 등의 집단회유어종들을 잡는데 주로 사용되는 그물이다. 신석기시대 서해안 지역에서 어망추의 출토비율이 다른 그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어망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비해 남해안지역에서는 그 사용량이 적다.

자망은 설치 위치 혹은 고정방식에 따라 유자망(流刺網)과 고정자망(固定刺網)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자망은 조류를 따라 흘러 다니며 어군을 포획하는 방식이며, 고정자망은 주로 바다의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한다.

20. 국립수산물연구원, 2002, 『한국 어구도감』, p.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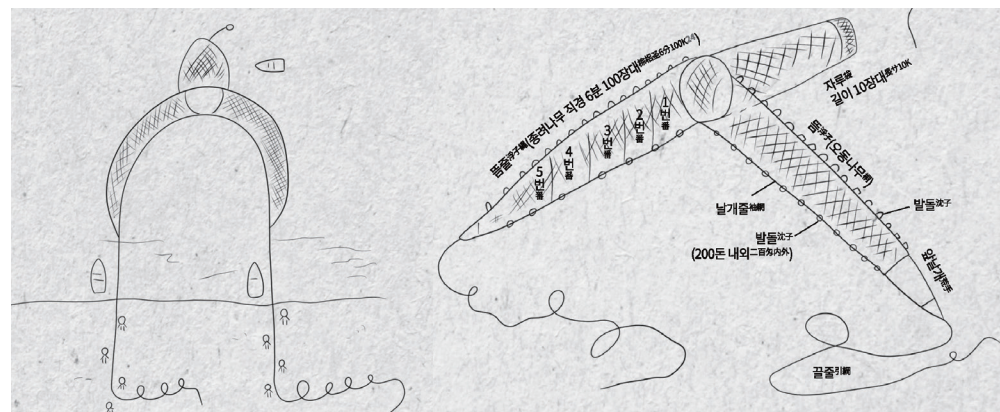
초기의 고정자망은 긴 그물의 상부에는 부자를, 하부에는 붕돌을 달아서 수직으로 펼쳐지도록 한 뒤, 닻돌을 이용하여 고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의 유자망은 고정자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닻돌 등을 이용하여 바다의 저층에 고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다의 저층이 아닌 표·중층에 두어 해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어획물을 잡는다. 때문에 유자망에 사용된 어망추는 붕돌 뿐이며, 닻돌은 사용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던 자망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망추이며, 현대에도 크게 붕돌과 닻돌로 구분할 수 있다. 붕돌은 그물이 펼쳐질 수 있도록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닻돌은 펼쳐진 그물을 떼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준다. 그렇기에 닻돌은 붕돌보다 크고 무거워야 한다. 대부분의 단축방향 홈이 새겨진 어망추가 장축방향의 어망추보다 크고 무거운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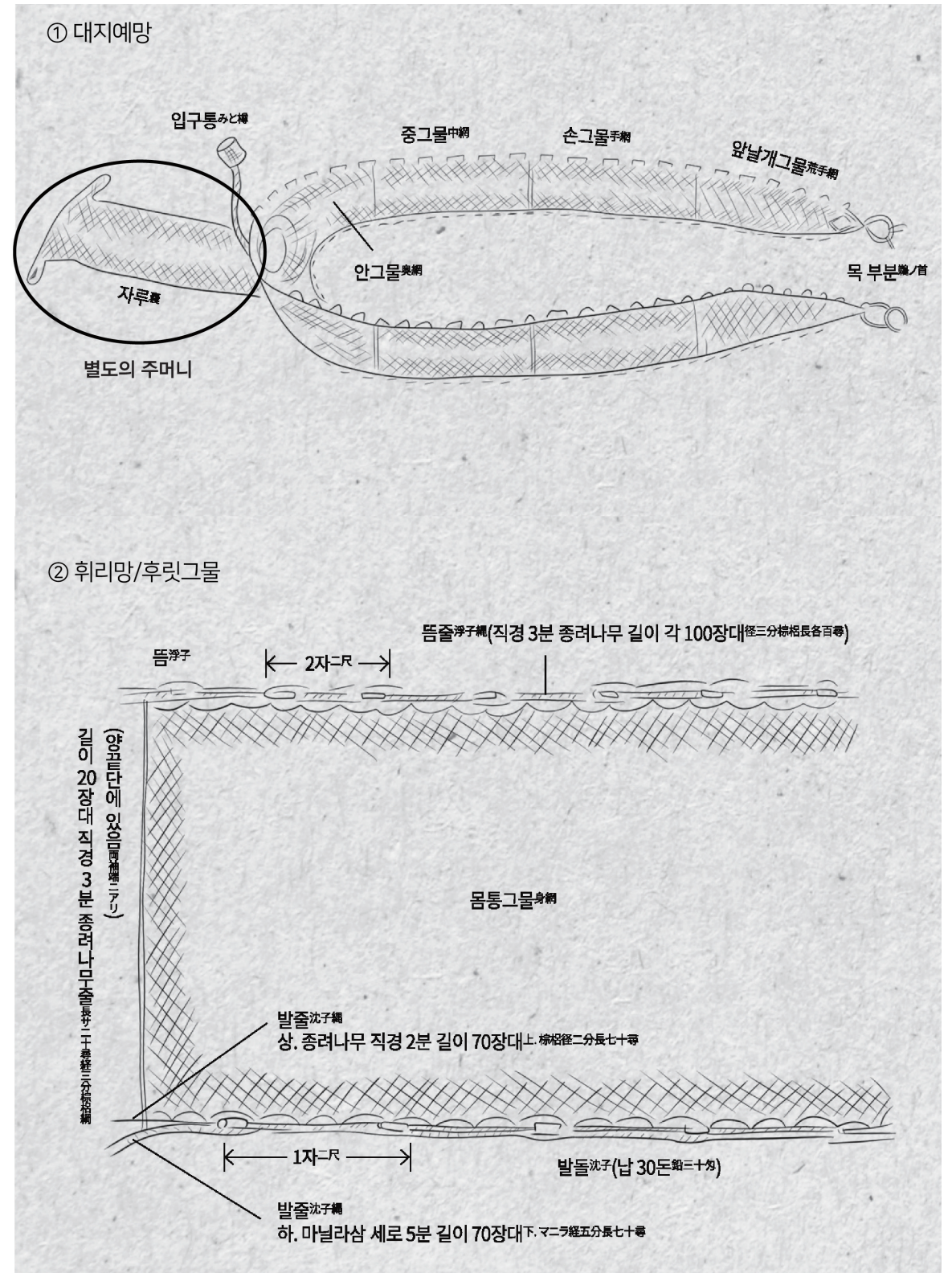
### (3) 후릿그물

후릿그물은 해변이나 강변에 대형그물을 물속에 좌우로 길게 설치한 뒤, 양끝을 물에서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한자로는 지예망(地曳網) 혹은 휘리망(揮羅網)이라고 한다. 땅에서 그물을 거두어 올린다는 점에서 같은 후리어구류로 분류되지만, 지예망은 끌어올리는 어획물들을 모으는 별도의 주머니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 휘리망은 주머니가 없는 형태이다. 초기의 후릿그물에 별도의 주머니 유무는 알 수 없지만, 붕돌을 이용하여 그물을 펼친 뒤, 땅에서 이를 끌어올려 해변가에 주로 서식하는 어획물을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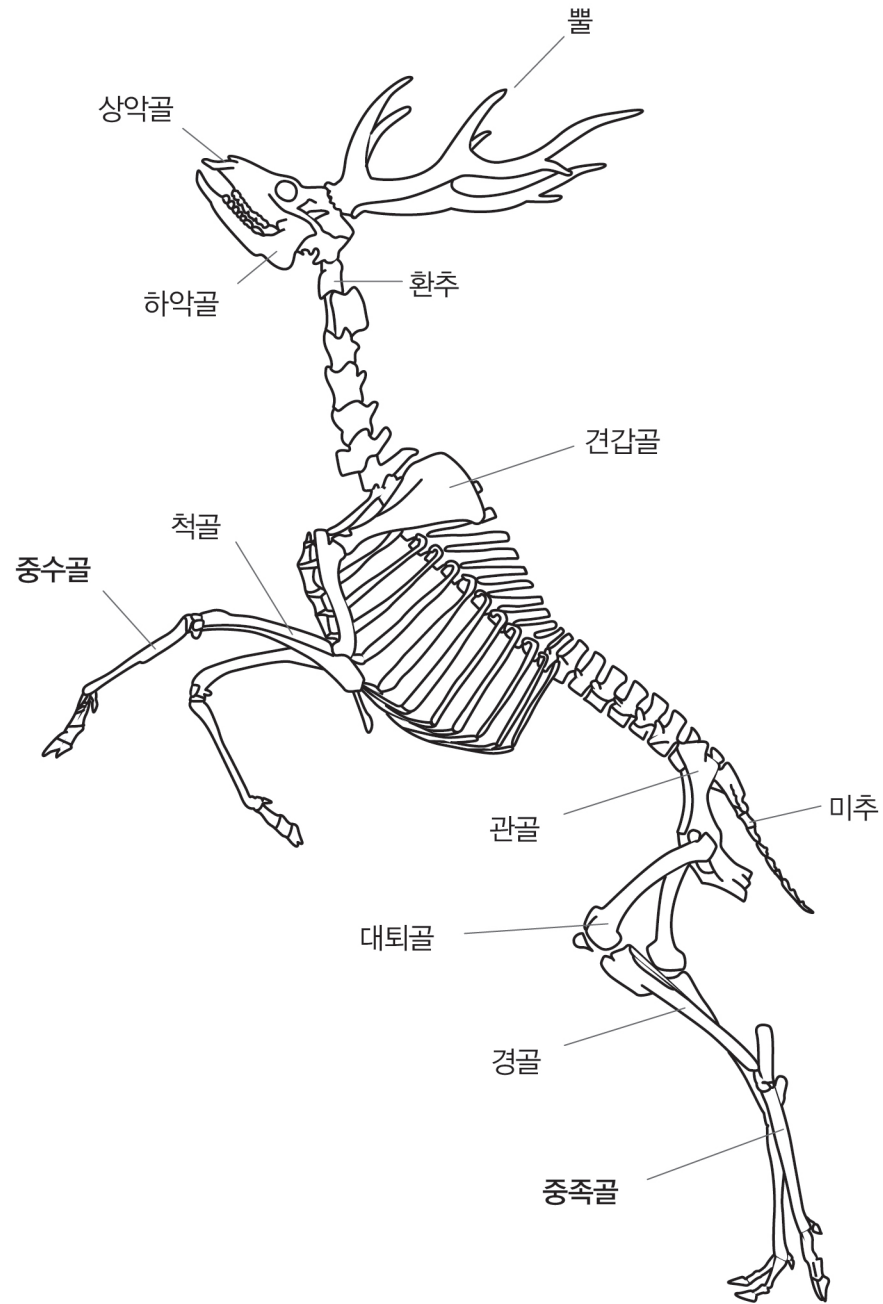
현대의 남해안에는 후릿그물을 사용하는 모습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다.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인 ‘다대포 후리소리’는 다대포에서 멸치잡이 후리질을 하면서 부른 어로요(漁撈謠)이다.



도 67. 후릿그물 사용모습(左)과 지예망(右) 『어구도집』 2023, p.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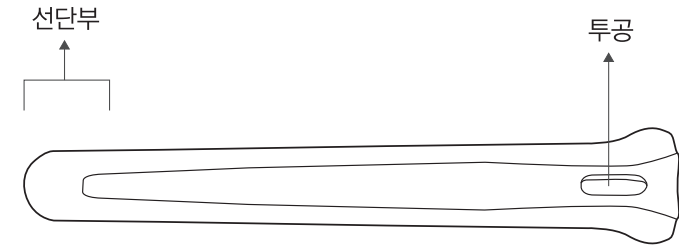
도 68. 대지예망(上)과 휘리망(下) 『어구도집』 2023, p.92, 94



도 69. 사슴의 골격도(북천박물관 제공)

## 4. 조개잡이

### 1) 빗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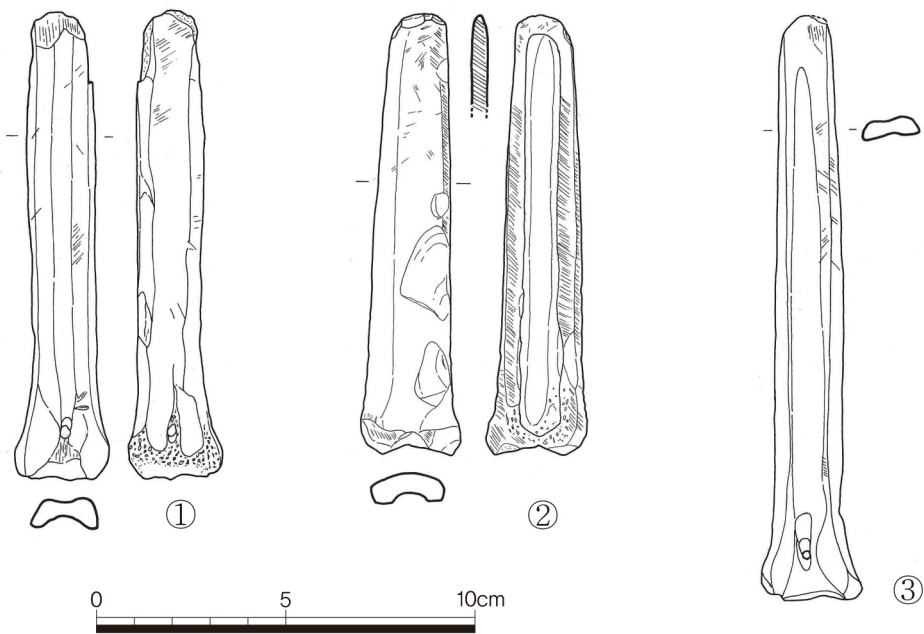
도 70. 초기어구 빗창 모식도

한반도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확인되는 패충은 말 그대로 조개껍질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주로 패각조개껍질이 쌓여서 형성되었지만, 당시에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도 함께 폐기되었기에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패충이 형성될 정도로 당시 선사인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굴이나 전복 등의 조개류를 채집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조개잡이 도구로는 빗창이 있다. 빗창은 조개류, 전복 등의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주로 사슴의 중수골(中手骨) 혹은 중족골(中足骨)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골각기이다. 그 외에 사슴뿔이나 고래뼈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선단부는 U자상으로 제작되며, 해당 부위를 통해서 바위에 붙어 있는 굴이나 조개 등을 떼어낸다. 손잡이 끝에는 구멍(자연공)이 뚫려있으며, 여기에 끈을 매달아 손에 고정하여 조개잡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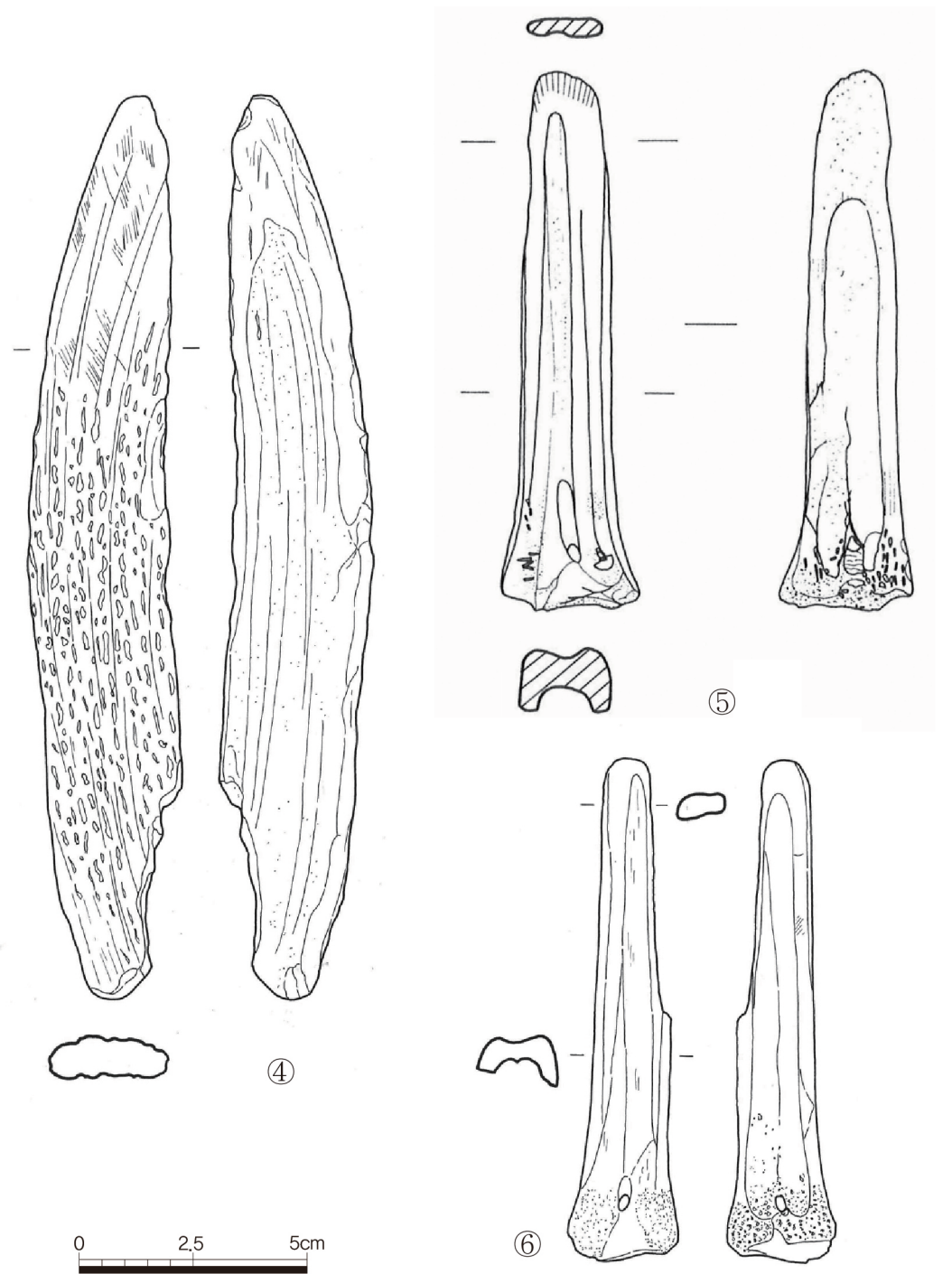
도 71. 빗창 사용 복원도(북천박물관 제공)



도 72. 빗창 도면(축척 1:2)

No.	출토지	재질	길이	너비	두께	출토위치
1	동삼동 패총	사슴뼈	12.4	2.6	0.4	5-1층
	한쪽 끝을 마연, 단면은 납작한 W자형, 사용흔 확인, 자연공 확인.					
2	동삼동 패총	사슴뼈	11.7	2.5	0.5	8층
	한쪽 끝을 마연, 단면은 오목한 반원형, 사용흔 확인.					
3	동삼동 패총	사슴뼈	15.4	2.6	0.3	5-1층
	한쪽 끝을 마연, 단면은 납작한 W자형, 사용흔 확인, 자연공 확인.					
4	동삼동 패총	사슴뿔	19.8	3.0	0.9	교란층
	사슴뿔을 반으로 절단하여 제작, 날 부분은 마연, 단면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					
5	연대도 패총	사슴뼈	11.2	3.0	1.7	지표채집
	한쪽 끝 부분을 날카롭게 마연, 단면은 납작한 W자형, 자연공 확인, 무게 22.6g.					
6	동삼동 패총	사슴뼈	11.5	2.4	0.5	2호주거지
	측면 한쪽이 일부 결실, 단면은 W자형, 자연공 확인.					

표 18. <도 72·73> 빗창 제원 및 특징



도 73. 빗창 도면(축척 1:1.5)

## 2) 잠수어업 潛水漁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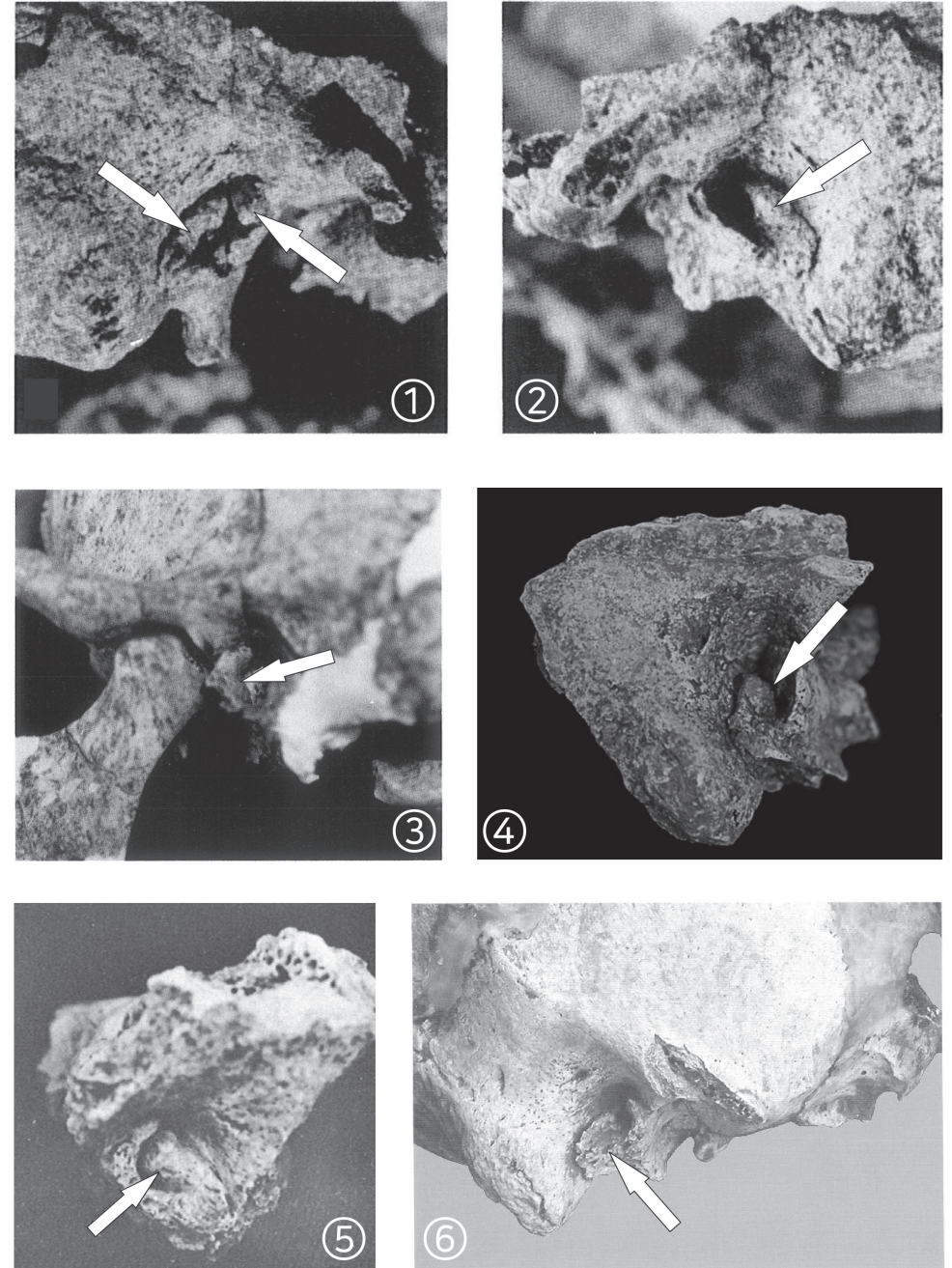
홍합·소라·고동·전복 등의 고급 패류와 해삼·성게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바다 밑으로 잠수해야 한다. 신석기시대에도 이러한 해산물들을 채취하기 위해 맨몸으로 잠수했다는 증거를 신석기시대 사람의 두개골에 발생한 외이도골종(外耳道骨腫)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이도골종은 장시간 잠수생활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는 귀의 고막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때, 귀 속의 뼈가 튀어나오는 질병이다. 심한 경우, 외이도 전체를 막기도 한다.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발굴된 두개골에서 외이도골종이 다수 확인되었다.

연번	출토유적		연령	성별	비고
	유적명	구분			
1	연대도 패총	2호묘 A	熟年	여성	-
2		5호묘	壯年	여성	-
3		7호묘	壯年	남성	-
4		9호묘	熟年	남성	-
5		10호묘	壯年	남성 추정	발치
6	육지도 패총	2호	壯年~熟年	남성	-
7	안도 패총	1호	20대	여성	-
8		3호	30대	남성	삼모양절치
9	가덕도 장항	1호	熟年(40대)	여성	
10		2호	熟年(40대)	남성	
11		14호	老年(70대)	여성	
12		38호	熟年(50대)	남성	삼모양치아

표 19. 남해안(연대도, 육지도, 안도 패총, 가덕도 장항 유적) 외이도골종 발견 두개골 출토 목록

연대도 패총 5개체, 육지도 패총 1개체, 안도 패총 2개체, 가덕도 장항에서 4개체의 두개골에서 외이도 골종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장년층의 두개골에서 확인되며, 성별은 양쪽에서 모두 고르게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당시 신석기시대 잠수어업은 성별에 상관없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이도골종 두개골이 출토된 유적에서 대부분 작살이나 패류채취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잠수어업은 작살이나 패류채취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①, ② 연대도 2호묘 A인골 ③ 연대도 5호묘 인골  
④ 가덕도 장항 14호 인골 ⑤ 육지도 2호 인골 ⑥ 안도 3호 인골

도 74. 외이도골종 사진

## 5. 기타

앞서 설명한 초기어구작삼, 낚싯바늘, 어망, 패류채취구는 직접적인 어로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어로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이나 도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활동선박, 합정어업, 궁서구 등을 증명하는 출토품이나 보조도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고선박古船舶

선박은 어업에 있어서 필수요소이다. 이는 과거 선사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상남도 창녕 비봉리에서 처음 목선木船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목선 활용의 일면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삼동 패총 유적에서는 배모양 토기가 출토되어 당시 사용한 배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1) 경남 창녕 비봉리 유적 출토 환목선丸木船

비봉리 유적의 제 5패층貝層에서는 약 8,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목선 조각1호, 2호<sup>21)</sup>이 출토되었다<sup>21)</sup>. 목선 조각은 서로 다른 곳에서 출토되었기에 서로 다른 목선 개체로 인식된다. 목선이 출토된 제5패층貝層 신석기시대 조기에 해당한다.

1호의 제원은 최대길이 310cm, 최대폭 62cm, 두께 2~5cm 이다. 단면은 U자상이며, 통나무를 파내어 만든 환목선<sup>22)</sup>의 일부이다.

배의 수종을 분석한 결과 200년이 넘는 소나무로 확인되었다<sup>23)</sup>. 이물배의 앞쪽과 고물배의 뒷쪽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폭이 좁아지는 동쪽을 이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배는 균일하게 가공되어 두께가 일정하다. 다만, 이물 쪽의 두께가 약간 더 두껍다는 것이 특징이다.

2호는 배의 측면 일부로 추정되며, 1호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소나무를 이용하여 환목선으로 제작되었다. 잔존길이 64cm, 잔존너비 22cm, 두께 1.2~1.7cm이다. 내·외부에는 돌도끼[石斧]에 의한 가공 흔적이 확인된다. 또한 1호처럼 불에 그을린 흔적이 함께 확인된다.

비봉리 출토 배에서는 선박 제작흔이 일부 확인된다. 환목선은 통나무를 벤 뒤, 그 속을

파내어 만들어진다. 때문에 속을 파내는 작업이 중요하기에 통나무 속을 불에 그을려 파내기 쉽도록 연화軟化하는 제작흔이 배에서 확인된다. 이후 내부는 돌을 통해 정리하여 마무리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배가 출토된 비봉리 유적은 현재 내륙지역이지만, 과거 신생대 제4기에는 바닷물이 넓게 들어오는 지역이었다. 당시 선사인들은 이 배를 끌고 내해內海를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75. 창녕 비봉리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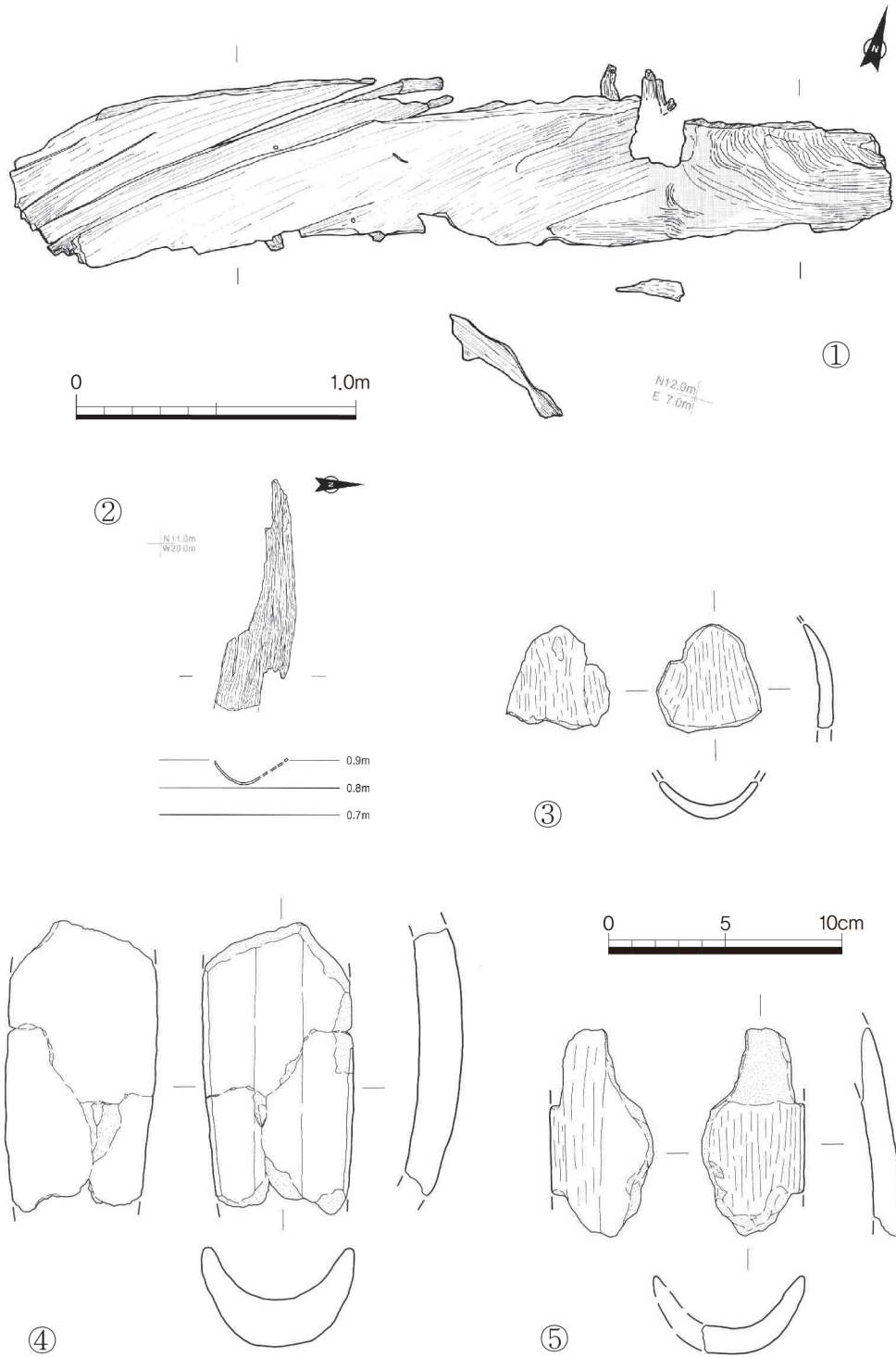


도 76. 창녕 비봉리 환목선 출토 당시

21. 국립김해박물관, 2008, 『飛鳳里』.

22. 굵고 긴 나무를 통째로 사용하여 만든 배

23. 김수철·이광희, 2013, 『창녕 비봉리 출토 신석기시대 나무배 편외 조습건조』, 『박물관보존과학』 vol.14, 국립중앙박물관.



도 77. ①·② 창녕 비봉리 유적 출토 환목선 도면(축척 1:25)  
 ③~⑤ 부산 동삼동 패총 출토 배모양 토기 도면(축척 1:2)

## (2) 동삼동 유적 출토 배모양 토기

동삼동 패총에서 배모양 토기<sup>[卍形土器]</sup>가 출토되었다<sup>24</sup>. 배모양 토기는 3개의 편으로 출토되었으며, 그중 2개의 편은 하나의 개체로 추정된다.

대부분 결손되어 일부만 남았지만, 잔존 형태를 바탕으로 전체 형태가 배모양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 출토된 환목선과 유사한 형태의 배모양으로 추정된다. 횡단면은 U자상이며, 종단면은 한쪽 끝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면서 외반한다.

No.	잔존 [최대] 높이	잔존길이	잔존 [최대] 폭	두께	태토	비고
3	1.5	4.5	4.3	0.3~0.6	점토질 (장석, 석영, 패분 혼입)	이물 혹은 고물 부위
4	[4.2]	12.3	[6.3]	1.9		배 중간 부위
5	[3.5]	8.9	4.5	1.1		이물 혹은 고물 부위

표 20. <도 77-③~⑤> 배모양 토기 제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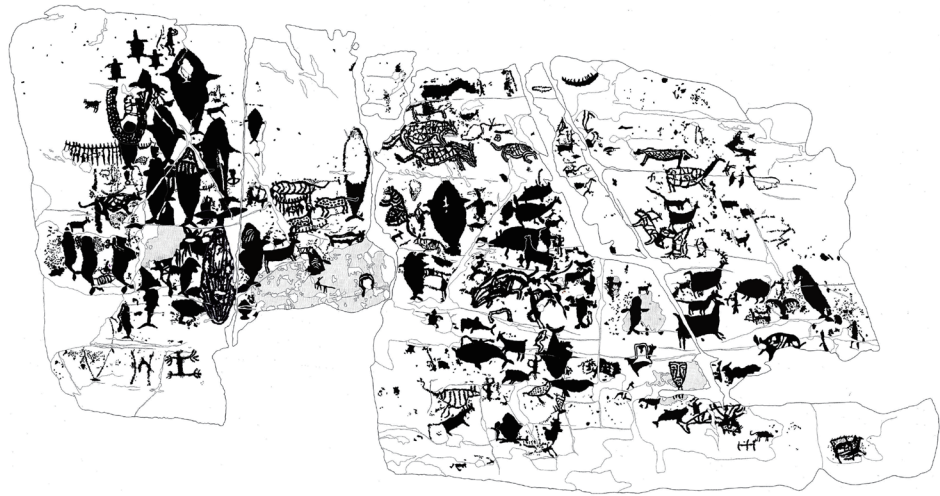
도 78. 부산 동삼동 패총 출토 배모양 토기(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4. 국립중앙박물관, 2005, 『東三洞貝塚 I』.

### (3) 울산 반구대 암각화 内 배문양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는 <도 79>처럼 많은 문양이 새겨져 있는 선사시대의 유적이다. 암각화에는 식물, 동물, 도구 사람 등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다양한 문양 중에는 배로 보이는 그림이 총 5점 확인된다. 암각화에 새겨진 배문양에서는 고래잡이를 위해 배에 승선한 다수 사람들이 함께 확인된다. 문양에서 묘사된 배의 형태는 긴 통나무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배의 앞쪽과 뒷쪽 모두 위쪽 방향으로 들려있다.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배 문양을 통해 당시 포경작업에 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79. 울산 반구대 암각화 도면(울산암각화박물관)



도 80. 울산 반구대 암각화 内 배문양 도면(전호태 2013 일부 수정)

### (4) 경주 석장리 암각화 内 배문양

1994년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산38-1에서 발견된 암각화이다<sup>25</sup>. 석장리 암각화는 크게 4개의 면(A, B, C, D)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B면에는 배로 추정되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B면은 가로 73cm, 세로 137cm 정도이며 해당 면에서는 모두 8점음문, 배, 검파형, 동물발자국 5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B면에 새겨진 배문양은 반구대 암각화의 배문양과 매우 유사하다. 환목선으로 추정되는 통나무배에 4~6명의 사람이 승선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이물과 고물 양끝이 위쪽 방향으로 들린 것 역시 비슷하다.

다만,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고래나 물고기 등의 문양이 함께 그려져 있어 배의 기능을 뚜렷하게 보여준 반면, 석장동 암각화의 배문양 주위에는 해양생물이 그려져 있지 않기에 때문에 배를 어업에 사용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도 81. 석장동 암각화 内 배문양 도면(울산암각화박물관, 2015, 『한국의 암각화』 p.94(축척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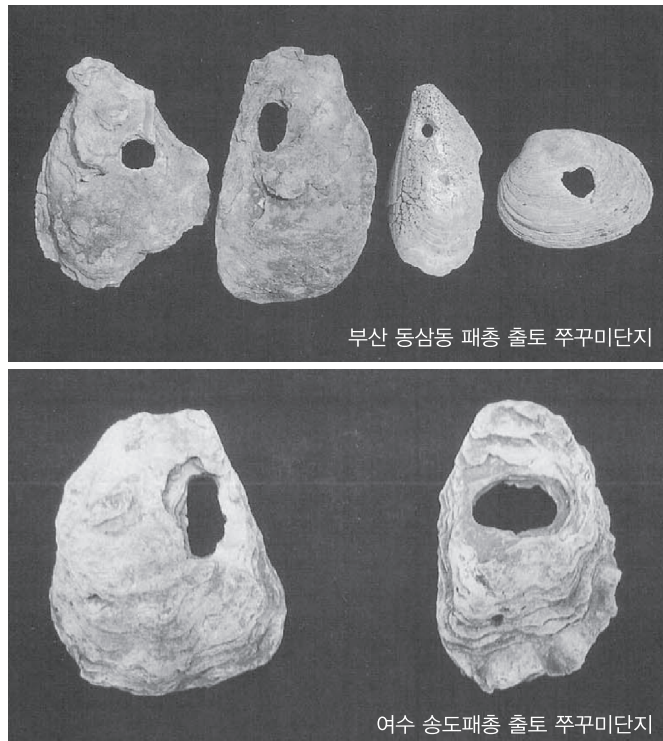
25. 울산암각화박물관, 2015, 『한국의 암각화』.

## 2) 함정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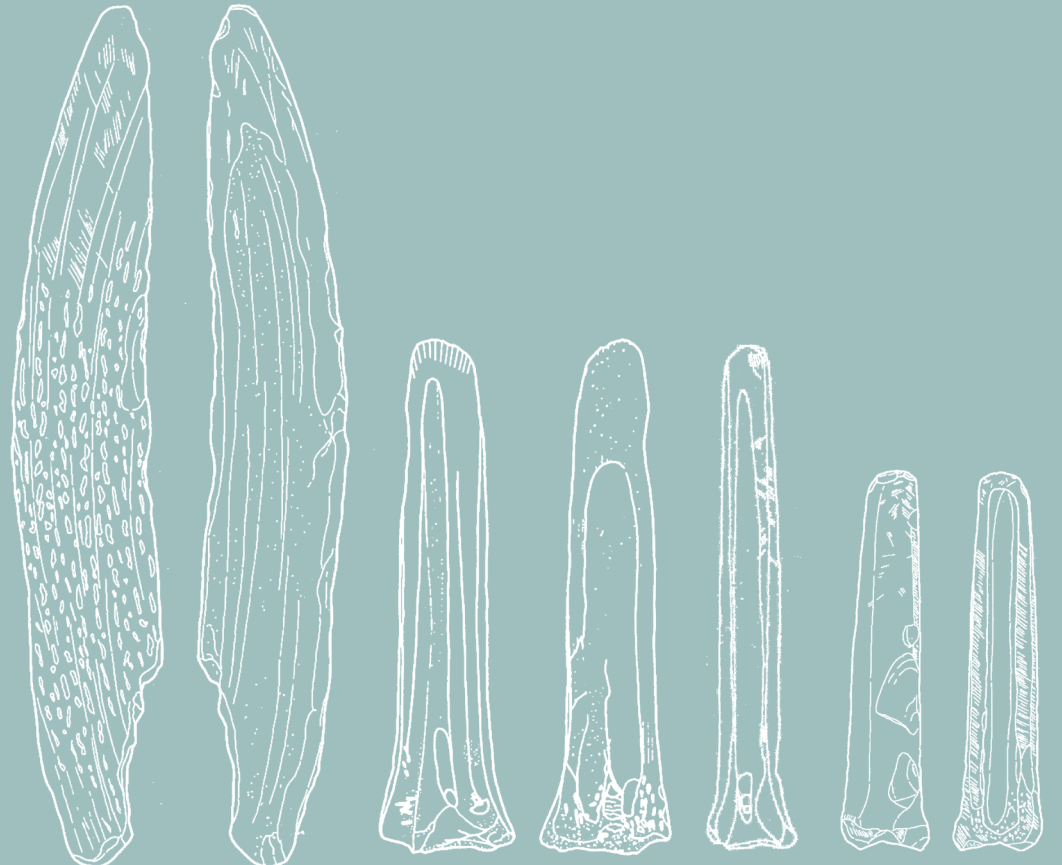
함정어업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포획하는 대상물이 어구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뜻한다. 현대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함정어업으로는 통발이나 문어단지 그리고 죽방렴<sup>竹方廉</sup> 등이 있다. 두족류나 멸치류 등을 포획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신석기시대에는 구멍이 뚫린 조개껍질을 함정어구로 사용한다. 조개껍질의 구멍에 줄을 연결하여 바다 속으로 던져 넣은 뒤, 두족류나 멸치류가 조개 안으로 들어오면, 이를 건져올려서 잡는 것이다.

부산 동삼동 패총, 여수 송도 패총 등에서 함정어업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개껍질이 확인된다. 함정어업에 사용된 조개껍질은 각정부<sup>殼頂部</sup>에 1~2cm 정도의 구멍이 뚫려있으며, 굴·가리비와 같은 이매패강<sup>二枚貝綱</sup> 조개일 경우에는 2개씩 짝을 이루어 함정어업에 사용하였다. 당시 함정어업에 사용된 조개껍질은 바위굴, 국자가리비, 개조개, 왕우럭조개, 피빨고둥 등이 있다<sup>26</sup>.



도 82. 함정어업 패각 유물(김건수 2005 일부 수정)



26. 서남해안의 해안가에서는 피빨고둥, 소라, 피조개, 토굴 등을 통해 주로 사용하여 주꾸미를 잡았다. 고둥이나 소라 같은 조개껍질의 내부는 주꾸미 등의 두족류가 은신하기 좋은 공간이기에 함정어업에 적합하다.

## IV 포획대상물

초기어구를 사용하여 잡은 포획물들은 패총에서 출토된 자연유물<sup>1</sup>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자연유물을 통해 볼 때, 당시에 잡았던 포획물은 크게 해양포유류<sup>海洋哺乳類</sup>, 패류<sup>貝類</sup>, 어류<sup>魚類</sup>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어느 종에 해당하는지 동정<sup>同定</sup><sup>2</sup>이 가능하다.

신석기시대 각 포획물을 수렵 및 채집하는데 사용한 초기어구는 <표 21>과 같다.

포획물	패류	해양포유류			어류		
		작살	낙시바늘	어망	분리식 작살	고정식 작살	결합식, 단식
초기어구	빗창(잠수)						

표 21. 포획물별 사용 초기어구

신석기시대의 패류 채집은 대부분 잠수나 직접 채집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패류 채집시에는 빗창을 이용하였고, 해양포유류를 수렵할때는 주로 작살을 사용하였다. 특히 멀리서도 포획이 가능하도록 분리식 작살을 주로 사용했을 것이다. 어류를 잡는 초기어구로는 고정식 작살, 낙시바늘 그리고 어망이 있다. 이 가운데 물고기를 잡을 때는 고정식 작살과 낙시바늘보다 어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생산성이 높았을 것이다<sup>3</sup>.

이처럼 초기어구를 사용하여 포획한 대상물들에 대해서 패총 출토 자연유물을 바탕으로 당시 어로활동의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동물뼈나 조개껍데기 등이 패총에서 출토된 자연유물에 해당한다.
2. 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뜻한다.
3. 그럼에도 낙시바늘과 작살을 이용한 어로활동이 지속된 것은 어구별로 대상 어종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 1 패류

### 2 해양포유류

### 3 어류

# 1. 패류貝類

패류는 생물학적으로 크게 복족강Gastropods<sup>4</sup>과 이매패강Bivalvia<sup>5</s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는 굴족강Scaphopoda, 갑각강Crustacea, 성게강Echinoidea, 다판강Polyplacophora 등이 있다. 대표적인 복족강으로는 소라, 전복, 고등류 등이 있으며, 이매패강은 굴, 홍합, 키조개, 백합 등이 있다. 그리고 패류의 서식지는 생태학적 특징·분포·퇴적상의 관계에 따라 11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6</sup>. 이를 서식지와 수심에 따라 분류한 것이 <표 22><sup>7</sup>이다. 이처럼 패류는 서식지와 수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생물이다.

	하구	조상대	조간대	조하대연근해 (천해대상부)
진흙 / 모래	참재철 갯고등 기수우렁이		꼬막 백합 피빨고등	비단고등 바지락 우렁
	배꼽기수우렁		갯우렁이	
자갈	다슬기 주름조개 말조개		밤고등 보말고등 토굴	갯굴
바위 / 암반			굴 진주배말 피빨고등	비단가리비 왜홍합 돌고부지
			홍합	
조장			소라 새끼밤고등	주름방사목조개
			흰개고등	
패각 표면			기생꼬깔고등 침암조개	

표 22. 패류 서식 군집분류(이하경 2023)

4. 복족강은 이름처럼 배에 발이 달린 것을 뜻하며, 패각이 모두 꼬여있다.  
 5. 이매패강은 조개의 패각이 좌우대칭인 것을 뜻한다.  
 6. 松島義章, 1984, 『日本列島における後氷期の浅海性貝類群集』.  
 7. 이하경, 2023, 앞의 논문, p.66.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출토된 모든 패류를 조사하면, 복족강이 46종, 이매패강은 43종이 확인되며, 총 89종의 패류미소패류 제외가 확인된다. 가장 많이 확인되는 패류는 이매패강에 속하는 참굴이며, 그 다음으로는 홍합이 많이 출토된다.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출토패류의 비율은 미소패류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등류 38%, 참굴 33%, 홍합 15%, 백합 12%이다<sup>8</sup>.



도 83. 신석기시대 대표 채취 패류(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제공)

8. 이은, 2016,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생업활동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제31호의 「<표 3> 신석기시대 패류 출토 유적 일람표」를 참고하였다.

신석기시대에 가장 많이 출토된 패류는 고동류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출토된 것은 참굴이다. 하지만 고동류 대부분이 미소패류<sup>9</sup>이며, 미소패류는 식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패류이기에 당시 사람들이 먹기 위해 채집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섭취를 위해 가장 많이 채집한 패류는 고동류가 아닌 참굴이다.

패총	시기	출토 패류(%)										표본수
		참굴	홍합	소라	고동류	백합	배말류	갯굴	굴과	암반	기타	
안도 패총	早前期	16	81	2	-	-	-	-	-	-	1	142
의암 패총	早前期	99.5	-	-	-	-	-	-	-	-	0.5	1125
여서도 패총	前期	-	45	5	28	-	11	-	-	-	-	3121
수가리 패총	中~後末期	63	-	-	-	-	-	-	23	-	14	1914
늑도 패총	後末期	50	-	-	47	-	-	-	-	-	3	743
돈탁 패총	後末期	32	-	-	-	16	-	19	13	11	9	1218

표 23. 신석기시대 패총별 패류 출토비율(이하경 2023 참조)

신석기시대 전체 패총에서 출토된 패류 중 미소패류를 제외하고 종별로 분석하면 참굴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된다. 하지만 패총별로 패류의 구성을 분석하면 특징적인 차이가 관찰된다. 특히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원도계<sup>10</sup>의 여서도 패총 경우에는 전체 패류 중 홍합이 45%의 비율로 가장 많이 확인되는 반면, 굴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여서도 주위는 참굴이 서식하기 부적합하고 홍합이 자라기 알맞은 환경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의 안도 패총은 여서도 패총보다 더 높은 비율의 홍합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홍합이 조간대의 암초지대에 서식하는 종으로 간조 때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지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 미소권패류, 미소종패류라고도 불린다.

10.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뜻하며, 여서도는 전라도와 제주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신석기시대 패총 중 위의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내륙에 위치한 창녕 비봉리 패총은 민물패류인 재첩이 주로 확인된다. 그 외에 굴이나 다슬기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 마찬가지로 내륙에 가깝게 위치하는 돈탁 패총, 의암 패총, 수가리 패총, 울리 패총 등에서는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패류가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을 미루어볼 때, 패총의 패류 조성은 그 입지와 환경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패류 조성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된다.

신석기시대 초기<sup>11</sup>와 전기<sup>12</sup>에는 홍합을 주로 많이 채취하였다<sup>11</sup>. 하지만 신석기시대 중기<sup>13</sup>를 지나 후기<sup>14</sup>와 말기<sup>15</sup>에 다다르면 참굴이 패류 조성의 75%로 가장 많이 채취되었다.

출토되는 패류<sup>16</sup> 중, 고동류 등은 대부분 조간대의 바위 혹은 암반에서 출토되며, 이는 암초 해안이 발달한 남해안의 환경과 부합한다. 이는 현재와 과거의 남해안 해양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11. 여서도 패총과 안도 패총에서 많이 출토되기 때문이다.

12. 이하경, 2023, 앞의 논문, p.78~79.

## 2. 해양포유류

해양포유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포유류 뜻하며, 고래나 물개, 매너티 등이 해당한다. 대부분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통한다. 생물학적으로 크게 로라시아상목(Laurasiatheria)<sup>13</sup>과 아프로테리아상목(Afrotheria)<sup>14</s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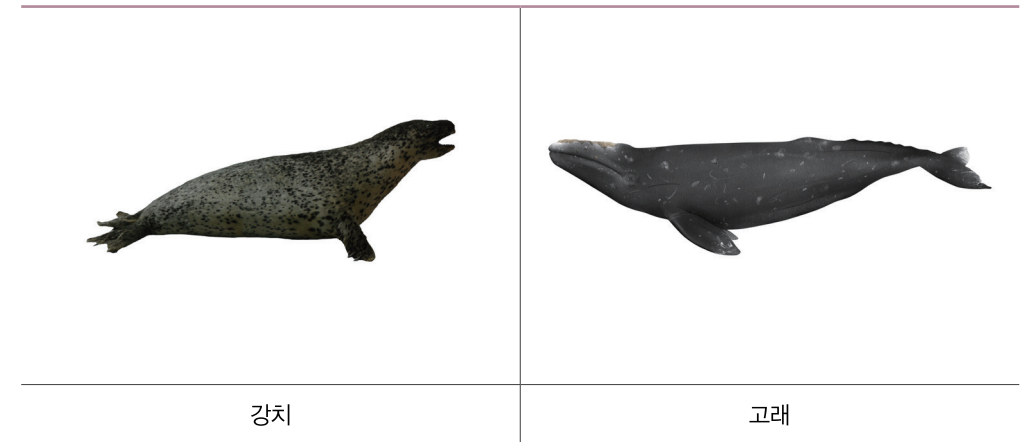
패총	시기	출토 포유류(%)											표본수
		강치	고래	돌고래	사슴	멧돼지	개	노루	쥐	고라니	오소리	기타	
의암 패총	早前期	-	-	-	50	42	-	8	-	-	-	-	12
동삼동 패총	早前期	34	6	-	43	2	2	2	-	6	-	5	822
여서도 패총	前期	54	2	5	12	-	7	-	18	-	-	-	465
연대도 패총	前期	7	9	8	16	20	10	-	9	9	-	12	80
산등 패총	早~末期	-	7	7	86	-	-	-	-	-	-	-	14
수가리 패총	中~末期	-	12	-	-	43	-	-	-	10	15	20	51

표 24. 신석기시대 패총별 포유류 출토 비율(이하경 2023 참조)

남해안의 패총에서 확인되는 해양포유류는 총 6종으로 참돌고래, 큰고래, 강치 등이 있다<sup>15</sup>. 패총에서 출토되는 해양포유류 뼈의 동정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남해안 패총에서는 해양포유류 뿐만 아니라 육지포유류<sup>16</sup>도 함께 출토되며, 일반적으로

13. 바다사자, 고래, 족제비 등이 속한다.  
 14. 듀공이나 매너티 등이 속한다.  
 15. 이하경, 2023, 앞의 논문, p.95.  
 16. 사슴, 멧돼지, 개, 쥐 등이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확인된다.

그 비율은 육지포유류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여서도 패총이나 동삼동 패총은 해양포유류가 육지포유류보다 더 많은 비율로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sup>17</sup>. 이를 미루어볼 때, 패총의 입지에 따라 포유류의 조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서도와 동삼동 패총은 외양<sup>外洋</sup>에 접한 입지이기 때문에 다른 패총들의 위치에 비해서 해양포유류를 발견하고 포획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도 84. 신석기시대 대표 포획 해양포유류(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제공)

시기적으로 분석해보면, 신석기시대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양포유류 뼈의 출토량이 줄어들고 그 대신 육상포유류(사슴, 멧돼지 등)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시기가 지날수록 선사인들이 고래나 강치 등의 해양포유류 보다 육지포유류를 더 선호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해석된다.

17. 가장 내륙에 위치한 창녕 비봉리 패총에서는 해양포유류의 뼈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 3. 어류

신석기시대에 남해안지방의 패총에서 확인된 어류는 생물학적으로 연골어강Cartilaginous fish<sup>18</sup> 10종, 조기어강Actinopterygii<sup>19</sup> 44종으로 총 54종이 있다<sup>20</sup>. 가장 많이 확인되는 종은 조기어강의 참돔Pagrus major이며 전체의 39%가 확인된다<sup>21</sup>. 그 외에도 감성돔, 농어, 돛발상어, 홍상어 등이 남해안 패총의 출토 어류 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도 85. 신석기시대 대표 포획 어류(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제공)

어류의 출토구성은 패총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참돔과 감성돔 같은 도미과가 주로 출토된다. 다만, 패총별로 어류의 출토비율을 따져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가 확인된다.

18. 뼈가 단단한 경골이 아닌 연골로 이루어진 어류를 총칭한다. 대표적으로 상어와 가오리 등이 있다.  
 19. 대부분의 어류가 해당 강(綱)에 속한다. 조기는 빛살있는 지느러미를 뜻한다.  
 20. 이하경, 2023, 앞의 논문, p.84.  
 21. 돔은 대부분 바다의 저층 암초 주위로 정착하여 살며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 이는 남해안 자연환경이 돔에게 있어서 서식하기 가장 적합한 조건임을 뜻한다.

패총	시기	출토 어류(%)											표본수		
		농어	자바리	불불락	돛발상어	감성어	방어	가송어	대구	농어	홍상어	다랑어		잉어	기타
동삼동 패총	早前期	33	-	-	2	-	2	-	-	-	26	18	-	19	1106
비봉리 패총	早前期	5	-	-	3	-	-	30	-	16	-	-	32	14	57
여서도 패총	前期	60	10	6	-	5	4	-	-	-	-	-	-	15	2133
연대도 패총	前期	11	-	5	60	-	-	-	-	-	-	-	-	24	716
수가리 패총	中~末期	3	-	-	-	-	-	-	47	47	-	-	-	3	124

표 25. 신석기시대 패총별 어류 출토 비율(이하경 2023 참조)

우선, 연대도 패총의 경우 상어과가 많이 확인되며, 비봉리 패총에서는 패류와 마찬가지로 담수어종인 잉어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패류와 해양포유류처럼 패총의 입지에 따라 어류의 조성이 다르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조기와 전기에는 대부분 모든 패총에서 참돔과 상어과가 주로 확인된다. 그 중 참돔이 3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돛발상어가 13%, 홍상어가 8%이다. 또한 대부분 저층에서 무리지어 생활하는 정착 어류가 대부분이지만, 회유어종도 일부 확인된다.

포획어종의 특성과 회유시기 등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어로활동 기간을 살펴볼 수 있다. 참돔은 가을~봄에 포획되는 어종이며, 송어는 봄에 포획된다. 까치상어는 여름에, 농어는 봄~여름에 회유하는 어종이다. 그 외에도 정착어종으로는 자바리(가을~초겨울), 가송어(겨울), 잉어(겨울~봄)에 포획된다. 이를 통해서 당시 사계절 내내 모든 기간동안 어로활동이 남해안에서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패총 출토 어류를 분석하면, 중기에서 말기에는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참돔과 다랑어가 많이 확인된다. 두 어종의 출토비율을 합하면 중~말기에 해당하는 패총의 58%에 해당한다. 주로 겨울~여름에 포획 가능한 대구, 농어, 어름돔, 감성돔, 쥐돔 등이 확인된다.

## 참고문헌

### 발굴보고서

- 국립광주박물관, 2009, 『安島貝塚』.
- 국립광주박물관, 2006, 『新安 可居島 貝塚』.
- 국립광주박물관, 1989, 『突山松島 I』.
- 국립광주박물관, 1989, 『突山松島 II』.
- 국립김해박물관, 2008, 『飛鳳里』.
- 국립김해박물관, 2012, 『飛鳳里 II』.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高城 文岩里 遺蹟』.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高城 文岩里 遺蹟 II -發掘調査報告書』.
- 국립중앙박물관, 1993, 『朝島貝塚』.
- 국립중앙박물관, 2005, 『東三洞貝塚 I -第1次 發掘調査-』.
- 국립중앙박물관, 2004, 『東三洞貝塚 II -第2次 發掘調査-』.
- 국립중앙박물관, 2004, 『東三洞貝塚 III -第3次 發掘調査-』.
- 국립중앙박물관, 2002, 『東三洞貝塚 IV -動物遺體-』.
- 국립진주박물관, 1989, 『欲知島』.
- 국립진주박물관, 1993, 『煙臺島 I』.
- 동서문화재연구원, 2020, 『統營 牛島貝塚 II』.
-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上老大島』.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완도 여서도 패총』.
- 부산대박물관, 1981, 『金海水佳里貝塚 I』.
- 부산대박물관, 2011, 『金海水佳里貝塚 II』.
- 부산박물관, 2007, 『東三洞貝塚 淨化地域 發掘調査報告書』.
- 부산박물관 복천분관, 1997,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凡方貝塚 I』.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6, 『凡方貝塚 II』.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蔚珍 竹邊里 遺蹟』.
- 한국문물연구원, 2014, 『釜山 加德島 獐項遺跡』.

### 논문

- 김건수, 1995, 「한반도 원시·고대어업」, 『한국상고사학보』 제20호, 한국상고사학회.
- 김건수, 2005, 「우리나라 선사·고대의 함정어업」, 『호남고고학보』 제21호, 호남고고학회.
- 김건수, 2011, 「쿠로시오(黑潮)와 남해안지방 신석기문화」, 『한국신석기연구』 제21호, 한국 신석기학회.
- 김재운, 2021, 「반구대암각화와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배 문양 암각화 비교검토」,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김진백, 2019, 「신석기시대 부산지역 거주자의 수산물 소비 실태」, 『해양정책연구』 제34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양성혁 외 1인, 2014, 「동삼동패총 출토 그물무늬토기 고찰」, 『고고학지』 제20호, 국립중앙박물관.
- 유병일, 2012, 「어류와 해서포유류의 포획방법」, 『야외고고학』 제15호, 한국문화유산협회.

- 이상규, 2013, 「신석기시대 골제 자들구의 제작과 용도」, 『영남고고학』 제65호, 영남고고학회.
- 이상규, 2014, 「신석기시대 한반도 해안지역 작살에 관한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제27호, 한국신석기학회.
- 이상규, 2019, 「신석기시대 영남-서북큐슈 해안지역 교류에 관한 검토-어로구의 양상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제83호, 영남고고학회.
- 이 은, 2016,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생업활동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제31호, 한국신석기학회.
- 임학중, 2007, 「낙동강 하지류역의 패총문화에 대한 재인식」, 『大東考古』.
- 정 철, 2022, 「한반도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흑요석제 석기 검토」, 『박물관연구논집』 제28호, 부산박물관.
- 천선행, 2010, 「고김해만을 둘러싼 해수면변동 재고」, 『고고광장』 제6호, 부산고고학연구회.
- 최득준, 2014, 「한반도 결합식조침에 대한 소고」, 『고고광장』 제15호, 부산고고학연구회.
- 황상일 외 2인, 2013, 「창녕 비봉리지역의 Holocene 중기 해수면변동」, 『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제6호, 대한지리학회.

### 학위논문

- 김경규, 2003, 「한반도 신석기시대 어로활동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배, 2002, 「신석기시대 낚시바늘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형곤, 2019, 「한반도 신석기시대 자들어업(刺突漁業)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규, 2020,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어로문화 변동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 은, 2010,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생업활동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하경, 2023, 「남해안지방 신석기·삼한시대 패총의 성격과 형성배경」,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림, 2013,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패총의 형성 배경」,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시도록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완도 여서도 패총』.
- 복천박물관, 2011, 『인간, 바다, 그리고 삶』.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9, 『어구전』.
- 울산암각화박물관, 2021, 『대곡천 사냥꾼 바다를 만나다』.

### 단행본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0, 『한국의 조개더미 유적 I』.
-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0, 『한국의 조개더미 유적 II』.
- 국립해양박물관, 2020, 『남해안 어업기술 문화』.
- 국립해양박물관, 2022, 『어구도집』.
- 국립해양박물관, 2018, 『남해안의 해안유적』.
- 동삼동패총전시관, 2006,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 동삼동패총전시관, 2009,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 동삼동패총전시관, 2011, 『한국의 신석기시대 패총』.
- 김성련, 2006, 『피복재료학(제3개정판)』.

배봉성, 2002, 『한국어구도감』, 국립수산과학원.  
심연옥, 2002, 『한국식물 오천년』, 고대식물연구소 편.  
울산암각화박물관, 2015, 『한국의 암각화:부산, 경남, 전라, 제주, 대구, 경북 編』.  
전호태, 2013,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한림출판사.  
하인수, 2017, 『신석기시대 도구론』, 진인진.

### 웹사이트

e뮤지엄, [emuseum.go.kr](http://emuseum.go.kr)

# 1

## 신석기시대 한반도 서북부 일대 어로구의 양상

이상규(가야문화연구원)

머리말

어로구의 전개양상

어로구의 변동요인

맺음말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 내용을 재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한반도의 서북부 일대의 신석기시대 어로구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한반도 서북부의 범위는 한반도 내 서북 지역을 비롯하여, 중국의 요동遼東·길장吉長지역을 포함한다. 이 외 주변부인 산둥반도山東半島와 요서遼西지역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는 신석기시대 당시의 한반도 신석기문화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도 연결되며, 한반도 주변의 신석기시대 어로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문화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로구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는 앞서 본문에서 소개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 II. 어로구의 전개양상

### 1. 한반도 서북부일대 어로구의 양상

한반도 서북부일대의 시간적 흐름은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1>.

단계 \ 지역	요동반도지역	길장지역	단동지역	한반도 서북부지역
1단계	소주산1기 소주산2기	좌가산1기 좌가산2기	후와하층기 후와상층기	미송리양식 반궁리기
2단계	소주산3기 소주산4기	좌가산3기 (서단양산2기)	염타자기	당산하층기 당산상층기
3단계	소주산5기		석불산기	신암리기

<표 1> 한반도 서북부 일대 각 단계별 어로구 출토유적 지역문화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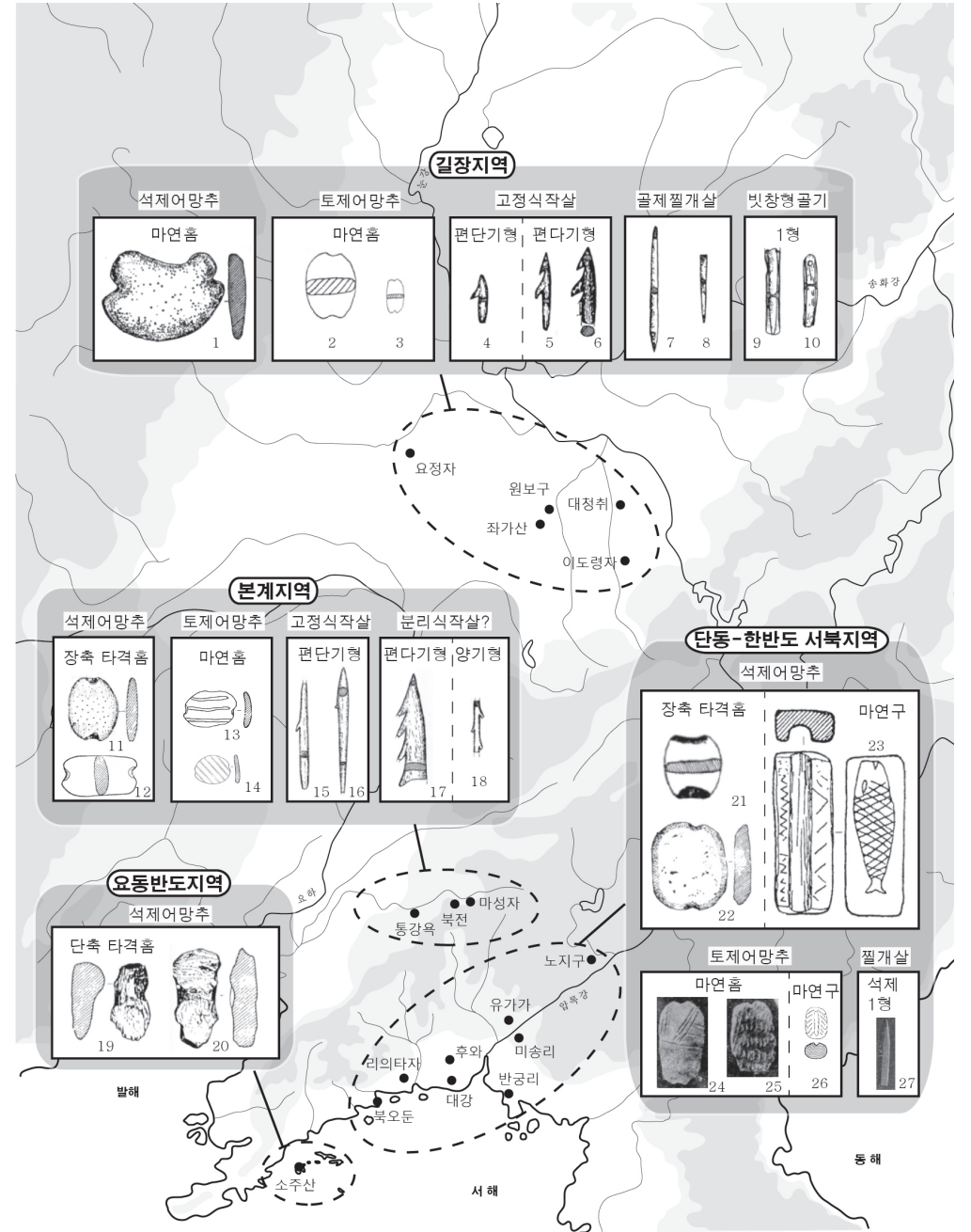
## 1) 1단계

한반도 서북부일대의 1단계 어로구의 모습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1단계는 길장지역, 본계지역, 요동반도지역, 단동-한반도 서북부지역으로 구분된다.

길장지역은 지리적으로 송눈평원과 요하평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어로구는 돌이나 흙을 구워 만든 어망추와 작살류, 찢개살, 빗창으로 생각되는 뼈도구가 있다. 어망추는 모두 마연흙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격흙 어망추가 없다. 작살류, 찢개살, 빗창은 길장지역의 서쪽편에 해당하는 유적들에서 나타난다. 작살은 모두 고정식으로 생각되며, 작살의 한쪽에 미늘이 하나만 있는 편단기형<sup>偏單錐形</sup>과 작살의 한쪽에 미늘이 여러개 있는 편다기형<sup>偏多錐形</sup>이 있다. 이 외 빗창형 뼈도구는 좌가산<sup>左家山</sup>과 요정자<sup>腰井子</sup>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이 유적들에서는 민물조개의 껍데기층이 확인되고 있어 민물 조개잡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요동반도지역은 이 시기 어로구가 확인되는 유적은 소주산<sup>小珠山</sup> 유적이 현재 유일하다. 소주산 유적에서는 이 시기 다른 어로구들은 알 수 없고, 어망추만 확인된다. 소주산 유적의 어망추는 일반적인 어망추와 달리 불규칙한 모습인 점이 특징인데, 이는 뒤에서 언급할 산동반도지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동-한반도 서북부지역의 범위는 서쪽으로는 대련시<sup>大連市</sup>의 일부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요녕성 끝자락의 훈강<sup>渾江</sup>, 압록강 하류에 이른다. 이 지역의 어로구는 돌이나 흙을 구워 만든 어망추와 석제 찢개살이 확인된다. 석제어망추는 장축 타격흙의 어망추와 마연구흙의 어망추가 있다. 이 중 장축 타격흙의 어망추는 일반적인 형태의 어망추인데, 마연구흙의 어망추는 상당수가 독특한 형태<sup>그림 1-23</sup>이다. 이는 중국의 보고서에서 유구활석망추<sup>有沟滑石网坠</sup>라고 부르는 도구이다. 이를 어망추가 아니라 뼈도구를 가는데 사용하는 공구로 보기도 하지만, 현재는 대체로 중국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망추로 인식되고 있다<sup>1</sup>. 흙을 구워 만든 어망추는 마연흙과 마연구흙이 있으며, 대체로 토기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 토기조각을 재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후와유적의 어망추는 하층에서 84점<sup>타격흙 33점, 마연구 31점, 토제 마연흙 20점</sup>, 상층에서 500점<sup>타격흙 274점, 마연구 11점, 토제 마연흙 215점</sup>으로, 상당히 많은 어망추가 출토되고 있어 어망어로가 활발히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어망의 종류도 다양했을 것으로 보인다. 찢개살은 돌을 갈아 만든 찢개살만 확인되는데, 찢개살 끝부분의 능이 긴 형태<sup>1형</sup>이다. 이는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이른 시기에 확인되는 찢개살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돌을 갈아 만든 찢개살이 출토되는 후와하층이 시기적으로 중서부지역의 유적들보다 이르기 때문에, 중서부지



<그림 1> 한반도 서북부일대 1단계 어로구의 양상 (S=1/6)

1-8-9.元宝沟 2-3.二道岭子 4-6.腰井子 7-9.左家山 11.通江峪 12-14-16-17.马城市B洞 13-15-18.北甸A洞  
19-20.小珠山 21.老地沟 22.北吴屯 23-27.后洼

1.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망추가 요녕성 장해현과 동구현의 어촌지역에서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许玉林 1987).

역 찢개살이 단동지역을 거쳐 한반도 중서부지역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계지역은 요하(辽河)의 지류인 태자하(太子河)상류지역에 분포한다. 이 지역의 유적들은 소주산2기에 해당하는 후와상층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지역의 어로구는 어망추와 뼈작살이 있다. 어망추의 양상은 단동지역과 대체로 비슷하며 차이점으로는 유구활석망추가 없다는 점이다. 뼈작살은 고정식에 편단기형이 있고, 이 외 편단기형과 양쪽에 미늘이 있는 양기형(兩錐形)이 있다. 그러나 이 중 편단기형(그림 1-17) 작살은 몸통 전체가 두터운 형태이며, 양기형(그림 1-18) 자체가 분리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분리식 작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계지역의 작살은 길장지역이나 송눈평원지역과는 형태적으로도 차이가 있어 이들 지역과의 관련성 보다는 요동지역의 고유한 형태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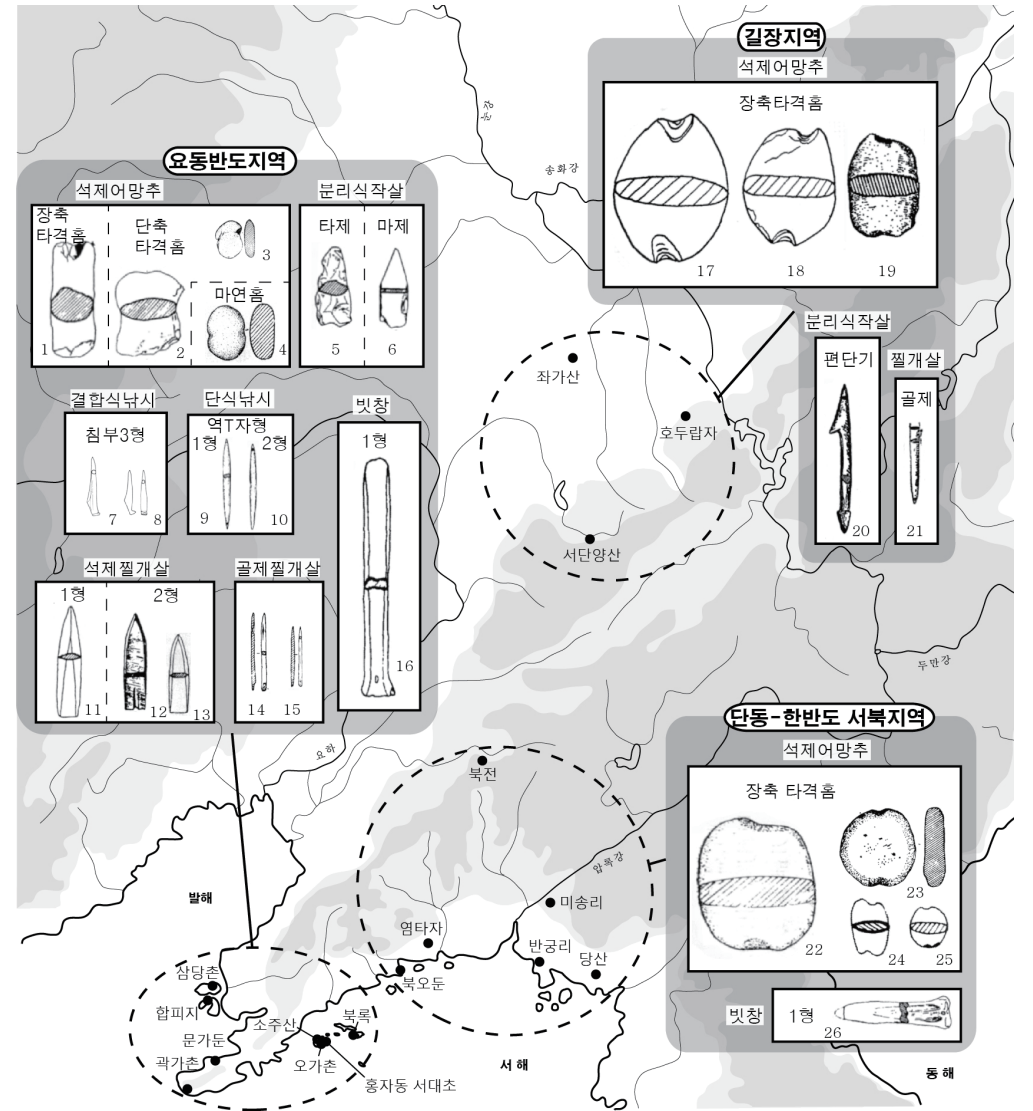
## 2) 2단계

2단계 양상을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2>와 같다. 2단계는 길장지역, 요동반도지역, 단동-한반도 서북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길장지역은 석제어망추와 뼈작살 및 뼈찢개살이 확인된다. 석제 어망추는 호두랍자(虎頭砬子)와 서단양산(西斷梁山)유적에서, 작살과 찢개살은 좌가산(左家山)유적에서 확인되어 이전 단계 길장지역 동편의 어망추, 서편의 작살이라는 모습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다만, 길장지역 동편의 어망추는 흙을 구워 만든 것의 유무를 알 수 없고 석제 어망추로 재질이 변화되며 크기도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전 보다 어망의 크기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어로구 구성에 작살과 찢개살도 포함되고 있다.

요동반도지역은 2단계에 와서 어로구 출토유적의 분포범위가 확대되어 요동반도 남단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어로구도 이전 단계 어망추만 확인되던 것과 달리 어망추류 외 돌작살류, 낚시류, 찢개살과 빗창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 이전 단계보다 다양한 어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망추는 돌로 만든 어망추만 활용되며, 장축과 단축의 타격흙 및 단축방향의 마연흙 어망추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그림 2-1·2>와 같이 일반적인 타격흙 어망추와는 다른 형태의 불규칙한 모습의 타격흙 어망추가 사용되는데, 이는 1단계에서의 양상과도 동일하다.

작살류 역시 돌로 만든 분리식 작살류만 있는데, 타제(檀柞기석창형)와 마제(間柞기석창형)이 모두 나타난다. 광가촌과 소주산 유적에서 출토된 고래뼈<sup>2</sup>로 볼 때, 고래류와 같은 대형 해서



<그림 2> 한반도 서북부 일대 2단계 어로구의 양상 (S=1/6)  
1·2·16. 吳家村 3·9·10. 三堂村 4·13. 蛤皮地 5·6. 小珠山 7·8·11·14·15. 郭家村 12. 北麓 17·18. 二道峪子 19. 西斷梁山 20·21. 左家山 22. 北甸 23. 北吳屯 24. 當山 25. 半宮里 26. 閔砬子

포유류의 포획에 돌로 만든 분리식작살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동반도 지역에서는 이 단계부터 정면결합식낚시가 출토된다. 이 결합식낚시는 광가촌 하층에서 출토되었는데, 낚시허리가 확인되지 않아 낚시허리의 재질과 형태는 알 수 없다. 침부분은 모두 미늘이 없는 무기식이며, 결합부 후면의 끝부분에 단이 지는 형태(그림 2-7·8)이다.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침부가 확인되지 않아 요동반도의 지역적 형태로

2. 광가촌 상층에서 수염고래류의 제1경추골(頸椎骨), 소주산 상층에서 고래뼈 4점이 확인된 바 있다. 중국의 황해북부와 발해만 부근에는 이빨고래류와 수염고래류가 분포한다고 한다(博仁義 1984).

생각된다<sup>3</sup>. 단식납시도 이 단계부터 역T자형이 확인되며, 허리가 잘룩한 1형과 허리가 일자인 2형이 모두 등장한다.

찢개살은 돌로 만든 것과 뼈로 만든 것이 있으며, 돌로 만든 찢개살은 찢개살 끝부분 능이 긴 1형과 능이 없는 2형이 모두 보인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찢개살1형이 소주산3기, 찢개살 2형은 소주산4기에 해당하며, 앞서 1단계 단동지역의 찢개살도 1형인 것으로 볼 때 찢개살 1형이 2형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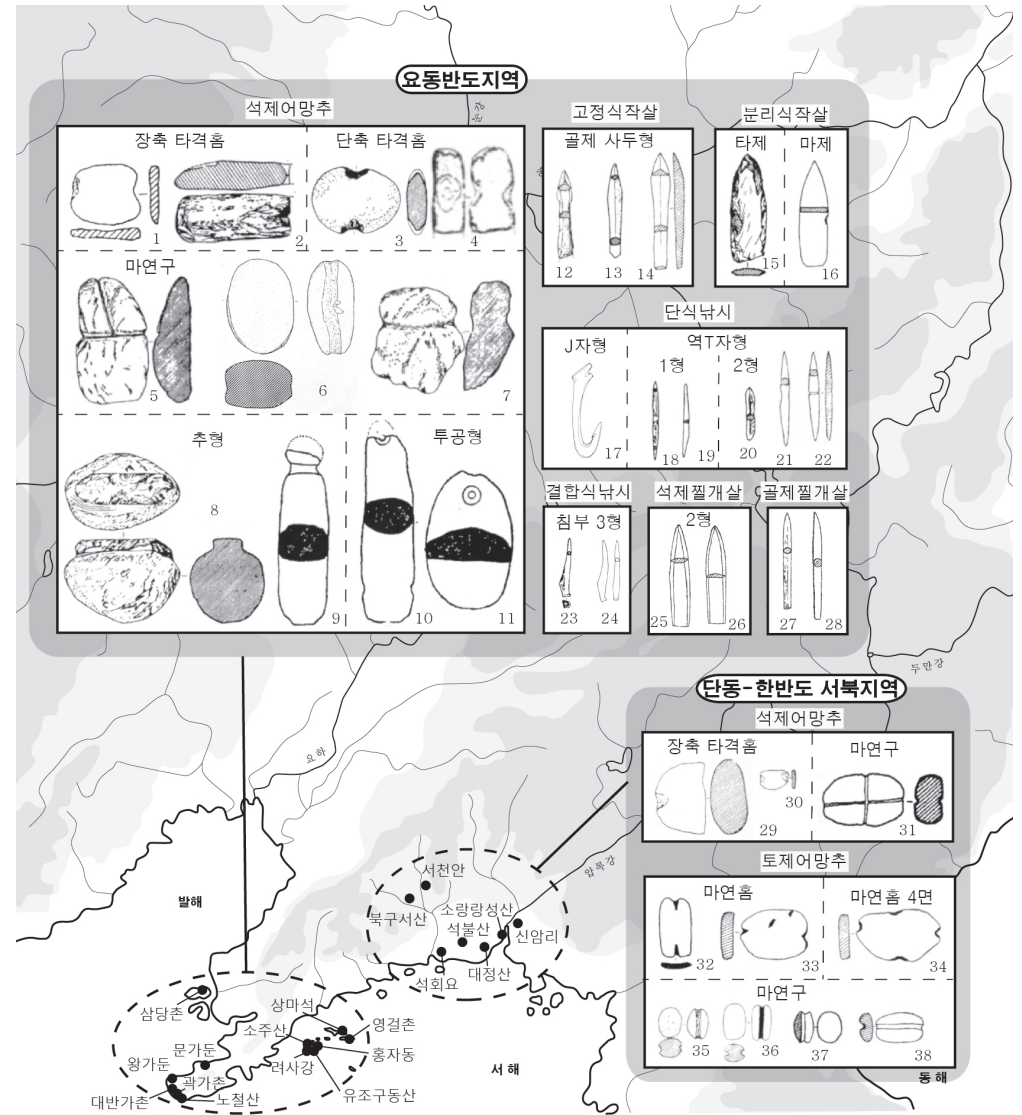
단동-한반도 서북부지역은 돌로 만든 어망추와 빗창만 확인된다. 이 단계의 단동-한반도 서북지역은 전반적으로 물고기잡이 도구의 출토량이 적어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다. 어망추류는 대체로 장축방향의 타격홈이 주로 출토되며,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확인되어 이들이 조합된 자망 등의 존재가 상정된다. 빗창의 존재로 보아 조개류의 채집도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빗창이 출토되는 염타자<sup>4</sup> 유적이 유적 조성 당시에는 요동반도 일대의 최대 해침기로, 이 지역 해안선이 현재보다 최대 14km정도 내륙 쪽으로 상승<sup>5</sup>해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빗창을 활용하여 해산패류를 채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3단계

3단계는 소주산5기와 석불산기, 신암리기에 해당하며, 공간적 양상을 나타낸 것이 <그림 3>과 같다. 3단계는 요동반도와 단동-한반도 서북부지역으로 구분된다.

요동반도지역은 유적분포범위가 2단계와 큰 차이 없지만 어로구가 출토되는 유적 수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다. 어로구 종류는 기존 석제 어망추류, 석제 분리식작살, 결합식 및 역T자형 단식납시에 더해 골제 고정식 작살과 J자형 단식납시가 추가된다. 세부적으로 돌로 만든 어망추는 모양이 매우 다양해지기 때문에 요동반도 지역에 새로운 요소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살류도 고정식에 사두형작살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사두형작살은 한반도 남해안지역에서도 늦은 단계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늦은 단계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한반도와 의 관계는 현재 자료상으로는 불명확하다.



<그림 3> 요동-한반도 서북부지역 3단계 어로구의 양상 (S=1/6)

1-14·21-22·24~26·28.大潘家村 2·7.小珠山 3·8·13-15·16-18·20-23.郭家村 4·12.三堂村 5·10·11·27.上马石 6.文家屯 9.柳条沟东山 17.英杰村 19.蛭碴岗 29-31.石佛山 32.石灰窑 33-34·38.小娘娘城山 35-36.北沟西山 37.西泉眼

3. 한편, 이 결합식조침 침부는 보고서 상에서는 골침Ⅲ형으로 보고되었으며, 甲元眞之(2001)에 의해 결합식조침의 침부로 처음 인식되었다. 곽가촌의 보고서에서는 이 골침Ⅲ형에 대해 두 개의 도면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량은 92점으로 보고하고 있다.

단식납시는 역T자형 외에 미늘이 안쪽에 있는 내기식의 J자형 단식납시가 출토된다. 내기식의 J자형 단식납시는 연해주와 한반도 동북부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요동~연해주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어로구의 제작 전통이다. 사두형작살의 경우도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삼강평원의 신개류문화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다. 결합식납시와 찢개살류의 양상은 2단계와 비슷하며 큰 차이 없다. 다만, 돌로 만든 찢개살은 이전 단계

에서 1형과 2형이 있던 것과 달리 3단계에는 작살 끝부분에 능이 없는 2형만 확인된다. 따라서 석제 찢개살은 작살 끝부분의 능이 긴 것에서 짧은 것으로 변화하여 정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동-한반도 서북부지역은 유적분포범위가 축소된다. 그러나 유적의 밀도는 이전 단계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 지역은 이전 단계들과 동일하게 어로구는 어망추가 대부분이다. 어망추 내에서는 형태적으로 다양화가 일어나 마연구흙 어망추류가 새롭게 등장한다. 어망의 종류는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고 있어 돌로 만든 것과 흙을 구워 만든 것 또는 돌로 만든 것끼리 조합되는 자망이나, 작은 어망추끼리 연결하여 투망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단동-한반도 서북부지역과 본계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돌로 만든 것과 흙으로 만든 어망추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요동반도지역은 소주산 1기부터 5기에 이르기까지 흙을 구워 만든 어망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2. 주변지역 양상 - 요서·산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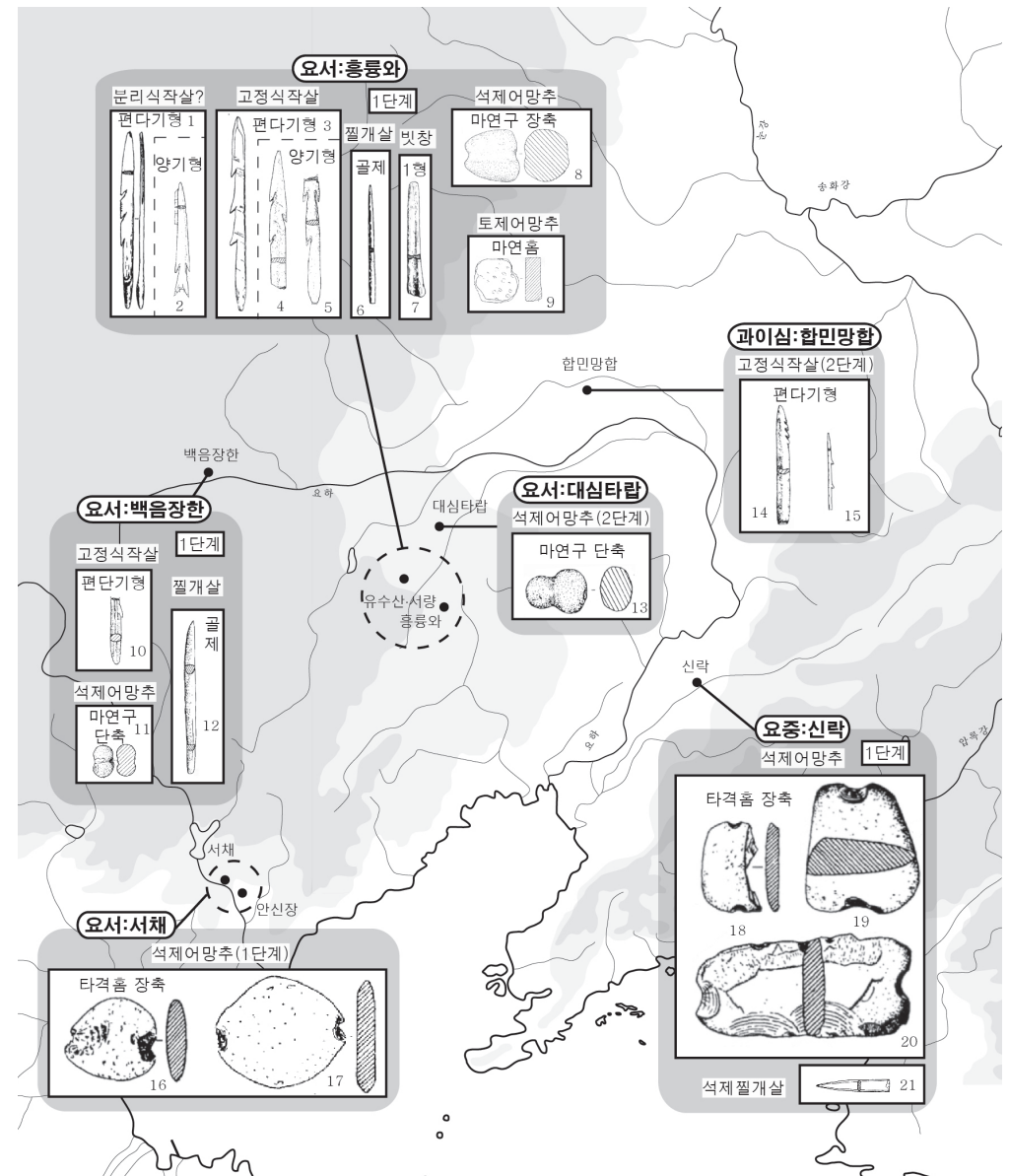
요서-산동반도 지역은 중국의 행정구역 상 요녕성辽宁省·내몽고자치구内蒙古自治区·하북성河北省·산둥성山东省의 일부를 포함한다. 신석기시대 이 지역 문화는 요서지역, 요중지역, 과이심科尔沁지역, 산동반도지역으로 구분된다. 각 지역의 지역적 분기는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sup>2010</sup>·古澤義久<sup>2018</sup>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때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연대 (BC)	산동반도	요서지역	과이심지역	요중지역	길장지구	요동반도	본계지역	압록강 우안 (단동)
6,000	白石村1期	兴隆洼文化						
	邱家莊1期	赵宝溝文化		新乐下层期	左家山1期			
5,000					左家山2期	小珠山1期		后洼下层
4,500	北莊1~2期 (大汶口文化)	紅山文化				小珠山2期	马城子下层 1~4期	后洼上层
						小珠山3期 (吴家村期)		阎砬子期
3,500			哈民忙哈期		左家山3期	小珠山3期 (吴家村期)		
3,000	楊家圈1期 (龙山文化)	小河沿文化	南宝力皋吐 期	东高台山2期		小珠山4期 (偏堡文化)		
2,000?	楊家圈2期 (龙山文化)	夏家店 下层文化		肇工街 下层期		小珠山5期 双砬子1期		石佛山期

<표 2> 요서-산동지역 신석기문화의 시기구분과 요동-길장지역 병행관계

## 1) 요서-과이심-요중지역

요서-산동지역은 보고된 유적 수는 많은 편이지만, 어로구가 확인된 유적은 많지 않다<sup>그림 4</sup>. 이는 요서-산동지역은 기본적으로 초기농경이 주요생업을 차지하고 어로는 보조적인 위치<sup>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2010</sup>참조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물고기잡이 도구가 출토되는 유적 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경향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4> 요서-과이심-요중지역 어로구의 양상 (S=1/6)

1-5:6.兴隆洼 2-4:7-9.榆树山·西梁 10-12.白音长汗 13.大沁他拉 14-15.哈民忙哈 16.西寨 17.安新庄 18-21.新乐

어로구는 먼저, 요서지역의 홍릉와일대에는 작살류와 어망추류, 찢개살과 빗창형 뼈도구가 확인된다. 작살은 편다기형과 양기형의 뼈작살이 출토된다. 사용방식은 고정식 작살의 존재는 확실한데, 분리식의 경우는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다. 홍릉와지역 유적의 분리식 작살로 생각되는 것은 <그림 4-1·2>과 같은 형태이다. 이 작살류의 특징적인 부분은 작살의 첨두부에는 석인石刃이 심어지고 그 아래에 미늘이 위치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작살을 골경석인표骨楔石刃鏃라고 하는데, 홍릉와유적에서 3점, 유수산·서량유적에서 1점이 확인된 바 있어 이 지역유형의 특징적인 작살형태라고 생각된다. 이 형태의 작살 중 경부가 잔존한 유물은 <그림 4-1>이 유일한데, 작살의 아랫부분이 몸통 부분과 달리 볼록한 형태를 하고 있어 분리식 작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정식 작살은 분리식 작살과 종류는 같지만 미늘이 편다기형은 분리식보다 높게 서 있고 간격이 넓으며, 양기형은 미늘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배치가 분리식은 대칭형인데 반해 고정식은 비대칭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홍릉와유적 일대의 작살은 송눈평원이나 연해주, 한반도와는 또 다른 유형의 작살들이 제작되고 있으며, 주변지역들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작살어로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망추류는 돌로 만든 마연구흙과 흙을 구워 만든 마연흙 어망추가 나타나며, 기타 물고기잡이 도구로 뼈찢개살과 빗창형 뼈도구가 있다. 빗창형 뼈도구는 이 지역이 내륙지역이지만 조보구趙寶溝유적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997이나 백음장한유적 등에서 말조개와 같은 민물조개류의 패각도 상당수 발견되는 점에서 볼 때, 이를 채취·가공하는 데에 빗창형 뼈도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서지역의 백음장한유적에서는 뼈작살, 어망추, 뼈찢개살이 출토된다. 골제작살은 편단기형으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작살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살은 같은 단계인 길장지역 좌가산1기의 요정자腰井子유적 출토품<그림 1-4>과도 유사하여 비교적 넓은 지역에 확산해 있던 작살의 형태로 판단된다. 어망추에는 돌로 만든 마연구흙이 있으며, 뼈찢개살도 확인되어 홍릉와 일대와 어로구가 비슷하다.

요서지역의 서채 및 안신장유적에서는 작살류나 기타 어로구는 없고, 장축 타격흙의 어망추가 확인된다. 특히, 서채유적의 어망추는 출토 정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 2,000점 가량의 석제 어망추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지역에서는 어로구가 어망추만 확인되며 상당히 다량이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어망어로 중심의 어로활동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중지역의 신락유적에서도 장축 타격흙의 어망추가 24점으로 다른 유적들에 비해서 많은 수량이 잔존해 있다. 이 외 단동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돌찢개살이 확인되는데, 현재 자료상 돌찢개살의 가장 이른 시기 출토품에 해당한다. 신락유적과 같은 어망추와 돌찢개살의 조합은 단동지역과 한반도 중서부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요중지역과 이

들 지역 간 관계성도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서지역 일대의 1단계 이후의 양상은 자료의 수가 적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현재 알려진 어로구 출토유적은 요서지역의 대심타랍大沁他拉유적과 과이심科爾沁지역의 합민망합哈民忙哈유적이 있다. 대심타랍유적은 요서지역의 홍산문화단계에 해당한다. 대심타랍에서는 단축방향의 마연구흙 어망추가 1점 확인되었는데, 1단계 홍릉와나 백음장한유적에서도 돌로 만든 어망추는 마연구흙의 어망추만 출토되고 있어, 이를 계승한 어망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민망합유적에서는 고정식의 편다기형 뼈작살이 출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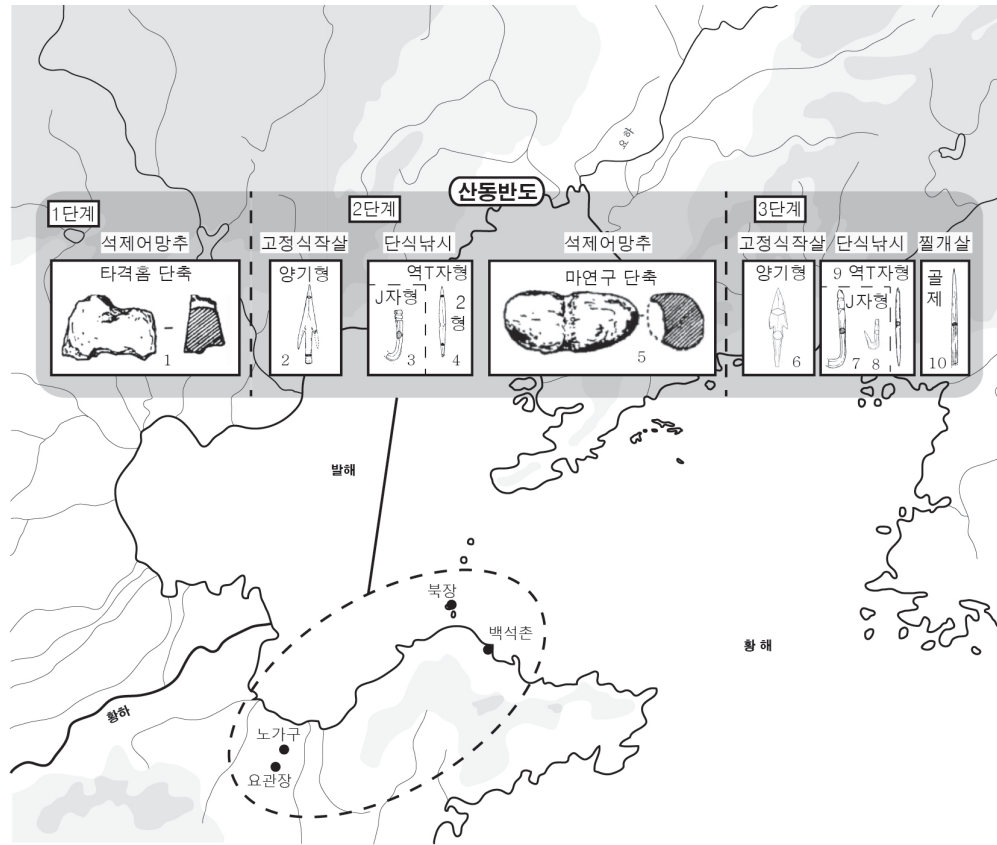
## 2) 산동반도지역

산동반도의 물고기잡이 도구는 요서지역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5>. 산동반도에서 어로구가 확인되는 유적과 어로구의 수는 적지만 1~3단계 전체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로구 변화 추이는 알 수 있다. 산동반도의 1단계에는 백석촌白石村유적 1기문화층에서 출토된 단축 타격흙의 돌어망추가 1점 있다. 이 어망추는 형태가 일반적인 타격흙 어망추와는 다른데, 앞서 살펴본 요동반도의 소주산1기 비정형 어망추들<그림 1-19·20>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는 생업에서도 양 지역이 이른 시기부터 바다를 통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정보와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2단계에는 백석촌2기와 묘도군도廟島群島의 대흑산도大黑山島 북장北庄유적의 북장1기, 노가구魯家口 대문구大汶口문화층에서 어로구가 출토된 바 있다. 도구의 종류에는 고정식 뼈작살, 단식낚시, 돌어망추가 있다. 고정식 작살은 양기형으로 전체적으로 미늘이 길게 뻗은 형태로 요서지역 양기형과는 다른 형태이다. 단식낚시는 J자형과 역T자형이 확인되고 있는데, 2단계 요동반도에서도 역T자형 낚시가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어망추는 마연구흙 어망추가 있는데, 마연구흙 어망추는 1단계부터 요서지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 전체적인 지역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는 노가구와 요관장姚官莊유적의 용산龍山문화기에서 물고기잡이 도구가 출토된다. 3단계는 2단계와 어로구의 구성이 큰 차이 없이 이어진다. 고정식 작살은 양기형으로 2단계와 형태적으로도 거의 동일하며, 단식낚시도 J자형과 역T자형이 모두 나타난다. 이 외 뼈찢개살이 추가되는데, 뼈찢개살의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3단계의 새로운 요소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석제어망추는 3단계에 보고된 것이 없지만 아마도 2단계와 같은 마연구흙의 어망추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마연구흙의 어망추는 요동지역의 3단계에 등장하고 있어 이 역시 산동반도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산동반도지역의 물고기잡이 도구는 어망추류와 단식낚시류 등에서 요동

반도지역과 지속적인 교류관계가 상정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동반도는 소주산5기에 들면 토기 상에서 산동 용산문화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는다. 물고기잡이 도구상에서는 소주산5기에 본격적인 산동반도문화의 유입시기 이전부터 이미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간 활발한 교류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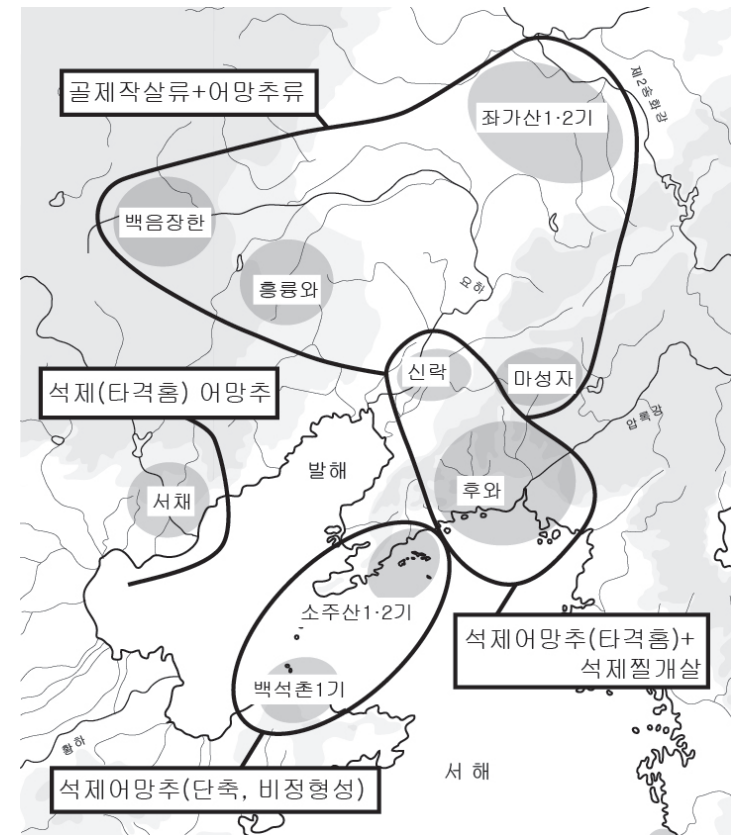
〈그림 5〉 산동반도지역 어로구의 양상 (S=1/6)  
1-2-4-5.白石村 3-7-9-10.魯家口 6-8.姚官莊

## IV. 어로구의 변동요인

### 1. 어로구로 본 지역양상의 변동

이번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단계구분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어로구의 양상과 변화상을 살펴보고 각 지역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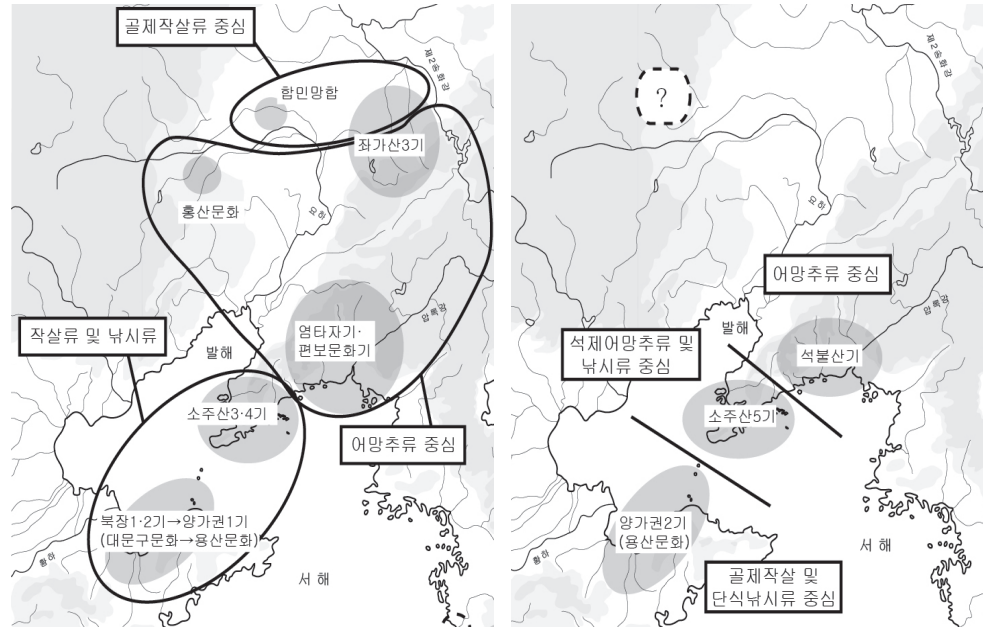
먼저, 1단계 어로구 양상은 〈그림 6〉과 같다. 1단계는 어망추류와 더불어 지역별로 백음장한, 흥릉와 유적이 있는 요서지역과 요동의 좌가산 유적의 길장지역에서는 뼈작살이 어로구 구성에 포함된다.



〈그림 6〉 한반도 서북부일대 1단계 지역양상

신락유적과 후와유적이 있는 요중-단동일대에서는 돌로 만든 어망추에 돌을 갈아 만든 찔개살이 확인된다. 요중지역과 단동지역은 요하와 대릉하 등 비교적 대규모 하천과 인근에 내만환경의 바다가 있어 유적 내 어로구의 수량도 많은 편인데, 이 일대 해역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탁하기 때문에 작살업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요동반도 및 산동반도, 하북성 일대에는 유적의 수가 적고, 어로구도 돌어망추만 확인되는 양상이다.



〈그림 7〉 한반도 서북부일대 2단계 지역양상

〈그림 8〉 한반도 서북부일대 3단계 지역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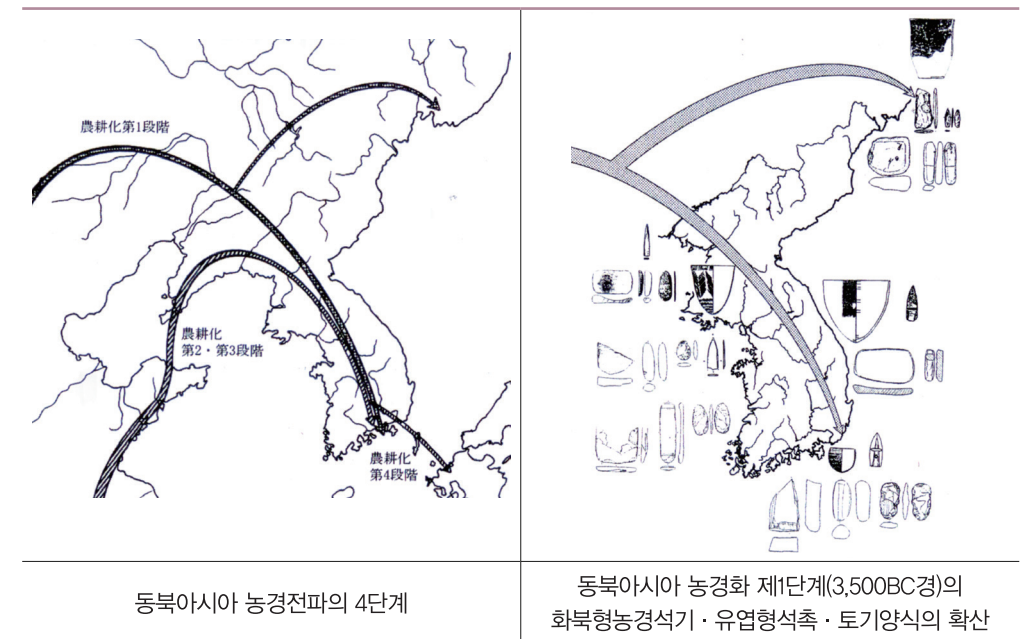
다음으로 2단계 양상은 〈그림 7〉과 같다. 2단계에는 요서일대에서 확인되는 뼈작살의 양상이 불투명해지며, 어로구가 어망추 일색으로 변화한다. 뼈작살은 요동의 좌가산 3기 유적들에서도 북부의 일부 유적에서만 확인되며, 홍산문화에서도 북부일대의 함민망합에서만 뼈작살이 확인된다. 요서일대의 신석기문화는 홍산문화를 중심으로 상당한 문화내용을 보이고 있으나 어로구는 어망추 외에는 상당히 소략하다. 요동지역은 요동반도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망추를 사용한 어로 방식을 선호하는 양상이다.

요동반도지역과 산동반도 지역은 1단계 양상이 불분명했지만, 2단계 들어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의 양상은 다르지만 작살류와 낚시류가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요동지역은 어로구의 구성이 다른 지역과 달리 다양하다는 점이 주목되며, 작살과 결합식낚시의 어로 양상이 나타난다.

3단계 양상은 〈그림 8〉과 같다. 3단계는 2단계의 연속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단동지역은 2단계에 이어 여전히 돌 혹은 흙을 구워 만든 어망추 중심의 어로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요동반도 일대는 2단계에 비해 더욱 활발한 어로 도구들이 관찰된다. 요동반도지역은 어망추의 다양한 형태와 더불어 각종 작살류 및 낚시류와 같은 어로구의 종류와 수량이 가장 풍성하다. 산동반도 일대에서는 자료의 수가 적어 전반적인 어로구의 증감양상은 알 수 없으나, 2단계의 양상이 3단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초기농경의 확산과 어로

앞서 살펴본 내용들에서 비교적 큰 변화양상은 1단계에서 2단계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요서·요동 일대의 곶제작살과 어망추 조성이 어망추 일색으로 변화하는 점, 그리고 요동반도 일대 어로구 조성의 다양화로 요약된다. 연대적으로는 3,500BC경이 획기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생업상의 변동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초기농경의 확산이 가장 많이 다뤄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宮本一夫<sup>2003, 2005, 2010</sup>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동북아시아 농경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그림 9).



동북아시아 농경전파의 4단계

동북아시아 농경화 제1단계(3,500BC경)의 화북형농경석기·유엽형석촉·토기양식의 확산

〈그림 9〉 동북아시아 농경전파와 관련유물의 확산(宮本一夫 2010 도1·도2에서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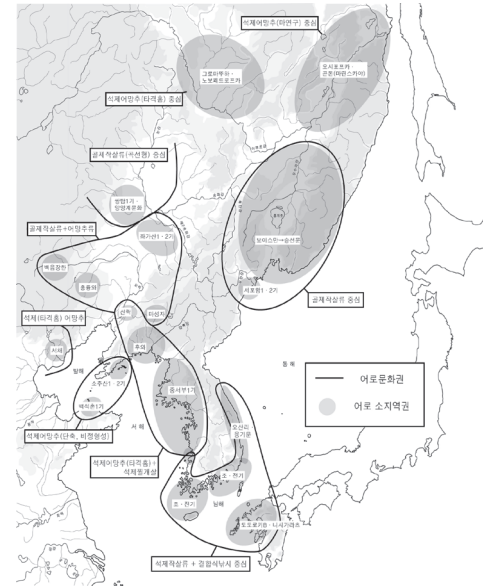
이 중 3,500BC 경에 해당하는 그의 1단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그에 의하면 3,500BC 경 조·수수 농경이 요서지역 갈돌·갈판 및 유엽형 마제석촉으로 대표되는 북형농경석기와 함께 빗살무늬 토기라는 토기양식이 조합되어 한반도에 확산된다. 이는 한반도 뿐 아니라 연해주 남부에도 마찬가지로이며, 요서·요동에서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집임과 요서·요동에서 길장지역을 거쳐 연해주 남부로 확산되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시기 이후 요동반도지역에서도 왕가촌王家村과 오가촌吳家村유적에서 다량의 조·기장·콩류 등의 식물종자가 확인(馬永超 외 2015; 趙美涵 2017)되는 가운데, 농경관련 도구의 극적인 증가상이 관찰되기도 한다(趙美涵 20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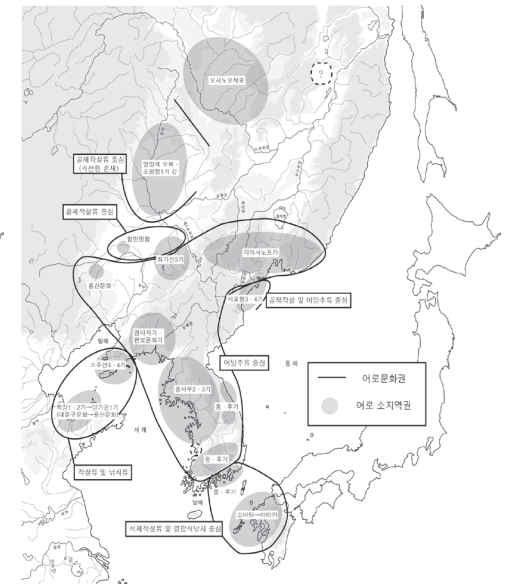
한반도 서북부일대 초기농경의 실시는 요서-요중-단동 일대에 주요 물고기잡이 도구인 어망추의 확산과도 관련된다. 1단계 길장지역과 본계지역의 어로구 조성양상이 단동지역과 유사한 어망추 중심이 되는 변화하는데, 어망추의 형태도 대부분 타격홈이 있으며, 크기도 이전 단계에 비해 대형화되어 어망의 크기도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단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만 국한되는 양상은 아니며, 한반도를 포함한 한반도 동북의 연해주 일대에서도 확인된다(그림 10·11). 즉, 동북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어로구의 조성은 ‘단동지역화’하는 것이다. 단동지역은 요서지역에서 시작된 초기농경문화의 확산이 이르게 이루어진 지역이며, 초기농경과 관련한 어망어로특히 자망이 조합된 생업체계가 일찍부터 자리잡게 된 곳으로 볼 수 있다. 자망은 어망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망에 걸린 포획물을 거두는 설치형 물고기잡이 구조물의 형식으로, 어살 및 돌살과 같이 어류의 이동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초기농경과 유사한 면이 많다. 또한 설치형 어망은 설치·관리·수확에만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릿그물이나 식물성식료의 관리와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 생업의 노동시간 부분에서도 유리하다. 위와 같은 초기농경과 어망어로 조합의 장점 등이 2단계 이후 어로문화의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큰 틀의 양상에서 요동반도는 예외이다. 요동반도 또한 초기농경의 확산과 더불어 어망추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지만, 작살류 또한 증가한다. 이는 요동반도의 지리적위치의 특성상 묘도군도(廟島群島)를 통해 산동반도지역과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듯이 본고의 2단계인 소주산 3기에 요동반도에서도 산동반도계 대문구문화 토기인 분형정(盆形鼎)과 채문토기(彩文土器) 등이 나타나 산동반도의 토기가 요동반도의 토기양식에 일부 포함(古澤義久 2018)되기도 하며, 3단계에는 산동반도의 용산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는 토기가 요동반도 전체에 확산된다.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는 묘도군도를 경유하여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상호 해양교류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초기농경문화가 2단

계에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되지만, 일부 해양교류의 창구 및 거점역할을 하는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본래의 생업방식도 유지된다.



〈그림 10〉 1단계 동북아시아 어로구조성 양상



〈그림 11〉 2단계 동북아시아 어로구조성 양상

## V. 맺음말

이상으로 한반도 서북부일대 어로구의 양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한반도의 서북부일대는 1~3단계의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며, 주변지역 문화의 확산과 생업의 변동에 따라 어로구의 양상도 변화한다. 1단계에는 지역별 고유의 어로문화가 형성되어 다양한 어로문화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후 2단계에서 부터는 어망추를 주로 사용하는 어로 활동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단계는 초기농경의 확산이 어로구상에서도 어망어로 중심으로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단동지역은 요서-요중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초기농경문화가 이른 시기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초기농경문화 확산의 주요 전파 루트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동지역을 거쳐 확산해간 초기농경문화는 기존에 형성된 다양한 어로의 양상을 어망추 중심의 획일화된 어로 양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농경문화에서 보이는 정착적 성격과 자망 등의 설치형 물고기잡이 구조물의 성격이 상호 유사하기 때문에 생업의 노동시간 면에서도 유리하며, 초기농경과 어망어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이상규, 2014, 「신석기시대 한반도 해안지역 작살에 관한 검토」, 『韓國新石器研究』第11號, 韓國新石器學會.
- \_\_\_\_\_, 2016,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어로에 관한 검토」, 『한국고고학보』 100,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7, 「요동지역 신석기시대 어로구에 관한 검토」, 『2017년 신진연구자 논문발표회』, 韓國新石器學會.
- \_\_\_\_\_, 2018, 「길림-흑룡강성지역 신석기시대 어로구에 관한 검토」, 『韓國上古史學報』 100,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20,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어로문화 변동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1, 「신석기시대 한반도 북부지역 생업변화상 검토」, 『嶺南考古學』 91號, 嶺南考古學會.
- 힐러리 스투어트(주강현 역), 2010, 「인디언의 바다」, 블루&노트.
- 趙志軍, 2005, 「粟類作物及中國北方旱作農業起源研究的新資料和新思考」, 『景觀의 考古學』,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제1회 국제학술회의.
- 甲元眞之, 1998, 「環東中國海沿岸地域先史時代漁撈具集成」, 『環東中國海沿岸地域の先史文化』, 下田印刷.
- \_\_\_\_\_, 2001, 『中國新石器時代の生業と文化』, 中國書店.
- 宮本一夫, 1990, 「海峽を挟む二つも地域—山東半島・朝鮮半島南部と西北九州・その地域性と伝播問題」, 『考古学研究』 第37卷 第2号.
- \_\_\_\_\_, 1995, 「遼東新石器時代土器編年の再檢討」, 『東北アジアの考古學研究』.
- \_\_\_\_\_, 2003, 「朝鮮半島新石器時代の農耕化と繩文農耕」, 『古代文化』 第55卷 7号.
- \_\_\_\_\_, 2005, 「園耕과 조몽(繩文)農耕」, 『韓國新石器研究』 第10號, 韓國新石器學會.
- \_\_\_\_\_, 2010, 「일본열도의 문명기원과 교류」, 『동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 古澤義久, 2018, 『東北アジア先史文化の変遷と交流』, 六一書房.
- 大连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大嘴子』, 大连出版社.
- 马永超, 吴文婉, 王强, 张翠敏, 靳桂云, 2015, 「大连王家村遗址炭化植物遗存研究」, 『北方文物』 2015-2.
- 博仁义, 1984, 「大连郭家村遗址动物遗骨」, 『考古學報』 1984-3.
- 史本恒, 2006, 「辽东半岛全新世最大海侵的考古学观察」, 『四川文物』 2006-6.
-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查海 上·中·下』, 文物出版社.
- 赵美涵, 2017, 「辽东半岛地区新石器时代至青铜时代农业产生与发展」, 辽宁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2010, 『中国考古学 新石器时代卷』,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内蒙古工作队, 1997, 「内蒙古敖汉旗兴隆洼聚落遗址1992年发掘简报」, 『考古』 1997-1.
- 许玉林, 1987, 「后洼遗址考古新发现与研究」, 『中国考古学会第六次年会论文集』, 文物出版社.

\*본문인용 외 유적보고는 생략함.

# 2

##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 어로구의 변천과 특징

김은영(부산박물관)

머리말

어로구의 출토양상

한반도 신석기시대 어로구의 동태

남해안지역 어로구의 특징

맺음말

## I. 머리말

약 11,700년 전 지구는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후빙기로 이행한다. 평균 기온이 약 7℃ 정도 오르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와 식생이 급격하게 변하였고, 특히 바다에서는 수온, 해류와 연안 환경의 변화에 의해 조개, 물고기 등이 풍부해졌다. 해양 어류자원의 대부분이 주로 완신세(完新世, Holocene)가 되고 나서 출현한 대륙붕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조개류 자원의 이용과 해양어류에 대한 어로의 본격화는 완신세에 들어서부터라고 생각된다(佐藤 2007). 사냥·채집에 덧붙여 어로가 새로운 생업으로 떠오르고 그 결과 한반도 전역에 걸쳐 패총이 형성된다. 이러한 패총의 형성과 연동하여 각종 어로구가 출현하게 된다.

어로구는 신석기시대를 특징짓는 생업도구 중 하나인 만큼 매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어로구를 이용한 신석기시대 생업 복원, 민족지 또는 실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용방법 복원연구, 일본과의 교류관계 검토 등 연구범위도 다양한 방면에 이른다. 신석기시대의 활발한 어로활동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본, 러시아, 중국의 해안지역에서도 확인되지만, 연구의 결과 어로활동의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한반도 신석기시대 어로구의 출토양상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타 지역과 비교되는 남해안지역 어로구의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어로구의 출토양상

어로구라고 했을 때 대상으로 하는 유물은 연구자마다 다르다. 그 이유는 용도와 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손잡이, 대, 그물 등 유기물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서 어로구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렵구와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같은 형태의 유물이라도 지상에서 포유동물 등을 포획할 때 사용되던 수렵구인 창이 될 것이고, 바다나 호수·하천에서 물고기나 바다 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어로구인 작살로 부른다(砂田佳弘, 1983). 석제·골제 찢개살도 마찬가지이다. 화살촉을 궁시어로와 관련짓는

연구자가 있는 반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자<sup>이영덕 2006</sup>도 있다. 출토 정황상 큰 강이나 호수, 바다 주위의 유적에서만 출토되는 유물이 있다면 어로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리식 작살과 같이 어로구만이 가지는 형태적 특징을 추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 어로구의 동태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기와 지역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어로구를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시기에 따른 어로구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귀속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토양상이 공반토기를 통해 귀속시기가 확실한 자료를 이용할 예정이다. 어로구의 출토양상과 관련해서는 표 1의 편년표를 기준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은 극동 평저토기가 분포하고 있었던 지역이라 이번 논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절대 연대 cal.BC.	시기 구분	중서부지역	중동부지역	남부지역
8,000 7,000	조기			유기물혼입흔토기(고산리식)
6,000 5,000	전중기	구분계토기	적색마연·점열문토기 압날문토기(오산리식) 다치압날·용기문토기	적색마연·점열문토기 용기문토기 자돌압인문토기(영선동식)
4,000 3,000	중기	구분계·동일계토기	구분계·동일계토기 태선침선문토기(수가리 I 식)	압날단사선문토기(살내식) 태선침선문토기(수가리 I 식)
2,000	후기	동일계토기	동일계토기	(연속)점열·(퇴화)침선문토기(봉계리·수가리 II 식) 이중구연토기(수가리 III 식)

〈표 1〉 대상지역 편년표

## 1. 결합식납시

결합식납시는 한반도 신석기시대 어로구를 대표하는 매우 특징적인 유물이다. 납시축과 침을 따로 제작·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다가, 2000년 울산 세죽유적 발굴 조사에서 석제축과 골제침이 공반 출토됨으로써 신석기시대 당시의 실제 사용방법이 증명되었다. 결합식납시는 주로 동남부지역의 해안과 도서지역에서 출토되지만, 춘천 교동과 창

녕 비봉리와 같은 내륙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축부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안을 토대로, 결합식납시의 결합방식을 결정하는 결합부 형태와 전체 평면 형태,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출토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면 형태는 J자형<sup>도면 1-2·8·19·20</sup>, C자형<sup>도면 1-1·3</sup>, I자형<sup>도면 1-25</sup>으로 구분된다.

각 평면 형태는 결합부의 형태에 따라

- 결구가 없는 것<sup>도면 1-8</sup>을 무결구<sup>표 2의 '무'</sup>
- 침부를 접합하는 면 뒤쪽에 홈을 내어 결합하는 것<sup>도면 1-19·26</sup>을 홈결구<sup>표 2의 '홈'</sup>
- 접합면 뒤쪽에 돌출되거나 각진 단을 형성한 것<sup>도면 1-20</sup>을 단결구<sup>표 2의 '단'</sup>

로 분류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J자형이 가장 많고, I자형, C자형 순으로 나타난다. J자형은 중동부지역과 남부지역 모두 분포하는 반면, C자형은 중동부지역, I자형은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골·패제축부는 재질의 특성상 J자형으로 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C자형과 I자형이 대부분이다.

결합부 형태의 경우, J자형과 I자형 축부는 모든 결합방식이 다 보이는 반면, C자형 축부에는 단을 만들어 결합시키는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면 J자형 무결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홈결구와 단결구는 남부지역에서 많이 출토된다. I자형은 주로 홈결구로 만들어지며, I자형 단결구의 경우 J자형 단결구와의 구분이 매우 어려운데 제작 시에 의도치 않게 생긴 변이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축부의 출토양상을 시기적으로 살펴보겠다. 축부의 시기별 출토양상은 결합식납시의 전개, 대외교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까지 석제축부는 적색마연·점열문토기, 압날문·오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자돌압인문·영선동식토기, 즉 광구토기군과 공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에 중기로 편년된 강릉 초당동, 부산 동삼동 5층과 가덕도 장항, 통영 옥지도, 여수 경도 등에서는 해당 층에서 중기의 침선문계토기<sup>태선침선문토기, 구분계·동일계토기</sup>뿐 아니라, 압날문토기와 용기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경우 침선문계토기가 단독으로 출토되는 수많은 유적에서 석제축부가 출토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압날문·용기문토기 시기에 귀속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석제축부는 그 이후 시기의 토기<sup>동일계토기, (연속)점열문, 퇴화침선문, 이중구연토기</sup>와도 공반사례가 없다.

반면, 골·패제축부는 통영 연대도 T피트 Ⅲ층과 완도 여서도유적에서 용기문토기와 확실히 공반하고,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 2층에서는 이중구연토기와 공반한다. 통영 연대도에서 출토된 석제축부를 똑같이 모방한 골제축부는 형식학적으로도 석제축부와 공존을 말해주며, 보완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녕 비봉리 제1패층과 군산 노래섬 가지구 3층에서 출토된 골제축부는 자돌압인문·영선동식토기에 공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다시 상술하겠다.

출토지	재질	총수량	평면 형태 및 결합부 형태									공반토기	참고문헌	
			J자형			C자형			I자형					
			무	홈	단	무	홈	단	무	홈	단			
고성 문암리	1998~2002년 조사, IX~VII-1층	석	65	42	1							압날문(오산리식), 다치압날, 용기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2010~2012년 조사, 2호 노지·X II층	석	3	2								압날문(오산리식), 다치압날, 용기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2020년 조사, 토기군	석	8	4	1							압날문(오산리식), 용기문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2	
속초 대포동 외옹치	석	12	5	2								압날문(오산리식)	강원문화재연구소 2015	
양양 용호리	석	3	1									압날문(오산리식), 용기문, 구분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양양 오산리C 조기문화층	석	34	2			8						적색마연, 점열문		
양양 오산리A V층	석	35	13				1					압날문(오산리식), 용기문	서울대학교박물관 1984	
양양 오산리C 3~6호주거지, 용기문토기문화층, 저습지	석	36	3		5							압날문, 용기문, 두립문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양양 오산리A III층	석	2	2									다치압날문, 용기문	서울대학교박물관 1984	
춘천 교동	석	1	1									압날문(오산리식)	한국고고학회 1968	
강릉 초당동 II 287-14번지	석	1	1									평저완, 압날문, 구분계·동일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강릉 초당동 II	석	1										압날문, 구분계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강릉 초당동 V	석	4							2			압날문, 동일계	예맥문화재연구원 2012	
울진 죽변 새뜰마을(등대지구)	석	6	4				1					적색마연, 압날문, 두립문, 용기문	삼한문화재연구원 2019	
울진 죽변 중로3-3호선	석	34	7		3							적색마연, 두립문, 용기문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울진 죽변리 15-68번지	석	10	5	1								압날문(오산리식), 용기문	삼한문화재연구원 2015	
울산 세죽	석	41	7	3	6							용기문, 압날문, 두립문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7	
울산 우봉리	석	2										용기문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7	
울주 신암리 제3지구	석	4			1							용기문, 두립문	신종환 1989	
울주 신암리(부경)	석	59	12	3	9					1		용기문, 압날문, 두립문	부경문화연구원 2017	
부산 기장 월내리	석	9		2	1						4	용기문, 두립문	부산박물관 2007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9~7층	석			1	1							용기문, 압날문	부산박물관 2007	
부산 동삼동태종대진입도로	석	5	1	2								용기문, 두립문, 태선침선문	경성대학교박물관 2006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5~4층	골 석	1 4								1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퇴화침선문	부산박물관 2007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 2층	패	1				1						이중구연	부산박물관 2007	
부산 동삼동 III 4층	골	1									1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국립중앙박물관 2004	
부산 동삼동 I~III	석	5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퇴화침선문, 이중구연	국립중앙박물관 2004·2005	
부산 범방패층 13~7층	석	6		1	1						1	1	용기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6
부산 범방패층 6·5층	석	3	1									1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6
부산 범방유적 6층	석	9		3	1							3	용기문, 자돌압인문, 압날단사선문	부산박물관 2009

출토지	재질	총수량	평면 형태 및 결합부 형태									공반토기	참고문헌		
			J자형			C자형			I자형						
			무	홈	단	무	홈	단	무	홈	단				
부산 범방유적 A지구 6-2·7층, B지구 溝	석	12		3	2							5	용기문	부산박물관 2009	
부산 가덕도 장항 VIII층	석	1										1	용기문, 자돌압인문, 압날단사선문, 태선침선문	한국문화연구원 2014	
부산 죽림동 제3-B피트13층	석	1	1										용기문		
장영 비봉리 제2패층	석	1		1									용기문	국립김해박물관 2008	
장영 비봉리 제1패층	석 골	5 1										1 1	자돌압인문, 용기문, 압날단사선문	국립김해박물관 2008·2012	
통영 연대도 T III층	골	1										1	용기문	국립진주박물관 1993	
통영 연대도 J IVd·P~U II층	석	7	1										자돌압인문, 용기문	국립진주박물관 1993	
통영 옥지도 H 1층	석	1											용기문, 자돌압인문	국립진주박물관 1989	
통영 옥지도 G4 조기비층	골	2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국립진주박물관 1989	
여수 안도 1층	석	3	1		1								적색마연, 점열문, 용기문	국립광주박물관 1989	
여수 돌산상도	석	1											용기문, 자돌압인문, 이중구연	국립광주박물관 1989	
여수 경도 내동패층 5층	석	3										1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퇴화침선문, 점열문(봉계리식)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완도 여서도	석 골 패	19 4 7										1	용기문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제주 사계리 4층	석	1											용기문, 자돌압인문, 점열문(봉계리식)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신안 가거도	석	1	1										용기문, 자돌압인문, 점열문(봉계리식), 이중구연	국립광주박물관 2006	
군산 가도 A패층 4층	골	1											구분계·동일계, 이중구연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군산 노래섬 가지구 3층	골	1										1	구분계, 구획반복문	이영덕 1999	
군산 노래섬 가지구 2층	골	1											1	자돌압인문(영선동식), 구분계, 동일계, 이중구연	이영덕 1999

〈표 2〉 결합식납시 축부의 출토양상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 2층에서 이중구연토기에 공반하여 출토된 패제축부도면1-66는 무결구식으로, 용기문토기에 공반하는 완도 여서도유적의 홈결구 패제축부도면1-26와는 형태가 다르다. 또, 침부와 결합부가 동삼동 정화지역 2층 출토품은 측면에 마련된 반면, 여서도 출토품은 정면에 만들어졌다. 용기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 사이에는 3,0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학적 차이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침부도 기존 연구에서의 분류안을 토대로 결합방식에 따라 먼저 정면결합식, 측면교차식, 상하결합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결합부 형태를 기준으로 정면결합식의 경우, 절구가 없는 것<sup>도면1-14·17</sup>을 ‘무’, 측부와 접합면 뒤쪽이나 접합부 상하에 홈을 낸 것<sup>도면1-18·23</sup>을 ‘홈’, 접합부 상하 또는 아래쪽으로 돌출된 단을 만든 것 중 측부와 침부 사이의 각도가 45° 이하인 것<sup>도면1-24</sup>을 ‘단(45° ↓)’, 45° 보다 큰 것<sup>도면1-55·62·63</sup>을 ‘단(45° ↑)’으로 구분하였다. 측면교차식의 경우도 무절구와 홈절구<sup>도면1-64</sup>로 분류하여 출토양상을 살펴보았다.

또 <표 3>에서는 미늘의 위치가 안쪽에 있는 내기식<sup>內鐵式</sup>은 ‘내’, 바깥쪽에 있는 외기식<sup>外鐵式</sup>은 ‘외’, 미늘이 없는 무기식<sup>無鐵式</sup>은 ‘무’로 표시하였다. 미늘의 위치만 알 수 있는 것은 비교란에 기재하였으며, 미늘이 다기식<sup>多鐵式</sup> 2개인 상노대도 출토품<sup>손보기 1982의 그림31-하단 중간</sup>은 결합 방식을 알 수 없어 비교란에 ‘다’로 기재하였다. 후기 이후의 침부가 대부분 외기식인 것을 제외하면, 결합방식이나 결합부 형태와 미늘의 방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침부의 시기적으로 확실한 공반사례는 용기문토기·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토기와</sup> 점열문<sup>봉계리식</sup>·퇴화침선문토기~이중구연토기 시기로 나뉜다. 용기문토기에는 정면결합식 무절구와 홈절구, 45° 이하 단결구 형식이 공반된다. 울산 세죽유적을 비롯하여, 동삼동패총 9~7층, 범방패총 13~11층, 통영 연대도 P~U피트 Ⅲ층, 여수 돌산송도 2차조사구역 Ⅲ-c층, 완도 여서도에서 용기문토기와 공반관계가 확인된다.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토기</sup> 시기의 공반사례는 창녕 비봉리 제1패층을 들 수 있고, 군산 노래섬 가지구 3층 출토품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45° 이상 정면결합 단결구식의 경우, 사천 구평리유적 출토품을 통해 점열문<sup>봉계리식</sup>·퇴화침선문토기~이중구연토기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형식이 통영 상노대도, 여수 거문도, 신안 가거도, 제주 하모리, 군산 노래섬 가지구 2층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적들에서는 다양한 시기의 토기가 혼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점열문<sup>봉계리식</sup>·퇴화침선문토기,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므로, 45° 이상 정면결합 단결구식을 후기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까지 측면교차식은 동삼동패총에서만 출토된다. 부산박물관 발굴구역인 정화지역 2층에서 이중구연토기와 확실하게 공반되고, 국립중앙박물관 발굴구역에서는 거의 모든

1. 통영 옥지도 돌무지아래층의 경우 용기문토기, 자돌압인문(영선동식)토기, 태선침선문(수가리식)토기만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옥지도 유적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봉계리식토기와 퇴화침선문토기, 이중구연토기도 출토되었다. 따라서 옥지도에서 출토된 45° 이상 정면결합 단결구식 침부도 후기에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인수도 이 형식의 침부를 후기 이후로 추정할 바 있다(하인수 2006).

출토지	재질	층수 량	결합방식 및 결합부 형태						비고	공반토기	참고문헌
			정면결합			측면교차		상하 결합			
			무	홈	단(45° ↓)	단(45° ↑)	무				
울산 세죽		9	내3	내2					무3	용기문, 압날문, 두립문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2007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9~7층	골	3	내1	외2						용기문 부산박물관 2007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 1주	골	1					외1			용기문, 자돌압인문(영선동), 태선침선문 부산박물관 2007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5~4층	골 아	1 2	내1						외2	용기문, 자돌압인문(영선동), 태선침선문 부산박물관 2007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 2층	각 아	1 1					1		외1	이중구연 부산박물관 2007	
부산 동삼동 I 5층		4		외2 1		1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퇴화침선문 국립중앙박물관 2005	
부산 동삼동 I~Ⅲ		10	1	내1 3				외1 무1	외1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퇴화침선문, 이중구연 국립중앙박물관 2004·2005	
부산 범방패총 13~11층	골	7		내3 4						용기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6	
창녕 비봉리 제1패층	아	1		1						자돌압인문, 용기문, 압날단사선문 국립김해박물관 2008	
통영 연대도 P~UⅢ층	골 아	5 1		내1,3 1					내1	용기문 국립진주박물관 1993	
통영 옥지도 돌무지아래층	각	1				외1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국립진주박물관 1993	
통영 상노대도 V~Ⅱ층	아	5			외1	외2		외1	다1	용기문,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 이중구연 손보기 1982	
사천 구평리	골	1				외1				점열문(봉계리식), 사격자문, 퇴화침선문, 이중구연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3	
여수 돌산송도 Ⅱ Ⅲ-c층	골	1	외1	내1						용기문 국립광주박물관 1990	
여수 안도 I층		5	5							적색마연·점열문, 용기문 국립광주박물관 2009	
여수 거문도	아	1				외1				용기문, 점열문(봉계리식), 조우문(?) 김건수·이순엽 1999	
완도 여서도	골 배	43 3	내4 외1 무1 1	내4 외1 12	내5 4				내1	용기문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제주 하모리	아	3				3				이중구연, 자돌문(?) 제주문화예술회계단 2006	
신안 가거도		3	내1			외2				용기문, 자돌압인문, 점열문(봉계리식), 이중구연 국립광주박물관 2006	
군산 가도 A패층 1층	골	1		내1						자돌압인문(영선동식), 구분계, 통일계, 이중구연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군산 노래섬 가지구 3층	골	1		내1						구분계, 구획반복문 이영덕 1999	
군산 노래섬 가지구 2층	골	3		내1		1				자돌압인문(영선동식), 구분계, 통일계, 이중구연 이영덕 1999	

<표 3> 결합식식니 침부의 출토양상

시기의 토기가 출토되는 층에서 확인되었다. 다만, 정화지역 1호 주거지에서는 용기문,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sup>, 태선침선문<sup>수가리1식</sup>토기와 함께 측면교차식 침부가 출토되어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상노대도에서 유일하게 출토된 상하결합식은 일본 큐슈지역과의 병행관계를 근거로 이중 구연토기에 공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출토양상을 토대로 축부와 침부의 결합관계를 살펴보겠다. 광구토기군에 공반하는 축부는 석제의 경우 정면결합식이며, 동삼동·비봉리·연대도에서 출토된 골제축부, 여서도에서 출토된 패제축부도 정면결합식이다. 침부도 용기문토기와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sup>토기에 공반하는 것이 모두 정면결합식이므로, 축부와 침부의 결합관계가 정합적이다.

후기 이후에는 축부의 경우 확실한 사례가 측면결합식 패제축부만 확인되는 반면, 침부는 정면결합식과 측면교차식이 확인되었고 상하결합식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측면결합식 패제축부와 측면교차식 침부가 후기 이후에 출현한 것은 매우 정합적이지만, 정면결합식과 상하결합식 침부와 결합하는 축부의 부재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직 출토되지 않았거나 나무와 같이 전혀 다른 재질의 축부가 사용되었을 가능성 등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2. 작살

작살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찢어서 잡는 도구로, 재질에 따라 석제와 골제로 나눌 수 있다. 석제작살에는 타제와 마제가 있으며 크기에 따라 각각 석촉형과 석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골제작살은 사용방식에 따라 고정식 작살과 회전식 작살로 구분하는 경우<sup>하인수 2006</sup>와 형태에 따라 편기형, 사두형, 양기형, 여서도형, 회전식작살로 구분하는 경우<sup>이상규 2014</sup> 등이 있다. 석제와 골제작살 전체를 고정식과 분리식 작살, 찌르개<sup>찌개살</sup>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sup>배형근 2019, 이상규 2020</sup>.

작살을 고정식과 분리식으로 구분하는 분류는 자루에 고정하는지 아니면 자루에서 분리되는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러시아 연해주 보이스만2유적에서 여서도의 미늘 달린 골제작살과 유사한 형태<sup>2</sup>가 중간자루<sup>中柄</sup>와 같이 출토되었는데,

2. 여서도의 미늘 달린 골제작살은 미늘이 좌우 측면으로 벌어진 반면, 보이스만2 유적 출토품은 미늘이 등면으로 벌어진 점에서 약간 다르지만, 크기는 6cm 전후로 유사하다.

골제작살은 중간자루에 고정하고 중간자루가 자루로부터 분리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런 경우 여서도의 작살을 고정식으로, 보이스만2유적의 작살을 분리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또, 분리식작살로 구분된 마제석창형 작살 중 구멍이 있는 석기<sup>본고</sup>에서는 有孔尖頭器에 대해, 구멍이 회수용인지 자루 고정용인지 논란이 있다<sup>하재명 2015</sup>. 마제석창형 작살의 구멍은 자루 고정용으로 정리되는 듯 하지만<sup>이상규 2020</sup>, 오호츠크해 연안의 분리식작살의 침두부분<sup>端刃</sup>처럼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큰 것 같다<sup>3</sup>.

따라서 여기서는 재질과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특징적인 형태와 시공간적 분포를 가지는 작살에 한하여 그 출토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석제작살

### (1) 유공침두기<sup>有孔尖頭器</sup>

신부<sup>身部</sup>에 하나 또는 다수의 구멍을 뚫은 마제석창형 석기를 말한다. 평면 형태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양쪽 날부분 전체를 뾰족하게 마연하였으며, 기부<sup>基部</sup> 형태는 평기형과 삼각만입형이 있다. 크기는 4.9~11cm 정도이다.

유공침두기의 가장 이른 사례는 양양 오산리C의 조기문화층 출토품이다. 적색마연, 점열문토기와 공반하는 가장 확실한 예가 된다. 총 12점 중 완형 1점<sup>도면1-4</sup>의 크기는 길이 4.9, 너비 2.8, 두께 0.5cm, 무게 8.0g인데, 유공침두기 중 소형에 속한다. 대형은 기부의 너비가 4.9cm이다<sup>도면1-5</sup>. 적색마연·점열문과 용기문토기가 출토된 여수 안도패총 I 층과 무문양 평저토기가 출토된 II 층에서 검출된 유공침두기 2점도 이 단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I 층 출토품<sup>도면1-16</sup>은 1992년 지표조사 당시 채집된 4공침두기<sup>국립광주박물관 1994의 도면 12-1</sup>와 같은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울진 죽변리II의 3구역 V-2층 출토품<sup>삼한문화재연구원 2019의 도면 30-212</sup>도 이 단계에 해당하거나 약간 늦게 볼 수 있겠다.

다음 단계인 압날문<sup>오산리식</sup>토기에 공반하는 것으로, 오산리A V-3층과 속초 대포동 외용치 출토품이 있으며, 이와 거의 병행하는 남부지역 용기문토기 단계에 울주 신암리, 고성 문암리<sup>도면1-10</sup>에서도 압날문<sup>오산리식</sup>토기 또는 다치압날문토기에 공반하는 유공침두기가

3. 선사~고대에 오호츠크해 연안에서 확산되었던 분리식작살[錐頭]은 전체 크기가 10cm 내외로 석제 침두부분[端刃]은 3~5cm 정도인데 반해(高橋健 2008), 한반도에서 출토된 '마제석창형 작살'의 크기는 6~15cm 정도이다.

출토되었다. 용기문토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가덕도 장항유적 36호 인골의 부장품으로써 길이 5.7cm의 유공침두기가 출토된 바 있으며<sup>도면1-31</sup>, 통영 연대도 J피트 IVd층의 1호 인골 가슴부분에서는 날이 마연되지 않은 상태의 유공침두기가 출토되었다.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토기</sup>가 주체인 울산 황성동유적의 A구간 VII-1층에서도 유공침두기가 1점 출토됨으로써<sup>도면1-41</sup> 용기문토기 단계에 이어 영선동식토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범방패총 6층에서도 1점 출토되었는데, 태선침선문토기보다는 용기문토기나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토기</sup>에 공반할 가능성이 있다. 군산 가도 10층에서도 유사한 석기<sup>충남대학교박물관 2001의 도면 78-949</sup>가 출토되어 석창으로 보고되었다. 이 유물은 형태가 유엽형이고 길이 5.8cm, 너비 2.1cm, 두께 0.6cm이다. 보고자는 같은 층에서 마제석촉이 다수 출토되므로, 석촉의 변이로 이해하였다. 이상규<sup>(2020)</sup>는 마제작살로 보고 결합식조침과 함께 남부지역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토기</sup>의 영향으로 파악하였다. 이 유물은 선단부에서 2/3 지점까지 중앙에 능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 선단부에만 능이 짧게 형성된 석촉과 형태상 구분되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석촉의 변이보다는 유공침두기로 판단되며, 이상규의 의견과 같이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토기</sup>와 같이 확산된 작살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평면 형태가 이등변삼각형이고 신부에 구멍을 뚫은 마제 유공침두기는 광구토기군의 전지역과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유공침두기와 형태적 특징이 거의 동일한 석촉 또는 석창이 영월 연당 피난굴 1굴 교란층, 영월 공기2굴, 평창 용항리 34호 야외노지에서 출토되었다. 평창 용항리 유적은 늦은 단계의 동일계 침선문토기가 출토되는 단순시기 유적으로 보이며, 영월 공기2굴은 용기문토기 2점을 제외하면 늦은 단계의 동일계 침선문토기가 주체를 이루고 있다. 영월 연당 피난굴 1굴의 경우 교란층에서 출토되었지만, 1굴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토기는 모두 늦은 단계의 동일계 침선문토기이다. 따라서 이 석기는 침저토기군의 가장 늦은 단계에 내륙지역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이며, 광구토기군의 유공침두기와 계통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는다. 이 석기를 어로구로 볼 것인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유사한 석기가 내륙에서 출토되었다는 이유로 광구토기군의 유공침두기를 어로구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2) 조합식작살

조합식작살은 거치상 침두기와 석거를 조합한 자돌어구이다.

- 인부를 크게 박리하여 톱날을 만든 것
- 인부를 잘게 박리하여 톱날을 만든 것

으로 구분된다. 인부를 크게 박리한 것은 흑요석 외에도 혈암, 사누카이트 등 다양한 석재로 제

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출토된 자료에 한해서는 인부를 잘게 박리한 것은 모두 흑요석제이다.

먼저, 광구토기군에 공반하는 거치상 침두기+석거에 고성 문암리 출토품을 대표로 하여, 울주 신암리, 일본 쓰시마<sup>對馬島</sup> 코시다카<sup>越高</sup>유적 출토품이 포함된다. 모두 인부를 크게 박리하여 톱날을 베푼 것이 특징이다. 고성 문암리에서는 압날문<sup>오산리식</sup>이 주체인 VII-2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침두기와 석거가 세트로 검출되었다<sup>도면1-9</sup>. 보고서에서는 석재가 흑요석이라고 기술하였으나, 사진상으로는 흑요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용기문토기 단계인 울주 신암리에서는 침두기만 총 9점 출토되었다<sup>도면1-22</sup>. 그 중 흑요석제가 5점이며, 나머지는 사누카이트제다. 세밀한 조정이 가능한 흑요석으로 만들어도 톱날을 크게 박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용기문토기인들에 의해 형성된 대마도 코시다카<sup>越高</sup> 유적에서는 혈암제 거치상 침두기가 1점 출토되었다.

그 외 시기 미상의 흑요석제 석거와 거치상 침두기가 있다. 석거는 부산 동삼동 정화지역과 여수 안도의 교란층에서 각각 1점 출토되었고, 동삼동 I의 1층에서 1점, 동삼동 II의 2층에서 2점, 상노대도 II층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자루에 삽입되는 면이 둥근 것과 직선적인 것이 있다. 상노대도 II층에서는 거치상 침두기가 1점 출토되었다. 이들은 모두 인부를 잘게 박리하여 톱날을 만들었고 석재가 모두 흑요석이다. 동삼동 I의 1층과 동삼동 II의 2층에서는 모두 용기문, 영선동, 태선침선문,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상노대도 II층의 경우 태선침선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므로 태선침선문토기 이후, 즉 침저토기군에 공반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 (3) 찢개살

석제 찢개살은 자돌구<sup>刺突具</sup>의 일종으로 물고기를 찢러서 잡는 도구이며, 전면 마연되었으며 마제석촉과 달리 역자<sup>逆刺</sup>가 없고, 길이 8cm 이상이 되어야 한다<sup>최경웅·문수균 2013</sup>.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원형이거나 기부가 잔존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 때문에 광구토기군 분포권에서는 고성 문암리1 VII-2층 출토품<sup>도면 1-11</sup>이 유일한 사례이며, 신부가 직선적인 것이 특징이다.

침저토기 분포권에서는 봉산 지탑리 2호 주거지<sup>도면 1-45·46</sup>, 평양 금탄리, 인천 운서동·남북동<sup>도면 1-50</sup>, 고성 문암리2 2호 주거지<sup>도면 1-72</sup> 등에서 출토되었다. 신부가 매우 약하게 곡선을 띠고 있으며 선단부에 능선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다.

## 2) 골제작살

골제작살은 미늘이 있는 유기식<sup>有鐵式</sup>과 미늘이 없는 무기식<sup>無鐵式</sup>으로 나눌 수 있다. 유기식은 다시 자루 끝에 꿰는 방식과 자루 측면에 묶는 방식이 있다.

자루 끝에 꿰는 유기식 작살 중 광구토기<sup>光丘土器</sup>·용기문토기<sup>甕器文土器</sup>에 공반하는 형태는 범방패총 11층과 연대도 U피트 3층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도면 1-21·29</sup>. 양자 모두 미늘이 뾰족하게 형성되어 있는 역자식이다.

반면, 사두형은 가덕도 장항유적 VI층 51호 집석유구에서 출토된 것<sup>도면 1-67</sup>이 태선침선문 토기에 공반하고, 동삼동 정화지역 2층에서는 이중구연토기에 공반하므로<sup>도면 1-70</sup>, 사두형 골제작살은 첨저토기<sup>첨저土器</sup>군 수가리문화의 어로구를 이루는 하나의 기종이 된다.

이러한 광구토기<sup>光丘土器</sup>군과 첨저토기<sup>첨저土器</sup>군에 공반하는 골제작살의 형태적 차이가 확정적인 것으로 될지, 향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보고자 한다.

한편, 영월 공기2굴에서는 미늘이 양쪽으로 5개씩 만들어진 다기식<sup>多鐵式</sup> 골제작살이 출토된 바 있다<sup>국립중앙박물관·국립춘천박물관 2013의 그림14-①</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기2굴에서는 용기문 토기 2점과 늦은 단계의 동일계 침선문토기가 다수 출토되어 첨저토기<sup>첨저土器</sup>군에 공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향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루 측면에 묶는 유기식 작살은 ‘여서도형’이라 불리는 골제작살이다<sup>도면 1-27·28</sup>. 이러한 형태의 작살은 여서도 외에 신안 가거도, 여수 거문도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여서도에서는 용기문토기에 확실히 공반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 외 유적에서는 다양한 시기의 토기가 혼재하므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첨저토기<sup>첨저土器</sup>가 출토되는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서도형’ 골제작살은 광구토기<sup>光丘土器</sup>군 시기에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늘이 없는 무기식 골제작살은 고래뼈에 박혀서 출토된 울산 황성동A구간 VI-2층의 2점<sup>도면 1-39·40</sup>이 가장 대표적이다. VI-2층에서는 자돌압인문<sup>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sup>영선동식</sup>토기가 주체이므로 광구토기<sup>光丘土器</sup>군 시기에 해당된다. 첨저토기<sup>첨저土器</sup>군의 무기식 골제작살로는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2층 출토품<sup>도면 1-71</sup>이 있다. 무기식 작살 자체의 형태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자간의 형태적 차이가 그다지 간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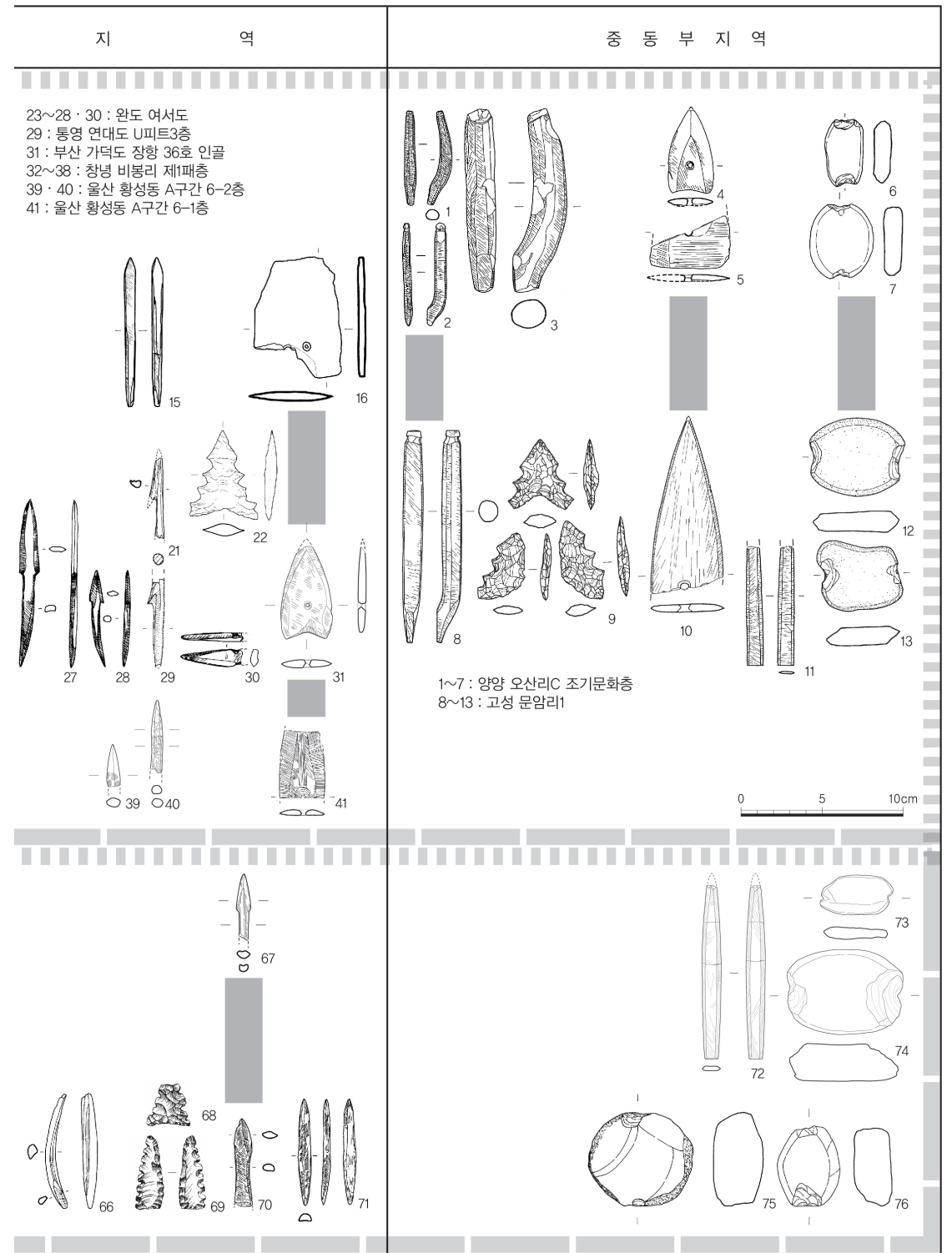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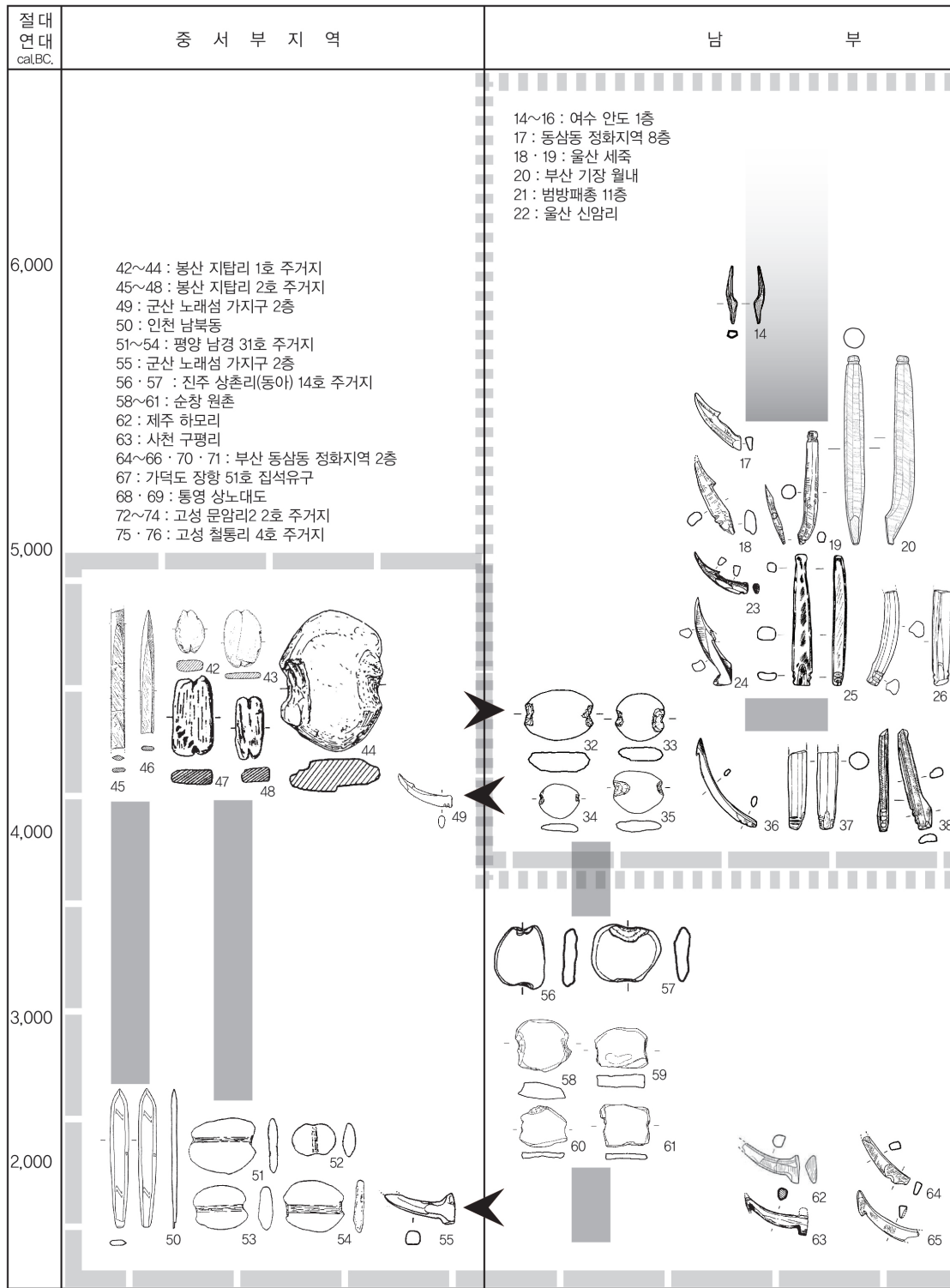
## 3. 어망추

어망추는 강돌의 양끝을 타격하여 홈을 낸 석제어망추<sup>礮石錘</sup>가 대부분이고, 타격하지 않고 마연하여 홈을 낸 석제어망추와 토기편추가 극소량으로 조성을 이룬다. 마연하여 홈을 낸 석제어망추는 지탑리, 마산리, 남경유적에서만 확인된다. 토기편추는 지탑리<sup>도면 1-47·48</sup>와 마산리에서만 확인된다. 마산리에서는 마연하여 홈을 낸 석제어망추와 토기편추만 출토되어 주목된다.

기존 연구성과에 따르면, 역석추는 크기와 중량 같은 규격과 홈의 위치가 장축인지 단축인지가 유의미한 형식분류이다. 김경규<sup>2003</sup>의 기준에 따르면, 소형 : 길이 6cm, 너비 5cm 이하/ 중형 : 길이 5.5~10cm, 너비 4~9cm/ 대형 : 길이 9.5cm, 너비 7cm 이상으로 구분되며, 내륙지역에서 소형 어망추와 함께 단축방향 대형 어망추 1~2점씩이 출토된다고 한다.

이상규<sup>(2020)</sup>의 기준에 따르면 소형 : 100g 미만/ 중형 : 100~500g/ 대형 : 600g 이상으로 구분되고, 규격과 홈의 위치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조합관계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규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형은 거의 모든 유적에서 출토되며 광구토기<sup>光丘土器</sup>권인 양양 오산리C 조기문화층, 첨저토기<sup>첨저土器</sup>권인 연천 학곡리,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금탄리 등에서 100점 이상 출토되었다. 중형이 30점 이상 출토된 곳은 광구토기<sup>光丘土器</sup>권인 양양 오산리C 조기문화층, 첨저토기<sup>첨저土器</sup>권인 양양 지경리·송전리, 초당동, 소연평도, 가도, 노래섬, 모이도 등이다. 대형은 거의 첨저토기<sup>첨저土器</sup>권인 중서부지역에서만 확인되며, 가도와 노래섬, 모이도에서는 15점 이상 출토되었다. 단축방향 어망추는 소형이 광구토기<sup>光丘土器</sup>권에서 양양 오산리C 조기문화층, 동해 망상동에서 1점씩 확인되었고, 중형 이상은 모두 첨저토기<sup>첨저土器</sup>권에서 10점 이하로 출토되었다.

어망추의 출토양상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금탄리유적과 남경유적이다. 금탄리유적에서는 길이 2~3cm가 5호 주거지 358점, 9호 주거지 656점, 10호 주거지 207점, 11호 주거지 58점, 길이 3~4cm는 5호 23점, 9호 14점, 10호 25점, 11호 34점, 길이 5cm 이상은 5호 12점, 9호 5점, 10호 10점, 11호 3점이 봉쳐서 출토되었다<sup>김8간 1964</sup>. 남경유적에서는 직경 2~3cm 것이 31호 주거지에서 700점, 직경 3~4cm가 17·31호 주거지에서 2,000점, 4~6cm 것이 12·31호 주거지에서 300개 출토되었으며, 31호 주거지에서 직경 14~17cm, 두께 2~2.5cm 것이 2점 출토되었다. 또 3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3cm 미만 어망추에는 0.1~0.2cm, 3~4cm 어망추에는 0.3~0.4cm, 17cm 어망추에는 1.5cm 굵기의 노끈 흔적이 남아있어 그물추를 묶었던 노끈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준다<sup>김용간·석광준 1984</sup>.



〈도면 1〉 신석기시대 어로구 편년표

### Ⅲ. 한반도 신석기시대 어로구의 동태

앞에서 살펴본 어로구의 출토양상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어로구의 조성·변천과정을 광구토기군 분포권과 침저토기군 분포권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어로구의 변화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로는 중기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되어 후기구석기시대에 활발해졌다고 알려져 있으며<sup>공수진 2013, 서종원 2021</sup>,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구석기시대와 구석기~신석기시대 이행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어망추가 출토되어<sup>연세대학교박물관 202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9</sup> 어로의 출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와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여겨지는 유기물혼입<sup>고산리</sup>토기 단계에는 어로구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패총도 형성되지 않았다<sup>박근태 2021</sup>.

#### 1. 광구토기군 분포권

어로구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광구토기군의 가장 이른 단계이다. 적색마연·점열문토기가 출토되는 양양 오산리C유적 조기문화층에서 출토된 결합식납시, 어망추, 석제작살 유공침두기가 그것이다. 여수 안도의 I층<sup>순패각층과 혼패각층의 반복</sup>과 창녕 비봉리 제4패층<sup>혼패층</sup>에서 알 수 있듯이 패총도 형성되기 시작한다. 공반관계가 확실한 전기 고단계의 어로구는 현재 중동부지역에서만 확인되지만, 남부지역에서도 여수 안도패총 I층에서 적색마연·점열문토기, 용기문토기와 같이 출토되는 납시바늘<sup>도면 1-14</sup>과 작살<sup>도면 1-15·16</sup>은 이 단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광구토기군 가장 이른 단계의 결합식납시, 작살, 어망추로 구성된 조성은 광구토기군이 확산되었던 지역과 존속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광구토기군의 중단계 남부지역의 용기문토기, 중동부지역의 압날문(오산리식)·용기문, 다치압날문·용기문토기는 가장 풍부한 어로구가 확인되는 단계이다. 광구토기군 후단계 남부지역의 자돌압인문(영선동식)토기가 중동부지역에서는 공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단계의 중동부지역의 양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광구토기군 어로구의 세부 기종별 기본 조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합식납시는 석제촉부를 주체로 하고 골제와 패제촉부가 보완적으로 제작되었다. J자형과 C자형, I자형 모두 출토된다. 세부적으로는 C자형 단결구와 I자형 무결구를 제외한 모든 형식의 석제촉부가 확인된다. 골제와 패제는 재료의 특성상 J자형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골제는 I

자형 홈결구와 단결구, C자형 홈결구, 패제는 C자형 홈결구식이 소량 출토되었다. 주목할 점은 촉부는 모두 정면결합식 침부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석제촉부만 비교하였을 때 중동부 지역의 경우 J자형 촉부가 우세하고 C자형과 I자형이 드물게 사용되는데 비해, 남부지역은 J자형이 주체이며 I자형이 다소 출토되지만 C자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역성이 엿보인다. 침부는 정면결합식만 출토되며 세부적으로는 무결구·홈결구·45° 이하 단결구식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역T자형조침으로 불리는 골각기<sup>도면 1-30</sup>도 광구토기군 어로구 조성에 포함된다.

작살은 석제로 유공침두기와 인부를 크게 박리한 조합식작살이 사용되었다. 현시점에서 유공침두기는 광구토기군 고단계에 출현하여 신단계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조합식작살<sup>도면 1-9·22</sup>은 중단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부가 직선적인 형태의 석제 찰개살<sup>도면 1-11</sup>도 출토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찰개살은 러시아 연해주지역 보이스만문화와 계통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골제로는 자루 끝에 꽃는 역자식<sup>도면 1-21·29</sup>과 무기식<sup>도면 1-39·40</sup>, 능형<sup>도면 1-15</sup>이 확인되며, 자루 측면에 묶는 여서도형 작살<sup>도면 1-27·28</sup>이 특징적이다.

어망추는 광구토기군의 오산리C 조기문화층과 고성 문암리유적 VII-1·VII-2층에서 어망추가 다수 출토되었고 중동부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분류 기준의 소형과 중형이 3 : 1 이상의 비율이고, 단축방향 소형 어망추도 소량 출토된다.

그 외에 다량의 어망추가 출토된 곳은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sup>토기 단계인 창녕 비봉리 제1패층이다. 통영 연대도 J·K피트 IV층에서도 어망추가 다수 출토되었다. 용기문토기가 출토되는 창녕 비봉리 제2패층에서는 어망추가 전혀 출토되지 않고, 결합식조침과 골제작살만 출토되었다. 통영 연대도에서도 결합식조침은 용기문토기가 주체인 P~U피트 II~IV층에서 주로 출토되는 반면, 어망추는 용기문토기·자돌압인문토기·압날단사선문<sup>살내식</sup>·태선침선문토기가 혼재하는 J·K피트 IV층에서 주로 출토되어 서로 배타적인 출토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 두 유적에서 어망추는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sup>토기 이후에 새로 나타난 어로구라고 추정되며, 그 배경에 중서부지역 침저토기 분포권과의 교류관계의 강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남부지역에서는 자돌압인문<sup>영선동식</sup>토기 전에 어망추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일까. 현재까지 적색마연·점열문, 용기문토기 단계 유적인 여수 안도 II층에서 1점, 범방유적 A지구 6-2층에서 1점, 창녕 비봉리 II 제4·3패층에서 1점씩만 출토되었다. 어망추가 1점 출토되는 경우 어망추로 인정하지 않는 연구자도 있고 출토양상으로는 어망추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광구토기군 내에서 어망추는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여 단절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창녕 비봉리에서는 45층에서 선사시대 최초의 배가 출토되었는데, 방사성탄소연대로 5,680~5,480 cal BC, 5,710~5,530 cal BC가 cal BC가 얻어졌다. 층위는 다르지만 아마도 제4패층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와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소나무를 U자상으로 파내어 만든 통나무배(丸木船)으로 비봉리유적의 입지를 고려한다면 기수역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진수 2006).

## 2. 첨저토기군 분포권

첨저토기군은 그 내부에서 궁산문화와 수가리문화로 다시 구분된다. 궁산문화는 첨저토기가 출현하고 소멸한 중서부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하고, 시기에 따라 중동부·남부지역에도 분포하였다. <표 1>의 기울임체에 해당하는 시기와 지역이다. 수가리문화는 궁산문화가 확산한 지역에서 자체적인 변용을 거쳐 발생한 궁산문화의 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첨저토기군 궁산문화 분포지역의 어로구로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어망추와 석제 찢개살이 있다. 어망추는 기본적으로 첨저토기군 핵심분포권인 중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어로구이다. 궁산, 소연평도, 모이도, 노래섬·비응도 등 이상규 분류 기준 중형과 대형만 출토되는 유적이 있어, 광구토기군 분포권에 비해 중형과 대형의 비중이 높다. 단축방향 중형 어망추도 다수의 유적에서 출토된다. 시기적으로 전시기에 걸쳐 사용되며, 남경유적과 금탄리유적의 사례와 같이 특히 후기에 돌출적으로 다량의 어망추가 출토되는 유적이 나타난다. 중동부지역의 첨저토기군 궁산문화 분포권에서는 소형과 중형의 비중이 비슷하고 대형은 거의 출토되지 않으며, 단축방향 중형 어망추가 다수 확인된다.

석제 찢개살은 광구토기군에 공반하는 것과 다른 계통으로, 주로 대동강과 한강, 임진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전기~후기에 걸쳐 사용되었다. 그것이 중기에 중동부지역에도 확산되었다.

첨저토기군 수가리문화는 중기에 일시적으로 중동부지역까지 확산되지만 주로 남부지역에 분포하므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중기에는 궁산문화 분포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망추를 기본적인 어로구로 하고 사두형 골제작살이 확인된다. 어망추뿐만 아니라 동삼동Ⅱ의 2층에서 나온 그물문토기(국립중앙박물관 2004의 도면48-754)의 구연부 형태가 태선침선문(수가리식)토기의 비후구연인 점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후기에 들어오면 어망추, 골제작살에 패제축부+골제침부로 이루어진 결합식납시와 석제 조합식작살이 추가된다. 결합식납시의 축부는 석제는 보이지 않고, 측면교차식 무결구 패제축부가 확인된다. 침부는 45° 이상 정면결합 단결구식이 주로 출토되며, 측면교차식과 상

하결합식이 소량 확인된다<sup>4</sup>. 사천 구평리, 군산 노래섬 가지구 2층과 제주 하모리에서 출토된 45° 이상 정면결합 단결구식 침부는 재지계이며, 부산 동삼동과 통영 상노대도에서 출토된 측면교차식과 상하결합식 침부는 일본 큐슈지역과의 교류관계를 통해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제 조합식작살은 인부를 잘게 박리한 형태로, 이는 일본 큐슈지역에서 조합식작살의 출현과 연동해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IV. 남해안지역 어로구의 특징

한반도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 중 남해안은 가장 굴곡진 리아스식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다도해라는 명칭에 걸맞게 우리나라 섬의 60%가 남해에 위치해 있다. 수심은 동해와 서해의 중간에 해당되며, 갯벌도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난류인 쿠로시오해류와 한류인 리만해류가 만나 양호한 어장이 형성되는 해역이다(최종혁 2006).

물질문화의 면에서도 신석기시대 전기에는 광구토기군 분포권에 속하였다가, 중기 전반기에 첨저토기군 궁산문화가 확산되고 중기 후반기부터는 첨저토기 수가리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 남부지역에는 한반도에 출현했던 모든 토기군이 시기를 달리하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과 물질문화의 다양성을 배경으로 남해안지역의 어로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양적으로 풍부하고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용된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 동해안과 서해안, 나아가 일본 큐슈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종의 어로구를 수용하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동해안지역과는 광구토기군 전시기에 걸쳐 유사한 어로구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신단계에는 서해안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어망추라는 새로운 기종을 받아들이고 서해안지역에 결합식납시와 석제작살을 전했다. 첨저토기 시기에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첨저토기군

4. 동삼동패총 1호 주거지에서 측면교차식 홈결구 침부(부산박물관 2007의 도면 8-9)가 완형으로 1점 출토되었는데, 광구토기군 시기에는 측면교차식 침부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첨저토기군의 태선침선문(수가리식)토기에 공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측면교차식 침부의 출현이 중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므로, 향후 이 시기 자료의 증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의 어로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서부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종, 즉 결합식낙시와 석제 조합식작살 등이 추가된다. 그리고 다시 서해안의 남부지역과 교류하며 새로운 결합식낙시를 전했다. 남해안지역에서 새로운 기종의 어로구가 개발된 것은 어업환경에 맞는 어로구의 개발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시키려는 남해안지역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후기 이후 남해안지역 어로구가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은 일본 큐슈지역과의 교류의 창구였다는 점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전에 죠몬시대 조기말에서 전기초두 최온난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기원전 5,000년기부터 4,000년기 중경와 죠몬시대 후기기원전 3,000년기말부터 2,000년기의 두 시기에 어민의 활동이 현저했으며, 그것은 패총의 형성과 한반도와 큐슈지역에 공통하는 풍부한 선사시대 어구로 나타난다고 한 적이 있었다<sup>甲元真之 1999</sup>. 그 대표적인 것이 서북큐슈형 결합식낙시와 석제 조합식작살이다.

오랫동안 서북큐슈형 결합식낙시의 원류가 한반도의 오산리형 결합식낙시, 본고에서 말하는 광구토기군에 공반하는 석제촉부+골제침부의 결합식낙시이며, 신석기시대 한일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필자는 큐슈지역에서의 결합식낙시 석제촉부의 유일한 출토 예인 오오야<sup>大矢</sup>유적의 자료에 대해 형태적 유사성이 불충분하고 결정적으로 큐슈지역 죠몬 후기초두에 해당하는 시기상의 격차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산리형 결합식낙시가 서북큐슈형 결합식낙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sup>김은영 2007</sup>. 최근 일본에서도 서북큐슈형 결합식낙시는 나바타케<sup>菜畑</sup>유적 출토 예<sup>5</sup>를 제외하면 죠몬 후기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sup>中尾篤志 2009</sup>. 또한 재질과 상하결합식이라는 결합방식의 차이로 인해 오산리식 결합식낙시와의 관련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sup>中尾篤志 2009·2013, 水ノ江和同 2015</sup>.

필자의 의견도 서북큐슈형 결합식낙시는 한반도 남해안지역에서 첨저토기에 공반하여 새로 출현한 골제·패제촉부+골제침부의 결합식낙시와 연동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큐슈지역에서는 패총의 형성도 많아지고 한반도에서는 큐슈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흑요석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양 지역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 간취된다<sup>김은영·장용준 2022</sup>.

서북큐슈형 결합식낙시와 더불어 죠몬 후기에는 거치침두기·석거도 출현하게 되는데,

5. 미즈노에는 나바타케유적 출토 결합식낙시도 후기에 귀속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水ノ江 2015). 그런데 나바타케유적 출토 결합식낙시는 상하결합식 낙시가 주체인 큐슈지역에서 드물게 측면결합식이다. 기존 의견대로 이것이 죠몬 전기후반 소바타식토기에 귀속된다면, 동삼동패총 1호 주거지 출토 측면결합식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향후 유사한 자료의 증가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남해안지역에 나타난 측면교차식과 상하결합식 결합식낙시와 인부를 잘게 박리한 석제 조합식작살은 이러한 한일교류관계의 강화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한반도 신석기시대 어로구의 출토양상과 변천과정을 광구토기군과 첨저토기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남해안지역 어로구의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광구토기군 분포권에서는 결합식낙시, 작살, 어망추 등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어로구가 사용되었다. 석제촉부와 골제침부로 이루어진 결합식낙시, 유공침두기와 인부를 크게 박리한 조합식작살, 여서도형 골제작살 등이 특징적이다. 첨저토기군의 어로구는 중서부지역 궁산문화에서 어망추와 석제 찢개살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구성이, 남부지역 수가리문화에서는 골·패제촉부+골·아제침부의 결합식낙시와 인부를 작게 박리한 조합식작살, 사두형 골제작살 등이 추가되어 복잡하게 전개된다.

결과적으로 남해안지역은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비해 신석기시대 전시기를 통해 가장 다양한 어로구가 확인되고, 일본 큐슈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그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글은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계통을 달리하는 두 토기군을 토대로 어로구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어로구 또한 각 토기문화권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광구토기문화권과 첨저토기문화권은 생업체계와 사회 성격을 달리 하였으므로, 어로방식과 어로의 역할과 의미도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삼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江原考古文化研究院, 2022, 『高城 文巖里 遺蹟 -고성 문암리유적(사적 제426호) 발굴조사 보고서』, 江原考古文化研究院 學術叢書 97冊.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4,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 여관신축부지 문화유적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江陵 江門洞 鐵器·新羅時代 住居址』,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9冊.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6, 『江陵 草堂洞 遺蹟Ⅰ』,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50冊.
- 江原文化財研究所, 2015, 『東草 大浦洞 外甕峙遺蹟』, 江原文化財研究所 學術叢書 135冊.
- 慶星大學校博物館, 2006, 『太宗臺 進入道路 擴張敷地內 釜山東三洞遺蹟』, 慶星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13輯.
- 공수진, 2013, 『후기구석기시대』, 『한국고고학전문사전 : 구석기시대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國立光州博物館, 1989, 『突山松島Ⅰ』,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 제19책.
- 國立光州博物館, 1990, 『突山松島Ⅱ』,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 제21책.
- 國立光州博物館, 1994, 『附1. 麗川郡鳥嶼 地表調査 報告』, 『突山松島Ⅱ』, 국립광주박물관학술총서 제27책.
- 國立光州博物館, 2006, 『新安 可居島 貝塚』, 國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 第55冊.
- 국립광주박물관, 2009, 『安島貝塚』, 國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 第58冊.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高城 文岩里 遺蹟』.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高城 文岩里 遺蹟Ⅱ』.
- 국립중앙박물관·국립춘천박물관, 2013, 『寧越 恭基2窟·꽃瓶窟 洞窟遺蹟』, 국립춘천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5책.
- 國立普州博物館, 1989, 『欲知島』, 국립진주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3책.
- 國立普州博物館, 1993, 『煙臺島Ⅰ』, 국립진주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8책.
- 김건수, 1999,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 서울: 학연문화사.
- 김건수, 2006, 『신석기시대 해안지역의 어로문화』,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학술총서Ⅱ, pp. 39~70.
- 김건수, 2021, 『맛있는 고고학』, 대한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012, 경기도: 진인진.
- 김건수·이순엽, 1999, 『麗水 거문도와 손죽도의 신석기시대 패총』, 『順天大博物館誌』創刊號, 순천대학교박물관, pp. 5~27.
- 김경규, 2003, 『한반도 신석기시대 어로활동 연구 - 어망추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용간, 1964, 『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 발굴 보고 제10집,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은영, 2007, 『고성 문암리유적(高城 文岩里遺蹟)을 통해 본 신석기시대 평저토기문화의 전개』, 『文化財』第40號, pp. 169~205.
- 김은영·장용준, 2022, 『한반도 신석기시대 흑요석제 석기의 출토양상과 의미』, 『한국고고학보』2022권 2호, pp. 215~247.
- 김충배, 2007, 『서해 중부도서지역 신석기시대 어로문화의 성격』,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의 제문제』, 2007년도 서울경기고고학회·한국신석기학회 공동학술대회, pp. 89~95.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3, 『사천 구평리 유적 - 신석기시대 조개더미 발굴보고』.
- 東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2007, 『蔚山細竹遺蹟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매장문화재연구소 발굴보고서 제2집.
-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7, 『蔚山牛峰里遺蹟』, 古蹟調査報告書 第二十六冊.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완도 여서도 패총』, 목포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제150책.
- 박근태, 2021, 『제주도 신석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형근, 2019, 『한반도 신석기시대 자돌어업(刺突漁業)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부산문물연구원, 2017, 『蔚州 新岩里 遺蹟』, 古蹟調査報告 第22輯.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6, 『凡方貝塚Ⅱ』,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연구총서 제11책.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4, 『淸道 梧津里 岩蔭遺蹟』.
- 부산박물관, 2007, 『東三洞貝塚淨化地域 發掘調査報告書』,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24집.
- 부산박물관, 2009, 『凡方遺蹟』,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26집.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蔚珍 竹邊里 遺蹟』, 學術調査報告 第25冊.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5, 『蔚珍 竹邊里 15-68番地 遺蹟』, 學術調査報告 第56冊.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9, 『蔚珍 竹邊里 遺蹟Ⅱ』, 學術調査報告 第85冊.
- 서종원, 2021, 『어구』, 『한국생업기술사전 : 어업』, 국립민속박물관.
- 손보기, 1982, 『상노대도의 선사시대 살림』, 서울: 수서원.
- 신중환, 1989, 『蔚州 新岩里 遺蹟』, 『嶺南考古學』6, pp. 127~171.
- 신희창·김진수, 2020,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어로구 연구-골각기를 중심으로』, 『韓國新石器研究』第39號, pp. 1~32.
- 에맥문화재연구원, 2007, 『江陵 草堂洞 遺蹟Ⅱ -월송로~허균생가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査報告 第2冊.
- 에맥문화재연구원, 2012, 『江陵 草堂洞 遺蹟Ⅴ -강릉 허균생가-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調査報告 第47冊.
- 이상규, 2020,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 어로문화 변동과정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영덕, 1999, 『노래섬 가地區貝塚 出土 櫛文土器』, 『先史와 古代』13, 韓國古代學會, pp. 145~176.
- 이영덕, 2006, 『서·남해안 신석기시대 어로구와 어로방법』,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동삼동패총 전시관 학술총서Ⅱ, pp. 117~152.
- 이영덕, 2006, 『新石器時代 潛水작살의 可能性-骨制單式固定작살을 中心으로-』, 『韓國新石器研究』第11號, pp. 129~140.
- 임상택, 2007, 『신석기시대』, 『한국 고고학 강의』, 한국고고학회, pp. 47~72.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제주 하모리유적』.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사계리 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발굴조사보고서 제9집.
- 최경용·문수균, 2013, 『신석기시대 짚개살 제작 및 사용 실험 연구』, 『중앙고고연구』제13호, 중앙문화재연구원, pp. 35~57.
- 최중혁, 2006, 『신석기시대 어로민의 생계유형』,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학술총서Ⅱ, pp. 7~37.
- 忠南大學校博物館, 2001, 『駕島貝塚 - 群長國家工團造成地域(群山地區)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 忠南大學校博物館叢書 第22輯.
- 하인수, 2006, 『동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어로구』,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동삼동패총 전시관 학술총서Ⅱ, pp. 153~189.
- 하재령, 2015, 『한반도 신석기시대 첨두형석기(尖頭形石器)의 시·공간적 검토』, 『韓國新石器研究』第30號, pp. 1~25.
- 한국고고학회, 1968, 『春川 校洞 穴居遺蹟出土 遺物』, 『考古學』第一輯, pp. 129~139.
- 한국문물연구원, 2014, 『釜山 加德島 獐項遺蹟(上)·(中)·(下)』, 古蹟調査報告 第39冊.

- 湖南文化財研究院, 2014, 『麗水 鏡島 新石器時代 貝塚 -内洞・外洞・五福1・五福2貝塚-』, 學術調査叢書 第175冊
- 唐津市教育委員会, 1982, 『茶畑遺跡』, 唐津市文化財調査報告書 5.
- 木村幾多郎, 2002, 『韓国新石器時代結合式釣針考』, 『古文化談叢』第48集, 九州古文化研究会, pp. 149~173.
- 甲元真之, 1999, 『還東中国海の先史漁労文化』, 『文学部論叢』65(歴史学編), 熊本大学文学会, pp. 133~165.
- 佐藤宏之, 2007, 『縄文時代の狩猟・漁撈技術』, 『縄文時代の考古学5 なりわいー食糧生産の技術』, 東京: 同成社, pp. 3~16.
- 砂田佳弘, 1983, 『石槍』, 『縄文文化の研究 7 道具と技術』雄山閣, pp. 75~87.
- 高橋健, 2008, 『日本列島における銛猟の考古学的研究』, 札幌市: 北海道出版企画センター.
- 久我谷溪太, 2016, 『鋸齒尖頭器・石鋸の系譜と展開』, 『東京大学考古学研究室研究紀要』第30号, pp. 1~32.
- 水ノ江和司, 2015, 『結合式釣針の系譜』, 『森浩一先生に学ぶー森浩一先生追悼論集ー』, 同志社大学考古学シリーズ XI, pp. 83~93.
- 中尾篤志, 2009, 『西北九州地域における漁撈具の動向』, 九州縄文研究会, 『九州における縄文時代の漁撈具』, pp. 6~17.
- 中尾篤志, 2013, 『結合式釣針』, 『季刊考古学』第125号, pp. 55~58.
- 山崎純男, 2004, 『西日本の結合式釣針』, 『考古論集(河瀬正利先生退官記念論文集)』, pp. 259~270.
- 渡辺誠, 1966, 『縄文文化時代における釣針の研究』, 『人類学雑誌』74 (1), 日本人類学会, pp. 19~46.
- 渡辺誠, 1985, 『西北九州の縄文時代漁撈文化』, 『列島の文化史2』,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pp. 45~96.

南海岸 初期漁具

# 남해안 초기어구

총괄 김태만  
기획 김희영, 서영남, 권유리  
진행 김재휘

원고 작성 김재휘  
부록 원고 김은영(부산박물관), 이상규(가야문화연구원)  
교정 및 교열 권유리, 김희경, 전경호, 김현주

제작 디자인나무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처 국립해양박물관 www.mmk.or.kr / 051-309-190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발간등록번호 11-B553496-000041-01  
ISBN 979-11-88805-53-2(93520)



© 국립해양박물관(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2023

이 도서의 저작권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동의 없는 어떠한 형태나 의미로든  
재생산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orm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of Korea



9 791188 805532 93520

[www.mmk.or.kr](http://www.mmk.or.kr) 비매품  
ISBN 979-11-88805-53-2 93520